현대불교

제 798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8월 25일 수요일 (음력 7월 16일 · 불기 2554년 · 주간)







제25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대상 수상작 이지연 작가의 '목어 이야기'. 관련기사 6면

"화쟁, 한국의 문화로 만들 터"

화쟁위 출범 6개월… 9월 중 봉은사 건 마무리

화쟁을 화두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출범 6개월 여를 맞았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8월 17일 '화쟁사상과 사회갈등 해소'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데 이어, 18일 인사동 모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법 스님은 "화쟁위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현실 사안과는 별도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에서 화쟁의 담론이 이어져 화쟁이 문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화쟁위가 논의 중인 안건은 봉은사건과 4대강 사업건이다. 화쟁위는 9월 중 봉은사건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 짓는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10월까지 화쟁위 활동을 마칠 계획이다.

스님은 "화쟁은 절충 · 타협을 넘어 불교라는 진리의 정신을 갖고 현실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쟁은 실상을 보고 실상대로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자식을 낳은 것이 부모라면 부모는 누가 낳았을까요? 할아버지 · 할머니도 자식을 낳았지 부모를 낳은 것은 아닙니다. 자식 없는 부모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의상관돼 있다는 이것이 바로 연기이며, 부처님은 이 실상을 바르게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어 스님은 "형과 아우의 관계도,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라며 "조계종이 화쟁위를 구성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괜찮은 결정이었다"라고 흡족해 했다.

도법 스님은 "불교만 생각해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민 · 대중이 요구하는 일 등 사회를 위하는 길에 불교계가 나서는 것에 해답이 있다"고 말했다.

"초기불교에서는 고 · 집 · 멸 · 도 사성제에 중심으로 개인의 해탈을 중시했지만 사성제는 대승불교에 이르러 사홍서원으로 바뀝니다. 사홍서원의 실천이 곧 불교의 이익입니다."

스님은 "내 것만을 챙겨 이익되는 것은 연기적이지 않은 것"이라며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해 얻은 것이 불교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행정 · 생태적 문제 이전에 민주주의의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사업 시행 이전에 충분한 정보공개와 논의 · 합의가 결여됐다는 것.

그러면서도 스님은 "화쟁위는 4대강 사업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구가 아니다. 갈등을 통합 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화쟁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화쟁위는 봉은사와 4대강사업 건에 대한 활동에 이어 인터넷 등 여러 경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차기 안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첫 워크숍에 이어서는 화쟁으로 불교적 · 사회적 담론을 여는 다른 형태의 워크숍도 준비중이다.

"다음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이 '원고 량과는 관계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했다' 싶을 정도로 대화의 마당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도가 대중화돼 화쟁이 문화가 되고, 화쟁을 주제로 우리 시대 양심과 지성의 무대가 끝없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2면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연꽃마을 한 · 일노인복지세미나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이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모델을 찾는 국제세미나가 열린다.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은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를 주제로 9월 8일 용인시노인복지관에서 제1차 한일 노인복지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후루가와 코준 일본사회복지학회장(도요대 교수)의 기조강연 '저출산 고령사회 준비'를 시작으로 '한일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건강한 노년생활 만들기', '소규모다기능 시설의 전망'을 주제로 분과별로 진행된다.

제1분과 '한일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나가노 도요대 교수가 '일본 개호보험 10년의 현황과 문제점'을, 이선영 루터대교수가 '한국장기요양보험2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발표한다.

제2분과 '건강한 노년생활 만들기'에서는 스즈끼 도요대 교수가 '노화예방운동'을, 홍승연 강남대 교수가 '운동관리사 파견활동' 등을 발표한다.

제3분과 '소규모다기능 시설의 전망'에서는 시바다 도요대 교수가 '일본의 소규모 다기능시설 실천 현장의 과제'를, 이정희 나눔의샘 원장이 '한국의 소규모 다기능시설의 운영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상언 기자

김영환 장군 금관문화훈장 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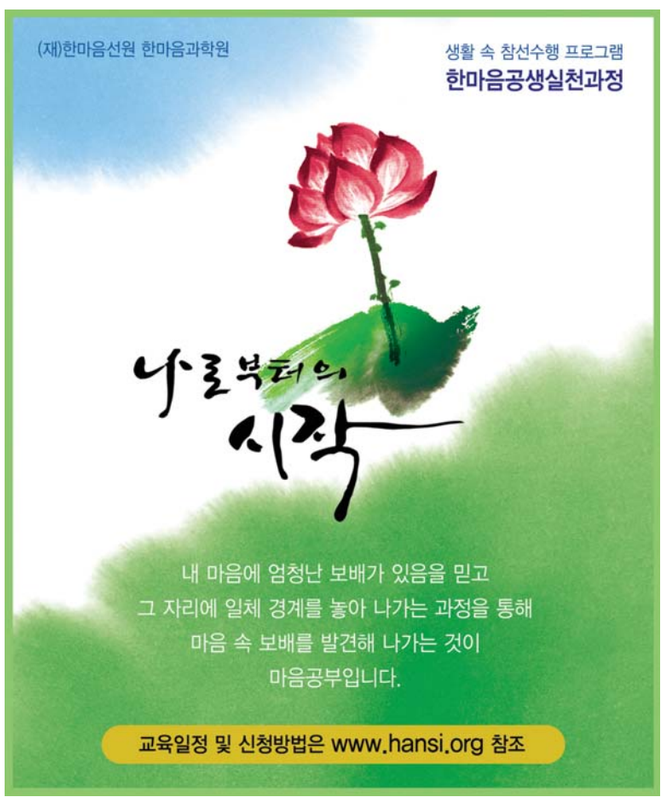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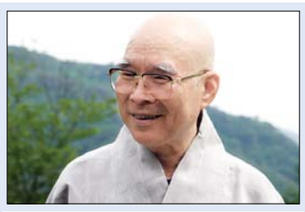
한국전쟁 당시 폭격 명령을 거부해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故 김영환 장군(공군. 당시 대령 · 사진)을 위한 추모재가 봉행됐다.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8월 21일 경내 탑마당에서 '故 김영환 장군 호국 추모재를 봉행한다. 추모재에서는 고인에게 추서된 금관문화훈장을 이건무 문화재청장이 정부를 대표해 고인의 유가족에게 전했다. 해인사는 김영환 장학기금으로 2000만원을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에 전달했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故 김영환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가야산에 숨어든 인민군 수백 명을 살려 보내더라도 소중한 문화재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폭격할 수는 없다는 소신으로 공격을 포기했다.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재 팔만대장경과 천년고찰 해인사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한 고마운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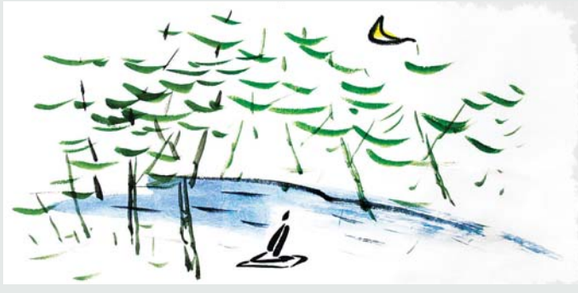




14 간화선 세미나 고우 스님
선가(禪家)에서는 인간의 기록을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을 깨달은 선지식들의 점검을…
9 현장 월정사 산사학교
16 강의실 원만한 부모자녀는?



바른 수의 그림법구경



인자하게 오래 살면
남에게 침범을 당하는 일이 없고
마음의 변화와 남들에게 원망을
일으키지 않으며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 소란스럽게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으로 편안함을 누린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www.hyunbulshop.com

‘나무와 숲처럼 상생’이 화쟁이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화쟁사상 · 사회갈등 주제 워크숍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8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화쟁사상과 사회갈등 해소’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화쟁위원회 활동이 반석에 올라설 수 있도록 모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부처님 자비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종단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가 ‘화쟁–원융무애의 실천적 원리’를,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가 ‘사회갈등 해소, 화쟁이 대안이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화쟁의 시작

몇 사람의 장님이 코끼리를 묘사했다. 코를 만진 어떤 이는 “코끼리는 길다”고 말했다.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벽과 같다”고 표현했다. 다리를 만진 이는 “기둥과 같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런 장님들의 언급에 대해 원효 스님은 “모두 옳다(皆是)”라고 말했다. 장님들의 묘사가 부분적이긴 했지만 코끼리가 아닌 다른 것을 언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원효 스님은 “모두 틀렸다(皆非)”고 말했다. 어느 누구도 코끼리의 전모를 묘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조성택 교수는 “원효 스님은 ‘장님과 코끼리’라는 잘 알려진 비유를 통해 일상적 실천의 차원에서 자신의 독창적인 화쟁론을 제시했다”며 “원효는 자신이 살던 당시의 불교적 상황에 대해, 더 나아가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 비유를 소개했다”고 말했다.

조성택 교수는 “원효 스님이 이 비유를 사용할 때 한가지 핵심적 사항은 자신 또한 ‘장님’들 중 한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했다. 나만이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도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면 나도 틀렸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화쟁”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만약 코끼리가 아닌 우리가 듣고 보도 못한 어떤 동물을 비유로 들었을 때 우리는 감히 ‘나는 장님이 아니며 그 동물의 전모를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원효 스님은 ‘장님과 코끼리’의 비유를 통해 중생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지향할 것인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

“화쟁은 하나지만 하나 아닌 도리”


이도흠 한양대 교수

“열매와 씨가 하나가 아니니 그 모양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르지도 않으니 씨를 떠나서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씨와 열매는 단절된 것도 아니니 열매가 이어져서 씨가 생기기 때문이요, 그러나 늘 같음도 아니니 열매가 생기면 씨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씨는 열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열매일 때는 씨가 없기 때문이요, 열매는 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씨일 때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생하는 것이 아니요, 늘 같지도 끊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멸하는 것이 아니다. 멸하지 않으므로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생하지 않으므로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두 변을 멀리 떠났으므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 가운데 해당하지 않으므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말할 수 없다.” –<금강삼매경론>

이도흠 교수는 “화쟁의 의미 가운데 하나인 불일불이(不一不二)는 우열이 아니라 차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투쟁과 모순이 아니라 자신을 소멸시켜 타자를 이루게 하는 상생의 사유체계”라고 강조했다. 씨는 스스로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지만 열매와의 ‘차이’를 통해 의미를 갖는다는 것.

이도흠 교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물고기가 나고 죽어 미생물로 변하는 영겁의 순환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다는 서로 상즉상입한다는 생각으로 아공(我空)을 깨달아 나부터 권력과 자본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그와 나무와 숲처럼 불일불이의 상생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국사가 시자 세 번부른 뜻은?

하안거 해제 맞아 조계종 법전 스님 태고종 혜초 스님 해제 법어

8월 24일 하안거 해제일을 맞아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이 해제법어를 내렸다.

법전 스님은 8월 24일 법어에서 남양혜충 국사와 시자인 응진탐원 스님의 일화를 예로 들며 “한 번만 부르고 한 번만 대꾸해도 좋을 것인데 (남양혜충 국사와 시자인 응진탐원 스님이) 세 번 부르고 세 번 대꾸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라는 화두를 내렸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법전 대종사는 “하안거 해제 대중은 모든 답에 아랑곳 하지 말고 해제 후 길거리에서도 그저 ‘국사가 세 번 시자를 부른 뜻’을 잘 참구해 보라”며 해제 후에도 지속적인 수행을 강조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에서 “어떤 것을 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인과 객이 서로에게 객과 주인으로 살갑게 대하면 어느 경계인들 자유롭지 않겠느냐”며 “자고 깨고 먹고 굶고 일하고 노는 일이 불사 아닌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제 석달동안 불사를 했는지 열반락을 누렸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만행(萬行)을 하라”며 “가다가 발뒤꿈치가 오랜만에 깨끗해진 농부를 만나거든 그가 바로 석가요, 미륵임을 알고 예경하라”고 법문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한편, 조계종은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경인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이번 하안거에는 전국 104개 선원(총림 5곳, 비구선원 61곳, 비구니선원 38곳)에서 2257명(비구 1182명, 비구니 864명, 총림 204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했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각명 · 성호 스님 총무원장 직무정지신청

호계원, 각명 스님 공권정지

종무행정 거부로 징계 회부된 각명 스님(보은 봉곡암)과 지난해 10월 총무원장 선거 당시 괴문서 유포 용의자로 지목된 성호 스님(진안 금당사)이 8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관계자는 “각명 · 성호 스님 모두 종단에 징계회부된 스님으로 가처분신청 등의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각도로 대처방안을 강구중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정념)은 종무행정 거부 이유로 징계 회부된 각명 스님에게 공권정지 10년을 결정했다. 조동섭 기자

수요일엔 생명평화 대화마당

4대강 생명살림기도 2차 정진 입재

불교계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정진에 다시 돌입했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8월 20일 조계사에서 지관 스님(4대강개발사업저지특별대책위원장), 퇴휴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을 비롯한 불교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생명살림 108참회정진’ 2차 입재식을 개최했다. 입재식에서 지관 스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밖에 없다. 많은 동참바란다”고 말했다. 퇴휴 스님은 “MB정부는 언론까지 장악하면서 모두를 절망에 빠뜨렸다”면서 “2차 정진을 시작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고, 모든 생명에 평화를 전하는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8월 20일 서울 조계사에서 4대강 생명살림기도 2차정진 입재식을 봉행했다. 불교연대는 입재식 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0여 4종단 대표와 신도등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공동기도회 진행했다.

10월 1일까지 열리는 이번 2차 정진에는 매주 수요일 ‘생명평화대화마당’이 개최되며 매주 금요일에는 참회정진 후 대한문 앞에서 4대강사업저지 천주교연대, 기독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등이 참여하는 4대종단 공동기도회로 확대 · 진행된다.

노덕현 · 이상언 기자

MBC는 PD수첩 방영하라

국토부가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한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MBC(사장 김재철)이 8월 17일 임원회의서 방송 보류한데 대해,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19일 ‘MBC는 을 방영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마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4대강 사업이 (정부 측 주장대로) 그토록 당당하다면 대통령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MBC 은 빨리 제대로 방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방영될 예정이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에는 △수심을 6m로 유지하려는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개회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건 등 통과 관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제184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한다. 관련한 의안 접수는 8월 30일 · 종책질의 9월 1일까지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접수 받는다.

이번 종회는 제14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종회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난 183회에서 이월된 안건을 중심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제33대 집행부가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승려노후복지 관련법 제정과 수익사업 등을 위한 불교법인법 제정안, 해외특별교구 설립 관련법은 11월 구성될 제15대 종회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형식적인 회기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 임시중앙종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동국대 이사 후보추천건도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회의 일정을 정해놓고 있지 않아 동국대 이사 후보추천건은 본회의 상정조차 확실치 않은 상태이다.

제183회 임시중앙종회에서는 영배 스님 후임으로 추천된 정호 · 범해 스님과 정념 스님 후임으로 추천된 종호 · 선각 스님 등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영배 스님 후임은 총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념 스님 후임은 재산 출연 사찰의 예우 문제로 부결 시켰다.

한편, 제15대 조계종 중앙종회는 10월 28일 직선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1월 중 구성된다. 조동섭 기자

한국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 8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 · 소리과정 :**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 법. 사십구재 · 천도재 제사 준비 등 전과정 지도 (6개월 과정)

■ **작법 · 무용과정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6개월 과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지 도 교 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0–나호 범패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 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10년 9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 (오리엔테이션 및 학사일정 설명)
- **모집인원** : 0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 요일 :** 범패 · 의식과정 : 화요일 오후 3시 ~ 오후 5시 / 작법 · 무용과정 : 금요일 오후 1시 ~ 오후 3시
- **수 강 료 :** 1학기(6개월 과정) – 과정당 30만원
- **접수기간 :** 2010년 8월 ~ 2010년 9월 6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교는 초종파 불교예술대학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교의 성적 우수자는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불교의식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 한국불교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1–10호 인해빌딩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동소정사거리 부평6동 우체국 옆)
전 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4. 종단 및 사찰운영

혹시 우리는 방관자 아닌가?

100년 전의 <조선불교유신론>. 우리는 유신하였는가? 답하기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100년 전에 운위됐던 그 글을 읽으면서 아직도 그렇다 하는 수긍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갈 길이 아직은 남은 까닭일 게다. 이 장문의 논설에는 서론과 결론을 제하고도 15개 항목의 주장이 조목조목 제시돼 있다. 종단이나 사찰의 운영에 있어서도 참고할 부분이 적지 않은데, <사원의 주직(住職)의 선거법> <승려의 단결> <사원의 통할(統轄)> 세 개의 장이 해당 부분이다.

필자의 눈에 이 부분은 단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다. 유신을 하기 위해서는 단결이 필요한데, 어떻게 단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 단결할 것인가? 특히 사원의 통할(統轄)이라는 문제에 이르면, 만해 스님은 "끝내 그 방책을 생각해 내지 못하니, 스스로 생각해도 우스운 일"이라고 말한다.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음이다.

자세히 읽다보면 만해 스님이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사원주직과 승려의 단결 문제를 논할 수밖에 없는 만해 스님의 현실인식에 그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만해 스님의 논지 혹은 구체적인 방책은 간단하다. 제발 '이런 주직(住職), 이런 승려는 되지 말자'는 것이다.

만해 스님은 세 종류의 주지상을 예로 들었다. 첫째는 지혜롭고 어리석음을 가리지 않고서 나이 차례, 법랍 차례, 거실(居室) 차례로 돌아가면서 소임을 맡는 형태인 윤회주직(輪回住職), 둘째는 뇌물과 위세를 빌어 주직을 차지하는 의뢰주직(依賴住職), 완력과 폭력으로 약육강식하는 무단주직(無斷住職)이 그것이다. 만해 스님은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거로 주지를 뽑고, 월급을 정해 지불할 것을 주장했다. 오늘의 현실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일리는 있다. 만해 스님은 선거로 하면 그나마 좀 더 나은 사람을 뽑지 않겠는가 하는 것인데 윤회주직, 의뢰주직, 무단주직이라는 당시의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보다 검증된 방법에 대한 선호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만 승가라는 수행공동체는 그 특성상 효율성만 따지기는 곤란하며, 경쟁과 부작용을 낳는 선거라는 방식은 승가공동체가 오히려 마지막에나 선택해볼만한 방식이 아닐까?

또 만해 스님은 제발 이런 승려는 되지 말자면서 양계초의 <방관자를 꾸짖는 글>을 인용해 여섯 종류의 방관자를 예로 들었다.

첫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은 없고, 배고프면 먹고 곤하면 자는 혼돈파(混沌派)이다. 둘째는 무사안일에 젖어 자기에게 이득이 없고 손해가 없으면 상관할 바 없다는 위아파(爲我派)이다. 셋째는 현실에 대해 탄식만 하는 오호파(嗚呼派)이다. 넷째는 모든 일을 방관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비웃고 혹평까지 하는 소매파(笑罵派)이다. 다섯째는 언제나 남에게만 기대고 자기에게는 기대를 걸지 않는 포기파(暴棄派)이다. 여섯째는 사실은 방관자이면서 방관자가 아닌 척 하는 대시파(待時派)이다.



2007년 10월 19일 문경 봉암사에서 봉행된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법회'. <현대불교 자료사진>

윤회 · 의뢰 · 무단주직 폐해 해소 위해 선거제 주장
혼돈 · 위아 · 오호 · 소매 · 포기 · 대시파 되지 말라 경책

이 부분은 조선불교의 유신이라는 당면 목적하에서 만해 스님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아닐까 한다. 너도나도 나서서 울타리를 고치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면, 오히려 <조선불교유신론>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조선조 500년의 수동적이고 관성적인 삶 때문에 능동성을 잃어버린 승가는 그리고 승려들은 당시 방관자였을 뿐이었다. 만해 스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은 요즘 절집 안에서 흔히 듣는 그 말이 아니었을까? "주인공이 되어라!"

<조선불교유신론>, 그 후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앞을 볼 때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은 너무도 당연해서 다시 할 필요도 없는 말이다. 만해 스님의 말대로, "일이 잘못된 것은 다시 반복할 수 없으니, 과거를 뉘우치고 미래를 경계함이 가장 옳을 것"이다.

과거를 뉘우치고 미래를 경계하는 자는 방관자가 아니다. 주체로서 참여하는 자이다. 주인공으로서 활동하는 자일 것이다. 다만 주인공도 제대로 된 주인공이 있으니, 윤회주직도 주인공이 아니며, 의뢰주직도 주인공이 아니며, 무단주직도 주인공이 아니다.

<조선불교유신론>이 발표된 지 100년, <조선불교유신론>이 반드시 정론 정로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기대어 한국불교의 주인공들에게 묻고 싶다. 혹시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었나?

만해 스님에게 <조선불교유신론>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방관이 아니라 참여의 시작이었다. 세계의 주인공으로 살려 한 치열한 몸부림의 서곡이었고, 그것은 세상의 '님'들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는 세상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세상을 가득 끌어안은 참여자였다. 종단의 운영이나 사찰의 운영이나 개인 일신의 운영이 역시 다를 게 무엇이겠는가? 님들을 방관하지 않고, 님들을 가득 포옹하는 주인공의 길에 그 해답이 있음이다.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심우장을 가다

일제 항거 영양실조로 열반한 곳

1933~1944년 거주… 직접 심은 향나무 남아
조선총독부 보기 싫다며 남향 아닌 북향으로

만해 스님이 생애 마지막을 보낸 곳 심우장(尋牛莊)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222-1번지에 위치해 있다. 심우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50여m의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 올라야 한다. 소를 찾는 심정으로 맞닿은 곳은 흰색담에 검은색 창살 대문. 대문 넘어 보이는 심우장은 빽빽이 들어선 주택들 가운데 유난히 단정하면서도 야무진 모습이다. 북향으로 세워진 심우장 내 마당에는 잔디가 깔끔하게 정돈돼 있다. 입구에는 만해 스님이 손수 심었다는 향나무가 심우장의 운치를 더하고 있다.

만해 스님은 1933년부터 1944년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당시 심우장은 서울 성곽 바로 아래 위치한 성(城)밖 마을 북장골로 소나무 숲이 우거진 한적한 동네였다. 이 터는 만해 스님을 따르던 안국동 선학원 벽산 적음 스님이 초당을 지으려고 마련해 둔 52평의 터에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 등 만해 스님의 후학들이 힘을 모아 52평의 땅을 더해 지금의 심우장이 세워졌다.

심우장은 특이하게도 북향으로 세워졌다. 이 집을 지을 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볕이 잘 드는 남향으로 주춧돌을 놓았다. 하지만 만해 스님은 "그건 안되지, 남향이면 바로 조선총독부를 바라보게 될 테니, 차라리 좀 볕이 덜 들고 좀 덥더라도 북향으로하는 게 낫겠어"라며 주춧돌을 돌려놓았다.

만해 스님에게 <화엄경>을 배웠던 경봉 스님은 자신의 일기에 "경성부 성북정 222번지에 초가집이 한 칸 있으니 한용운 화상이 수도하는 곳이다. 집 이름은 심우장이라 하고, 화상의 호를 목부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이라고도 기록했다.

서울특별시 기념물 7호로 지정된 심우장은 관광객이나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만해 스님이 열반한 1944년까지만 해도 이곳은 일제 강점에 항거하며 울분을 토하던 지사, 문인, 학자, 종교인, 청년들이 조국의 해방을 그리던 곳이었다.

심우장은 애국지사 일송 김동삼의 장례를 치르고 다비를 한 곳이다. 스님은 변절한 동지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만 애국지사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김동삼이 서대문 구치소에서 세상을 뜨자 총독부의 눈이 무서워 어느 누구도 시신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해 스님은 소식을 접하고는 한걸음에 달려가 시신을 업고 심우장으로 돌아왔다. 김동삼의 5일장을 치루고 화장해 한강에 유해를 뿌렸다. 해방 이후 혼란을 수습할 사람이라고 믿었던 김동삼의 죽음에 스님은 일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창씨개명 반대운동, 조선인 학병출정을 반대하면서 스님은 이곳에서 <유마경>을 번역하고, 신문 잡지 등에 왕성한 집필활동을 벌였다. 청년들의 각성을 강조했던 스님은 대한불교청년회의 전신인 조선불교청년회를 창립할 정도로 청년들에게 애정을 쏟았다. 스님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에게 "조금도 실망하지 말게. 우주만유에는 무상의 법칙이 있네. 절대 진리는 순환함이네.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일세.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사람의 본분을 잘 지키면 자연히 다른 세상이 올 것일세"라며 격려했다.

학병 징병을 반대하고 일체의 배급을 거부하던 만해 스님은 영양실조로 심우장에서 열반했다. 만해 스님 입적 이후에는 외동딸인 한명숙씨가 1970년대 초까지 거주하며 관리하다가 심우장에서 600여m 떨어진 곳에 일본대사관저가 자리잡자 명륜동으로 이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맡겼다. 1981년 10월부터는 만해사상연구회 김관호 회장이 관리를 맡았고, 1984년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면서 성북구청이 소유 관리중이다. 현재는 성북구청 직원이 심우장 마당 한편의 건물에서 살면서 관리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글 싣는 순서

1. 만해와 '조선불교유신론'
2. 수행
3. 포교
4. 종단 및 사찰운영
5. 계율
6. 신행
7. 교육
8. 만해와 오늘의 불교
9. 소설-만해 스님



만해 스님이 입적시까지 주석했던 심우장.서울시 기념물 제7호.

바로잡습니다 지난 호 '불교대전에 팔만대장경을 녹이다'의 사진설명 중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된 만해 유묵'을 '삼성출판박물관에 소장된 만해 유묵'(관장 김종규, 서울 구기동)으로 정정합니다.

법화경 다보불탑! 현지사 대적광전 앞에 빛으로 솟아나다!

그 날 나와 다보불은 현지사 다보탑 속에서 나란히 자리를 같이 해서 앉아 있을 것이다 - 석가모니 불세존 말씀 -



붓다의 점안으로 절대계 보정정토와 도킹된 다보탑

현지사에 솟아난 빛의 묘탑

2008년 음력 10월 15일. 현지사 대적광전 개원식 마당에 빛으로 된 묘탑이 땅을 찢고 솟구쳤다.
그날 자리를 참석한 어떤 이는 땅위에서 곧게 뻗어 하늘 끝까지 휘몰아 치는 소용돌이를 보았고 어떤 이는 땅에서 소용돌이 치며 솟구치는 금빛 휘황찬란한 거대 묘탑의 형체를 보았다.
이 탑의 정체는 다름아닌 불교 최상의 경전인 묘법연화경에서 소개되는 다보탑이었다.

점안된 다보탑이 있는 현지사

현지사에서는 빛의 묘탑이 솟아난 그 자리에 시공을 초월한 절대계에 존재하는 탑을 실제 크기보다 축소하여 재현하였다. 광명 만덕, 자재 만현 두 분 큰스님에 의해 점안을 거친 이 탑은 보정정토의 실제 다보탑과 도킹되어 있으며 다보부처님과 천만억 본화보살님이 상주하시는 곳이다.
다보부처님과 천만억 본화보살님들의 능력은 실로 무한하여 중생의 그 어떤 소원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다.

다보탑의 위신력

다보탑 조성으로 인해 현지사는 다보부처님과 천만억의 본화보살님께서 실제로 현신하여 우주적 위신력을 발휘하는 역사상 초유이자 세계 유일의 성지가 된다.
현지사의 다보탑은 국운융창과 호국 불교의 차원을 넘어 인류와 세계의 평화를 도모하는 원대한 원력을 담고 있다. 인류 문화사에 길이 남을 우주적 보탑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불자들의 무량한 복전이 될 것이다.

※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절찬리 방영중!!
주제 : 관음태교법에 대하여 (Qook 550, BTV 521, U+108번) / 8월 22일~29일, 오전10시 오후 10시 방영

효행도량 현지사에서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대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자재만현 큰스님 저 16쇄 | 371면 | 25,000원
부처님의 실존을 선언하여 세계 불교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화제의 대작!
육도윤회세계와 해탈계의 존재를 분명히 밝히면서 진리의 생사관을 제시한 21세기 인류사상의 금자탑!
부처님께서 어느 불교 경전 못지않게 평가하시는 위대한 시대적 성서!
발간 당시 6개월 연속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1위 기록
박태호 변호사(법학박사)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통한 큰스님의 사자후에 모든 의문점이 눈 녹듯 사라졌다...."
조우석 중앙일보 기자"≪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 예사롭지 않았다. 고백컨대 충격으로 다가왔다....가히 파천황이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 광명만덕 큰스님, 자재만현 큰스님 공저 385면 | 25,000원 – 영어판 · 일어판 近刊
가섭 광명불, 아난 자재통왕불 두 붓다가 출세하여 전하는 부처님의 메시지!
부처님의 희유한 실체와 사바세계에 현신하시는 모습을 최초로 공개!
불교사상 처음으로 인간 영혼체의 비밀을 밝히면서 영체윤회설을 최초로 선언하여 2000년 불교사의 무아윤회논쟁에 종지 역사의 새로운 한 페지를 기록한 미증유의 보서이다. 아울러 보살 · 붓다가 되는 칭명염불 수행법을 주창하여 '타력중심수행'이라는 불교수행의 일대 패러다임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영혼체윤회론〉 불교사상연구소(2010년 신간) 158면 | 10,000원
2000여년간 왜곡된 무아설을 혁파하고 영체윤회설을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분석한역사적 논서!
불세존 말씀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육도윤회에 돌면서 고생하는 것을 끊어주기 위해 무아(無我)를 이야기 했노라. '있다 없다'를 확실하게 알면서 '있다 없다'를 초월한 자리, 더 나아가서 대적정삼매에 들어 무아(無我)의 환희는 붓다의 경계이니라. 여기까지 공부 못하고 법을 모독 능멸하여 중생을 오도한 죄는 무간지옥에 가느니라. 붓다와 법은 영원히 멸도하지 않느니라.

매월 음 8일, 23일 대법회 http:// www.hyonjisa.com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 대전 분원 Tel 042)525-5325, 5345

일 주 문



대구 동화사 삼사 성지순례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8월 26일 공주 마곡사 · 천안 보명사 · 천안 각명사를 순례하는 백중맞이 삼사 성지순례를 진행한다. (053)982-0101



평창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모집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9월 3일까지 제26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수행자를 모집한다. (033)339-6616



서울 봉은사 경전학교 개강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9월 17일 보조국사 지눌 스님 <수심결> 등을 주제로 경전학교를 개최한다. (02)511-6070



다문화가족 자연놀이 행사

원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현각 스님은 8월 28일 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자연놀이'를 개최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노락당 과거제

낙서울노인복지센터 센터장 가섭 스님은 8월 28~29일 서울 원서공원에서 '9988 운동회 및 노락당 과거제'를 개최한다. (02)739-9501



2010 숨 붓다의 호흡 명상 수련

초기불교제따와나선원 선원장 일묵 스님은 9월 3일~12월 28일 제6기 불교수행아카데미를 개최한다. (02)595-5115



서울 천축사 통전식

서울 천축사 주지 유방 스님은 8월 19일 대웅전과 무문관 등에 전기불사를 마치고 통전식을 봉행했다.



東大 전통사찰음식 강좌

이심열 동국대 전통사찰음식연구소 소장은 8월 31~12월 21일 사찰음식 후기 강좌를 개최한다. (02)2260-8618

■ 임돈희 교수 문화유산보호전문가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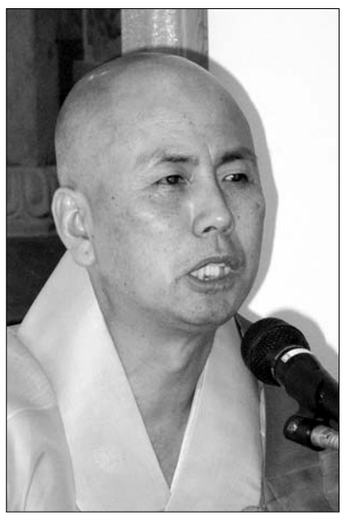
임돈희 동국대 석좌교수는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 아이티 문화유산보호 국제 전문가로 위촉됐다. 임돈희 교수는 그동안 글로벌 시대 로컬 민속과 민속학 연구,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에 매진해 왔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국제심사위원, 한국민속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재임 호성 스님

"고운사를 다시 천년고찰로"

"강원 · 율원 등 중창불사를 통한 사세 복원과 청소년문화센터 등을 통한 자비행의 실천으로 경북 지역의 중심 도량으로 거듭나겠습니다."

8월 14일 고운사 산중총회에 단독 출마해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에 재임된 호성 스님(사진)은 8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 받은데 이어,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호성 스님은 1981년 고운사에서 근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82년과 1987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교육원 실무위원과 고운사 총무국장, 고금당 선원장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14일 산중총회에서 주지 후보로 단독 출마해 재임됐다.

호성 스님은 "주지 초임 때는 아무생각이 없었지만, 재임을 맞으니 추진하던 사업을 원만히 회향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면서 "사세 복원과 본 · 말사 대중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성 스님은 재임 이후 조계종 교구본사 중 열악하기로 손꼽히는 고운사의 사세 복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내년 2월 완공 예정인 강원이 그 예이다. 고운사는 70여 평 규모로 지어지는 강원에 이어 부속 도서관, 요사채 등이 지어지고 나면 율원 불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스님은 "조선 후기 함흥 · 수월 선사가 고운사에 주석했을 때는 '고운사에서 말 · 글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운사의 사세가 굉장했다"면서 "대구 · 경북 지역에서는 최초의 총림을 이뤄 고운사가 천년고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성 스님은 강원 등 중창불사로 고운사의 외형적 사세를 키우는 한편, 창건주 의상 스님의 화엄 사상을 중심으로 고운사를 화엄도량 중 으뜸가는 역사문화 중심도량으로 변모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고운사 역사문화관이 건립되면 사격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역사문화관에서는 고운사를 창건한 의상 스님과, 중창한 최치원의 사상을 선양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겠습니다."

스님은 "설립을 준비 중인 안동청소년문화센터 등을 통해 부처님 자비와 지역민과의 소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호성 스님은 선방에서 안거를 지내며 모은 해제비 6000만원을 전액 지역 청소년 장학금으로 회향하기도 했다. 스님의 뜻을 공감한 고운사 사부대중은 의성, 안동, 봉화, 영양 등 지역 중 · 고생에게 본사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부석사 등 화엄사찰들과 연계해 화엄축제를 확대하고, 국내외 학자가 한 자리에 모여 의상 스님과 최치원 선생의 사상에 관한 담론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한편, 스님은 이날 주지 임명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아름다운동행 이사장)에게 "육군훈련소 법당 신축 불사를 위해 써달라"며 1500만원을 기탁했다. 조동섭 기자

■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 이현수 초대회장

"신도조직의 근간 일궈나갈 것"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는 그간 미흡했던 종단차원의 신도조직화 활동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단체입니다. 사찰신도회의 알찬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교류하고 상호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직할교구신도회 창립 목적 사업을 원만히 성취해 신도조직의 근간을 일궈 나가겠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 초대회장으로 선임된 이현수 회장(72, 서울 도선사 신도회장 · 사진)은 "신도조직과 포교"를 위한 도약을 선언했다.

8월 15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직할교구신도회 창립법회에는 조계종 직할교구 및 종단등록 신도연합단체 등 39개 신도회 신도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총재인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이현수 회장은 "보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행하는 보살행을 하는 자리다"며 "늘 중생의 은혜, 부처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발원하고 기도해왔다. 여러 불교단체에서 40여 년간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도조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직할교구신도회는 제33대 조계종 집행부의 4개년 핵심사업인 '신도교육 및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구신도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계종 포교원의 첫 시도다.

이번 창립에는 서울 조계사, 도선사, 한마음 선원, 금강정사, 금정사, 대구 대관음사, 법장사, 문수사, 보덕사, 봉국사, 부처님마을, 사자암, 수국사, 연화사, 옥천암, 원통사 등 39개 사찰 신도회가 참여했다.

이 회장은 신도조직의 가능성에 대해서 "과거 불자들은 불교교리 공부는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개인의 소원만 빌어 왔지만 요즘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신도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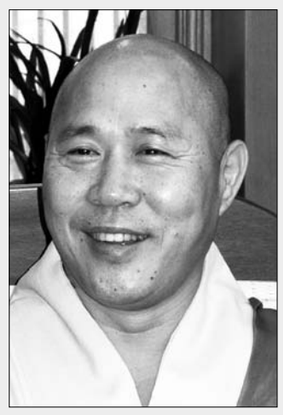
직할교구신도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상언 기자

■ 조계종 미디어특보 장적 스님

"미디어 포교 대안 제시"

"불교언론의 정체성을 찾고, 종사자들이 불법홍포에 사명과 원력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불교미디어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 종합미디어 사업 추진에 전력하겠다."

장적 스님(원통사 주지 · 사진)이 8월 16일 조계종 미디어홍보 특보로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임명장 전달하며 "장적 스님은 대구불교방송 본부장과 총무원 기획실장 등을 거치며 미디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미디어가 종단 포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미디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살펴 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장적 스님은 "미디어는 포교의 전부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미디어 종사자들의 포교 원력과 역량, 신심을 하나로 모아 불교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적 스님은 미디어홍보 특보로서 기존 불교관련 언론 미디어 매체인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들과 종단간 정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향후 언론 미디어들의 변화에 대한 종단의 대안책을 제시하게 된다.

장적 스님은 "불교 미디어들은 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에 여러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문제의 원인을 찾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미디어 활성화 지원은 11대 조계종 종단발전 4개년 계획의 핵심사업이다. 자승 스님은 올 초 4개년 핵심사업 발표에서도 "불교미디어 시장은 지금의 체제로는 여러가지 면에서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표했다.

스님은 "미래 한국불교를 어떻게 보이느냐는 미디어를 통해 불교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급변하는 미디어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적 스님은 "전문가들과 함께 불교계 미디어에 대해 냉혹히 점검해 변화의 흐름 정세를 분석해 나가면서 방향을 설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진행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장적 스님은 성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7년과 1978년 각각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4년 총무원 재정국장을 시작으로 선본사 주지, 경산 안흥사 주지를, 13~14대 중앙종회의원, 대구불교방송 총괄본부장, 총무원 재부부장, 총무원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상언 기자

함께하는 수행이 더 큰 힘 얻어

중원불교大 하계수련

중원불교대학(학장 청원, 영국사 주지)은 8월 14~15일 반야사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중원불교대학 학장 청원 스님, 운영위원장 성제 스님, 교무처장 황룡사 종림 스님과 영동군 불교신도연합회 장인학 회장 등 6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청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수행하고 정진해야한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정진하는 것이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 배의 힘을 얻는다."며 "수련회를 통해 마음속에 신심을 진작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봉 축

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임원 공고

종 정 운허 연화 대종사

승정원장 무여 정각

법률고문 최낙균 변호사(법학박사)

종회의장 무진 혜암 / 총무원장 무학 보월 / 사정원장 무일 마하

호법원장 무불 월산 / 교육원장 무허 혜월 / 문화원장 무상 도산

선 원 장 무애 구암 / 포교원장 무휴 가산 / 비구니원장 무행 동성

비구니회장 무찰 현준

☆ 본종에 입종 서류는 본산과 총무과에 있습니다. 금년내로 본종에 입종시 일체 공과금을 면제합니다.
입종문의 : 본산 양산 대인사 (055-375-2076) / 총무원 포항 구운사 (054-231-3101)

☆ 승려가 되고자 하는 남녀 지망생을 접수합니다.

불기 2554년 8월 22일

(사)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총무원장 보월 합장

“문화재는 원위치에 있어야죠”

가사이 의원 방한… “역사 과오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운명”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비롯한 문화재 환수로 한 · 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가길 바랍니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조선왕실의궤’ 등 귀중한 도서에 대해 반환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가사이 아키라 일본 중의원 의원(공산당 · 사진)이 “후속 문화재 반환을 통한 미래지향적 한 · 일 관계를 모색하자”고 말했다.

가사이 의원은 8월 18일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공동대표 김의정, 이하 환수위)가 서울 남산 힐튼호텔에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선왕실의궤 환수를 비롯한 각종 한국 문화재의 환수는 현재 일본 궁내청과 외무성, 한국 외교통상부와 문화재청이 함께 협의하는 단계”라며 한국 내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06년부터 조선왕실의궤 환수에 관심을 둔 가사이 의원은 지난 4월 궁내청에 조선왕실의궤가 총 81종 167책(권)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등 일본 내에서 한국문화재 환수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의궤 환수를 위해 한국을 4번째 찾은 가사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앞선 17일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들을 면담하고 명성황후 묘소를 참배했다.

가사이 의원은 이번 방한에 대해 “오늘 공습 경보가 울리는 훈련을 보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 양국의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한일강제병합 100년과 65주년 광복절 직후 방한한 점과 함께 조선왕실의궤 반환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과정이어서 뜻깊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간 총리의 담화문 발표 이후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논란이 한창이다.

가사이 의원은 “의궤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의궤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의궤를 직접 보여주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사이 의원은 “궁내청에서 직접 의궤를 보며 이 문화재는 한국에 있어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UNESCO에서도 문화재는 원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케타 신고 일본 궁내청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조사 중이지만 의궤 외 상당수 문화재가 조선총독부를 거쳐 한반도에서 유래한 것은 확실하다”며 “한국의 많은 귀중한 문화재가 한국에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가사이 의원은 “의궤 외에 돌아가야 할 문화재가 많은데 일부에만 관심이 지나치게 모이면 자칫 다른 문화재의 환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조선왕실의궤 81종 167책 중 1종 4책(진찬의궤)은 일본이 직접 구입한 것으로 반환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가사이 의원은 “구입한 의궤에 대한 사안은 일본의 국유재산 처분 관련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하지만 한일 간 조약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가사이 의원은 자민당 등 일본 보수 세력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1991년 영친왕비인 이방자 여사 복식을 반환한 자민당 집권 당시의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약탈문화재 환수는 환수위 등 민간단체의 노력에 비해 한국정부와 정치계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가사이 의원은 이에 대해 “2008년 방한 당시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에게 의궤반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번 담화에서 ‘의궤 등’이란 표현은 문화재 환수에 대한 한일 정부 · 민간의 여러 노력을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가사이 의원은 그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내에 실현시키고 싶은 바람”이라며 “9월말 임시국회에 본격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어머니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인 가사이 의원은 끝으로 “의궤가 일본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진 1922년 일본 공산당이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 반대를 기치로 창당했다”며 “역사의 과오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의정 환수위 공동대표, 사무처장 혜문 스님, 월정사 법상 스님 등 환수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의정 공동대표는 “정부가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환수위 등 민간단체가 일본 측에 설득 작업을 벌여 얻은 성과”라며 “한일 간에 이해와 우호를 토대로 한 관계 형성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스님 위한 상설 연수교육 개설

교학 · 사찰경영 등 30여 강좌 인기

조계종이 스님들의 불교와 사회의 각 분야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불교교학 △전법향상 △사찰경영일반 △불교문화 △자원봉사활동 등 30여 연수교육강좌를 개설하고 상설 운영을 시작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첫 상설 연수교육을 실시한 결과, 850여 스님이 각 분야별 강좌에 수강신청 하는 등 호응이 크다”고 8월 18일 밝혔다.

분야별 수강 접수는 6월부터 시작됐다. 매 강좌 개강 10일 전에 마감되는 강좌에서 ‘스피치능력향상과정’ ‘신도상담지도과정’ ‘사찰경영지도자과정’ ‘불교와 심리치료’ ‘선요특강’ 등은 일찌감치 신청이 마감되거나, 마감을 임박할 정도로 스님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교육원 연수국장 광전 스님은 “이번에 개설 운영하는 상설 연수교육은 개방된 일정과 다양한 주제로 연수교육의 틀을 새롭게 전환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연수교육 강좌 개설을 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며, <2011년 상반기 연수교육> 팜플렛은 12월경 전국 사찰에 배포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4대강 사업이 백제사 망친다

마곡사 등 왕흥사지서 천도재 봉행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와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등은 8월 20일 정부의 4대강 사업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부여 왕흥사지에서 천도재를 봉행하고, 현장 실태파악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총무화봉 스님이 대신한 격려사에서 “백제의 국찰인 왕흥사지는 백제 불교문화의 우수성과 신비스러움을 밝혀주는 열쇠”라며 “백제 왕이 배를 타고 건넜을 나루터와 왕흥사를 잇는 길을 4대강(금강)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 파낸 준설토로 인해 백제 유적이 죽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왕흥사지는 백제 목탑 중 최초로 사리기가 봉안된 사리장엄구가 출토된 유적으로 백제 유적의 보고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진행중인 4대강(금강) 사업은 왕흥사지 경계로부터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등 발굴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왕흥사지 주변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황평우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현장설명회를 통해 “왕흥사지는 유물이 많이 발견돼 역사 교과서가 바뀌어야 할 정도의 가치를 지닌 곳”이라며 “더욱이 왕흥사지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동섭 기자



황평우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이 8월 20일 왕흥사지 현장조사에서 왕흥사지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100자 뉴스

군위 인각사 일연 선사 추모다례제 봉행



군위 인각사(주지 도권)는 8월 17일 일연 스님 열반 제721주기 다례제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장욱 군위군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삼국유사로 위대한 민족정신을 일깨운 일연 스님의의 사상과 업적을 추모했다. 인각사는 일연 스님을 기리는 다례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삼국유사 문화의 밤과 학술대회 등 제10회 삼국유사 문화제를 펼칠 예정이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조계종 군종교구 9월 17일까지 군승 요원 모집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는 군포교 현장에서 불법 홍포에 앞장 설 군승 요원을 모집한다. 국가가 인정한 4년제 대학 졸업(예정) 및 사미계 이상 수지, 임관 시 만 35세를 초과하지 않는 조계종 스님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8월 30일~9월 17일로 제출서류는 지원서, 추천서 등이다. 서류심사 ·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 예비 군승요원은 동하계 정기교육 등을 이수한 뒤 군승으로 임관 · 파송된다. (02)749-8646 **노덕현 기자**

조계종 문화부 · 불출협 도서관 설치 사찰 공모

조계종 문화부(문화부장 효탄)와 불교출판협회(회장 지홍)는 사찰도서관 만들기 캠페인 일환으로 참여사찰을 9월 7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캠페인은 불서보급과 승려 장학금 지원을 위해 설립된 백천불교문화재단(이사장 조명하)이 후원하며 대상사찰로 선정되면 ‘부처님글사랑’ 현판과 불서를 기증받을 수 있다. (02)2011-1780 **이은정 기자**

파라미타 거제지회 cafe 파라미타 개점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거제지회(지회장 서명희)는 8월 20일 거제시 고현동 468 한려하이츠빌라 101호에 ‘cafe 파라미타’를 개점했다.

‘cafe 파라미타’는 10대들만의 문화쉼터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맞벌이 부부로 인한 아동보호 문제해결 및 문화공간 개발, 자율적 정서함양서비스 등을 위한 공간이다. 카페에서는 5월 열렸던 법정 스님의 <무소유> 토론회에 이어 매월 독서토론회를 진행한다. 운영시간 오후 2~7시. (055) 632-0366 **이상언 기자**

김천 다문화센터 직지사서 무료 건강검진

김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진오)는 8월 22일 김천 직지사에서 베트남 국제결혼가정 83가정 276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목동병원의 지원으로 진행된 무료건강검진은 베트남 여성의 국적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상언 기자**

구독신청 · 기사제보 | 02-2004-8200



시민종교란 무엇인가?

2010 만해축전 심포지엄서 주제 논의 해석 달라 혼동 초래

2010 만해축전 심포지엄이 8월 17일 만해 NGO센터에서 진행됐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과 시민사회 간 소통가능성과 방법론을 주제로 발표한 참가자들은 각 종단의 권위주의적인 모습, 대형화, 정교유착 등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심포지엄은 본 주제인 '한국사회에서 시민종교의 현상탐구'와 부제인 '종교와 시민사회의 소통가능성과 방법론'이라는 2개의 주제를 선정해 불분명한 포럼이 진행됐다. 발표자들도 '시민종교'에 대한 개념을 달리 하면서 주제발표의 내용에 혼동을 더했다.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의 '종교와 시민사회의 그 결합관계의 진화'는 심포지엄의 총화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애매모호한 개념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사회학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 해서 대중들의 동의를 얻기 힘든 모습도 보였다.

박문수 한국 가톨릭문화연구원 부원장은 논평에서 "시민종교라는 표현이 미국의 건국정신 또는 자본주의적 가치로 일치하고 있는 미국적 현상을 개념화 할 것으로 명확하게 재정의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혼동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민종교보다는 시민사회적인 종교라는 표현이 더 명료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소장의 정보통신문명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대안책 마련 등에 대해서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박문수 부원장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전자 민주주의, 공론장 확대, 브로드 캐스트에서 포인트 캐스트로 전달방식이 세분화 되고 넓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감시와 통제가 용이해진 측면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0 만해축전 심포지엄이 8월 17일 만해 NGO 센터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은 '시민종교'와 '시민사회와 종교' 두가지 주제로 진행돼 논의의 촛점을 잃었다.

박희택 불교아카데미 원장은 "시민종교는 시민적 성스러움을 대신할 수 있지만 한국 개신교의 반공주의도 시민종교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적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택 원장은 "올곧은 시민종교의 구현은 제도종교로서 시민종교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경로를 밟고, 시민종교로서 긍정적 의미를 갖는 경로를 밟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희택 원장과 윤남진 소장은 서로 시민종교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비판의 논점도 맞지 않았다.

이상언 기자

8재계수계대법회 포교사 대상 실시

포교사단의 연례행사인 8재계 수계실천 대법회가 8월 28~29일 월정사에서 진행된다. 팔재계수계실천대법회는 포교사단(단장 임희웅)이 주관하고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포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행사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포교사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팔관재계 수계식이 진행된다. 증명법사는 현혜 스님이, 계사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 갈마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교수는 율주인 원행 스님이 맡는다.

팔관재계의 8가지 계는 '살생을 하지 말라(不殺生). 훔치지 말라(不偸盜). 사음하지 말라(不邪淫). 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 술을 지나치게 먹지 말라(不飮酒). 화관을 쓰고 향을 지니거나 몸에 바르지 말며(不着香華 不香塗身), 노래하고 춤추는 데 가서 구경하거나 듣지 말라(不自歌舞倡伎不往觀聽). 높고 넓고 크게 꾸민 평상에 앉지 말라(不作高廣大床).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不非時食)' 이다.

이상언 기자

"음식이 사람을 만든다"

선재 스님, 전통사찰 음식만들기 특강

경상도 음식은 칼칼해서 사람들이 화끈하고, 충청도는 간이 심심해서 사람들이 느긋한 편입니다. 전라도는 지리조건이 좋아 먹거리가 많으니 예술가들이 많지요. 음식이 마음을 만들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웰빙 바람이 불면서 채식 · 자연식 등이 인기를 끈 지 오래이다.

사찰음식전문가 선재 스님은 8월 14~15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전통사찰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찰음식 만들기 실기에 앞서 스님은 '음식이 사람의 성품을 만든다'는 주제로 특강했다.

스님은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음식이 성품을 만든다'고 말했다"며 "음식의 기는 사람의 성품을 바꾸는데 동적인 식품은 밖으로 표출되는 기운이 생기게 하고, 정적인 식품은 내면을 충실케 하고 성질이 맑다"고 말했다.

동적인 식품에는 육류, 어패류, 오신채, 술, 인스턴트 · 가공식품이 속한다. 정적인 식품은 주로 채소류를 말한다.

"콩나물은 근육 등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크게 하고 해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험 볼 때 엿을 먹는 것은 뇌가 활동하는데 당분과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지요."

선재 스님은 "일반 음식은 생명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채식 · 자연식은 생명유지에 건강을 더한 것이다. 선식(禪食)은 생명유지와 건강에 지혜를 더한 음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선식은 맑은 영혼을 만들어준다"면서 "<사분율>에는 '모든 음식이 약'이라 했을만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재 스님은 "다국적 기업에 의한 유전자조작 곡물 · 채소 섭취와 항생제로 키워진 고기, 보존료와 농약으로 범벅된 바나나, 오렌지 등 우리 먹거리가 오염되고 있다"며 "오염된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아이를 비롯한 사람의 성품이 망쳐지고 몸을 병들게 한다. 결국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며 지구를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8월 14일~15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전통사찰음식만들기'에서 선재 스님이 상추대궁김치를 담그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스님은 "현대 사회의 고질병인 성인병과 우울병은 오염된 음식 섭취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선재 스님은 "지혜로운 음식 섭취란 제때 · 제철에 난 식재료를 이용해 정성을 들여 요리하고 알맞게 먹는 것"이라며 "아침은 죽과 같이 간소하면서도 맑게 섭취하고 점심은 푸짐하지만 과식하지 말 것이며, 저녁은 간단히 과즙을 섭취하는 식습관을 갖자"고 말했다.

특강에 이어서는 상추대궁김치 등 실습이 진행됐다.

조동섭 기자

양양군노인복지관 수탁운영 양양 낙산사

양양 낙산사가 운영하는 낙산사복지재단이 양양군으로부터 양양군노인복지관을 수탁운영한다.

낙산사복지재단(이사장 정념, 낙산사 법주)은 8월 24일 오후 1시 양양군노인복지관(관장 무문, 낙산사 주지) 개관식을 개최한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에 소재하는 양양군노인복지관은 2009년 6월부터 사업비 36억9200만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7970㎡에 건축 연면적 168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낙산사복지재단 이사장 정념 스님은 "성공적인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비구니 이끌 인재 되길"

전국비구니회, 장학회 설립… 첫 장학금 전달

전국비구니회가 인재 불사를 위해 비구니장학회를 설립하고 3명의 학인스님 및 연구자에게 첫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8월 19일 수서 전국비구니회관에서 비구니장학회 전달식을 개최했다.

비구니회의 첫 장학금은 범준 스님(고려대 한문학과 박사과정), 현서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 이화(미국 콜럼버스 주립 커뮤니티 컬리지 인간자원경영 전공)씨에게 전달됐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장학금을 통해 불교발전에 이바지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고양돼 불교계에 크게 기여할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구니장학회는 전국비구니회 임원스님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을 이사장으로 자민 · 명우 · 정덕 · 승혜 · 계호 · 성관 스님, 법련화 · 연화심 보살 등을 이사로 계환 · 탁연 스님을 감사로 구성됐다.

장학기금은 명성 스님이 서화전을 통해 모연한 5억원과 이사스님 등의 기부금 등 7억원이며, 매 학기 3명의 비구니 · 여성 연구자에게 500만원씩이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계환 스님은 "앞으로 장학수혜자를 늘려나갈 것"이라며 "학인스님 등이 비구니 · 비구니회의 위상과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불미전 '목어이야기' 대상 수상

9월 1~17일 불교중앙박물관 전시

불교미술의 전통과 현대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 25번째 수상자들을 발표했다. 이번 제25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은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6점, 특선 11점, 입선 22점 등 총 45점이 선정됐다. 25번째 불미전 대상은 공예부문 이지연의 '목어이야기'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목어이야기'는 3개의 목어가 전생, 현생, 내생으로 표현돼 불교의 연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나무를 등에 꽂고 있는 목어는 전생에 업보가 많았던 상황을 표현한 것이며, 가운데 맨 위에 달린 목어는 현재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어디론가 도약하려는 모습의 목어는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 2년 여에 걸쳐 완성된 '목어이야기'는 높이 18㎝, 길이 50㎝, 둘레 12㎝로, 건칠(옷칠을 건조시킨 상태)과 삼베를 주재료로 사용했다.

이지연씨는 "사찰에 있는 목어를 보고 그 표현 형태가 자유롭다 생각해 목어를 소재로 삼았으며, 보통 사람들은 흔히 '칠'이라는 것을 계란껍질 이나, 자개에만 사용되는 줄 알고 있어 삼베라는 색다른 재료를 통해 좀 더 현대적인 감각이 묻어나오면서도 불교적 사고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불미전의 개막식은 9월 1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은정 기자

www.dongsanbud.net

행복의 씨앗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의 다툼과 삶의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불교는 일상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본 대학은 불교를 더욱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조계사 앞 동산불교회관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모시고, 최초의 2년제 불교대학으로서 많은 불교지도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불교대학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오늘 동산불교대학을 만나십시오!

2010년도 하반기
동산불교대학·대학원·의식교육원 신입생모집 안내

불교와 관련한 근본사상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신행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교계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불교인재를 양성코자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불교학과

1. 교과목 및 교수

교 과 목		교 수
1년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무진장대종사(본대학학장), 최봉수교수(대원대), 김형준교수(동산대) 묘주스님(동국대), 정성준교수(동국대), 정병조교수(동국대) 차차석교수(동방대학원대학), 김상현 교수(동국대), 박종교수(동산대) 권경희교수(서울대학원대학)
2년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 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주명철교수(동방대학원대학), 정엄스님(승가대), 법상스님(승가대) 종석스님(승가대), 보각스님(승가대), 최종석교수(금강대), 김호귀교수(동국대) 윤열수교수(동국대),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2.강의일시 및 모집인원

▶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6시 (80명), 목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50명), 통신반 (50명)
불교학과 2010년 8월 접수중

3.제출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관련학과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한문학과 (2년과정/정규반, 통신반 30명)	초발심자경문, 한문해석 금강경(1),(2), 유마경(1), 중국고전(장자) 등	심만춘교수	9월 9일(매주-목) 오후7시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T-테이블셋팅,(한국, 중국, 일본, 유럽 차문화사) 재다학(1),(2) 한국의 현다례	오양가교수	9월 7일(매주-화) 오후2시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불화기본, 사불, 단청,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등	법인스님	9월 9일(매주-목) 오전10시30분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정규반 20명)	사찰음식(봄, 여름, 가을, 겨울)	정산스님	9월 8일(매주-수) 오후2시

불교대학원(법사과정)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학과 (3년과정, 정규, 통신 각 30명) 불교학과 목요반 (3년과정, 정규, 통신 각 20명)	불교포교론	활안스님	9월 6일(매주-월) 오후7시
	아함의 수행론	김형준교수	9월 7일(매주-화) 오후7시
	초기불교수증론(2)	최봉수교수	10월 7일(매주-목) 오후4시
다도학과 (2년과정)	다경, 대관다론, 다부, 동다송, 다신전	김진숙교수	9월 14일(매주-화) 오후 4시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한글의식반 (1년과정 20명)	각종의식 이론, 실기	만춘스님, 문종순법사	9월 4일(매주-토) 오후2시
범패의식반 (2년과정 20명)	범패 실기	인각스님	9월 8일(매주-수) 오후3시

본회사무처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 732-1206 FAX : 732-1207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연락주시면 학생모집 팜플렛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학 장 무 진 장 / 이사장 안 동 일

"광덕 스님, 중생 불성자로 봐"

불광연구원 학술연찬회서 석길암 교수 발표


석길암 금강대 교수.


목경찬 불광교육원 교수.

광덕 스님은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즉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를 중생의 시각이 아닌 깨달은 자인 부처님의 시각에서 바라봤다. 때문에 스님은 생시에 '불성'이 아닌 '불성인간' '불성자' '무량 공덕 생명'으로 표현했다.

석길암 금강대 HK교수는 8월 14일 '불광연구원 제2차 광덕사상 학술연찬회'에서 '광덕 스님의 불성사상과 인간관'을 주제로 광덕 스님의 불성사상 및 인간관을 인도불교와 중국불교 등 동아시아불교에서의 '불성'과 비교해 발표했다.

석길암 교수는 <광덕 스님의 전집> 중 3권 '보현행원품 강의'의 '예경분'과 그 해설문인 '대방등여래장경'의 구절을 들며 광덕 스님의 불성사상을 분석했다.

광덕 스님은 '예경분'에서 "내가 불안(佛眼)으로 일체중생을 보건데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 여러 번뇌 가운데 여래지(如來智), 여래안(如來眼), 여래신(如來身)이 있어서 엄연부동하니라. 선남자여, 일체중생은 그 몸에 여러 번뇌가 있어도 여래장(如來藏)이 있어 항상 때 묻거나 물듦이 없고 덕상(德相)이 원만하게 갖추어 있어 다를 바가 없느니라"고 말했다.

석길암 교수는 인도 대승불교의 여래장(如來藏)사상을 설명하는 <보성론>의 예를 들면서 " '실유불성'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중생 안에 내재하는 어떠한 가능성' 혹은 '여래가 번뇌 속에 내재돼 있다'와 같은 표현방식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또 " '일체의 중생이 불성이라는 원인을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결국에는 성불할 것이다'와 같은 형태의 해석은 '여래장연기'나 '진여연기(眞如緣起)' 같은 원인론적 해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성 그 자체로서의 부처(佛性佛)'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중국 삼계교의 보불신앙을 언급하며 "삼계교의 시각이 화엄과 선종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이러한 맥락에서 광덕 스님이 설명하는 불성은 '가능성'이나 '잠재태'가 아니라 '살아서 활발발 맥동하는 것'이고 '한량없는 공덕상 그 자체'라고 해석했다.

광덕 스님은 스스로 자기를 중생이라 착각하는 이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믿음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석 교수는 "선사였던 스님은 참선법의 핵심골격으로 큰 믿음(大信), 큰 분심(代憤志), 큰 의심(大疑情)의 셋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석 교수는 "광덕 스님에게 있어 불성 혹은 반야바라밀은 도달해야 할 목표지점이 아니다. 그것은 목표지점으로서보다는 출발점으로서 설해진다. 그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출발점에서 동일생명(同一生命)임이 확신되기 때문에 중생은 불성이 아니라 '불성인간'이 되고 예경의 대상이 되고 공양의 대상이 되고 공양의 대상이 찬탄의 대상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말했다.

목경찬 불광교육원 교수는 '무한생명 사상'을 주제로 광덕 스님이 자주 사용했던 '무한생명'이라는 표현을 고찰했다.

목경찬 교수는 "광덕 스님과 관련해서는 유독 '생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 생명이란 다름 아닌 '불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광덕 스님은 '불교에서 본 인간생명과 그 가치'라는 글에서 '무한공덕 생명'을 법성생명(法性生命) 또는 불성생명(佛性生命)이라고 표현했다.

목 교수는 "광덕 스님은 참으로 있는 것을 본 생명이라고 본다. 그러한 본 생명은 특정인이나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내 생명껏 사는 것, 이것이 불자의 삶이라고 누차 강조한다"며 "즉, 우리는 늘 부처님과 함께 있으며, 지공덕 생명력을 받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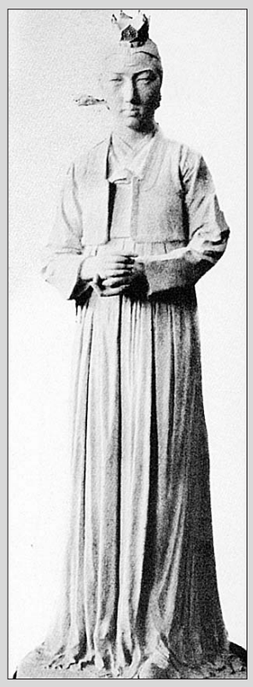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불상에 근대 옷 입힌 불모

미술평론가 윤범모 교수 '김복진 연구' 서 조명


김복진(1901~1940)


김복진, '금산사 미륵전본존상' 소조 입상, 1936, 금산사 미륵전 봉안.


김복진, '백화', 1938, 조선미전 출품작.

정관 김복진(1901~1940)은 일제 식민통치 시기에 한국 근대미술의 토대를 이룩한 선구적인 미술작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는 일반 조소작가와 달리 전통적 불상예술에도 일가를 이루어 근대기 불상조각의 모범을 선보인 '불모(佛母)'였다.

그의 대표적인 불상 작품으로는 <금산사 미륵전 본존상> <속리산 법주사 미륵대불(미완성)> <정혜사 관음보살 좌상> 등이 있으나 그의 작품이라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야 알려졌다.

불교미술비평과 미술평론가인 윤범모 교수(경원대)는 30여 년간 김복진의 작품발굴과 연구에 천착했고 그의 작품과 삶 및 사상을 조명한 학술서 <김복진 연구>(동국대출판부 刊)를 펴냈다.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김복진은 1925~1940년 요절할 때까지 5년 반가량의 옥중생활을 제외하고 10년 정도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 근대기 최초의 조소작가로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윤범모 교수는 "김복진은 미술평론가, 문예운동가, 사회주의 조직운동가 등으로 다채로운 활동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미흡하다"며 "그의 유작이 전무한 이유와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직계가족의 단절과 사회주의 활동 경력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소작가로서 김복진은 나부상(裸婦像)과 같은 일반 작품에서부터 기념 조형물이나 불상과 같은 작품 50여 점을 제작했다. 그의 일반 작품가운데 <백화>와 같은 작품은 전통적 소재를 새롭게 조형화한 것이고, <소년>은 식민지하의 시대정신을 염두에 둔 대표작에 해당한다.

특히 불상조각의 모범을 선보이는 그가 조성한 불상은 주로 미륵상으로 신라 불상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해 근대성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재료의 사용에 있어 금산사의 소조에서부터 미완의 <법주사 미륵대불>의 시멘트에 이르기까지 재료의 다양화를 시도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금산사 미륵불의 마케트(모형)에 해당하는 계룡산 소림원 소장의 <미륵불 입상>을 발굴 · 확인해 소개하고 있다.

김복진은 조소작가로서 일가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1920년대 진보적 문예운동사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수행한 예술가였다. 그는 동생인 김기진, 그리고 박영희 등과 함께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KAPF)을 주도적으로 결성했고,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다.

또한 그는 고려공산청년회 조직 책임을 맡아 일제하 광주학생운동사건과 같은 민족독립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이후 김복진은 1927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돼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배제하고 조선의 독립을 도모"한 이유로 5년 6개월간 투옥생활을 했다.

윤범모 교수는 "김복진은 여태껏 감옥생활 중에 불교에 귀의, 불상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복진은 이미 도쿄 유학 시절 도쿄의 한 사찰에서 득도한 불자였다"며 "그는 승려 생활까지 체험했을 정도로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었으며 이 같은 불교 체험의 결과가 본격적인 불상작품을 제작하게 된 배경일 것"이라 추측했다.

윤 교수는 또 "김복진은 진보적 사상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전통, 그 중에서도 불교사상에 심취했다. 그는 전통과 진보 혹은 민족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 등의 갈래에서 민족미의 근대적 구현에 하나의 전형을 남긴 선구적 작가였다"고 평가했다.

이나은 기자

물고기 든 관음보살벽화 발견

불국사 대웅전 후불벽서 2점 드러나


불국사 대웅전 후불벽 어람관음도 벽화. 윤곽이 뚜렷치 않아 추정도를 겹친 모습.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하)을 통해 추진 중인 '사찰건축물 벽화 조사사업' 중 경주 불국사 대웅전 후불벽에서 어람보살 등 2구의 관음보살 벽화를 발견했다"고 8월 19일 발표했다.

이들 벽화는 후대에 덧칠해진 호분(胡粉)에 가려져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올해 초 성보문화재연구원의 예비조사 과정에서 존재가 확인됐다.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적외선 촬영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도상(圖像)을 판독하게 됐다.

현재까지는 각각 세로 4.3m, 가로 1.8m 내외 크기의 백의관음보살도(白衣觀音菩薩圖)와 어람관음보살도(魚籃觀音菩薩圖)가 확인됐다. 어람관음은 33관음중 하나로 나찰, 독룡, 아귀의 해를 제거해 준다. 물고기를 타고 있거나 물고기가 가득찬 어람(소쿠리)을 들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들 벽화는 18세기의 도상적 특징을 갖춘 18세기 불화로 편년된다"면서 "이중 어람관음보살도는 현존하는 벽화 중 17세기 조성된 양산 신흥사 것을 제외하면, 18세기 벽화로는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들 벽화에 대한 정밀조사는 최근 완료됐고, 조사결과는 올해 말 발간할 <한국의 사찰벽화(경북 남부편)>에 수록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개신교 학자가 본 부처님 생애

김행선 '…석가모니 생애와 사상'

한 개신교학자가 부처님의 설법이 담긴 <법구경> <아함경> <숫타니파타> <빠알리경전> 등 초기경전을 토대로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을 정리한 학술서가 나왔다.

김행선 고려대학교 사학과 강사는 그동안 대학에서 가르친 강의안을 바탕으로 <초기 경전에 나타나는 석가모니의 생애와 사상>(선인 刊)을 펴냈다.

김행선 강사는 "기존의 기독교는 한국전쟁 이후 1960~1970년대 근대화 과정 및 경제발전 과정과 관련해 강화된 기복신앙과 물질지상주의 및 성장제일주의 신앙에 경도돼 배타적이고 획일적이며 경직된 교리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신앙은 예수의 참 진리와도 맞지 않는 것이고, 다른 종교와의 갈등과 대립만 부추길 수 있다"며 "이러한 경향성을 극복하고 보다 열려진 개방된 신앙의 자세로 타종교와의 진리의 연대성과 공존을 위해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을 보다 객관적이고 인간적 관점 및 역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행선 강사는 저서에서 △석가모니 사상의 탄생배경 △석가모니의 생애와 불교의 역사 △석가모니의 혁신 사상 △석가모니의 세계관과 인생관 △석가모니의 중심사상 등을 살폈다.

이나은 기자

2010년 후반기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주2일 교육,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0년 7월 30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0년 9월 9일 목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대각스님, 서무선박사님, 김진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0년 7월 30일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0년 9월 7일 화요일

제천불교여자전문대학
◇불교교리 : 경, 율, 론, 선, 밀교
◇불교의식 : 조석예불, 불공, 시식, 장엄염불 등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목요일 오후 3시까지
◇교육장소 : 제천 금강사(충북 제천시 모산동)
◇개 강 : 9월 8일 (수) 오후 2시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도기스님, 대각스님, 서무선박사님, 김진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활안 한정섭스님의 경전 강의 -
월 요 경 전 반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기초반 1시 30분 연구반 3시 30분
◇개 강 : 2010년 9월 6일 월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043)646-3800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 의지대로 행하지 못하는 면이 많은 불자입니다. 10여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 왔는데, 요즘 최대의 고비를 맞은 듯합니다.

업무나 대인관계 등 모나지 않게 생활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상사와 관계가 좋지 못해 얼굴 보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참고 인내하는 일도 한계에 다다른 듯합니다.

A 요즘 직장 상사와의 관계로 불편하시다구요. 10여 년 다닌 직장생활 중 최대 고비라고 하셨네요. 다른 곳 이라면 안 보면 되지만 직장에서는 매일 얼굴을 봐야할 텐데 그리고 상사라서 업무적으로도 부딪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직장생활 최대 고비 상사 갈등에 인내도 한계예요
상대 마음 상하지 않게 배려하며 의사 표현하세요

그런데 어떤 면이 상사와 맞지 않는지요. 불편한 마음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정신 건강에 아주 안 좋을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좋은 관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직장 상사라면 개인적인 관계는 몰라도 최소한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사표현을 한 적이 있는지요. 관계가 안 좋은 상사에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건 어떨지요. 효과적인 자기표현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배려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불자이고, 나름대로 모나지 않게 생활하신 분이라니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가 쉽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해보면 상대도 인정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말 일수도 있지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겪기도 함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Q 아라야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라야(ālaya)식은 한자로는 아뢰야식 (阿賴耶識)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심식설(心識說)에서 제8식을 말하며 '장식(藏識)' '종자식(種子識)'이라고 합니다. 본래 아라야라는 말은 '물건을 넣는 창고' 내지 '곳간'을 의미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숨는 것인 능장(能藏), 받아들이는 것인 소장(所藏), 집착하는 것인 집장(執藏)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선악의 행위에 의한 업력을 받아들여 보존하는 것이지요. 아라야식은 모든 업의 종자를 보존하면서 선악 업력을 다른 식에 공급해 발동케 하며 모든 선악의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윤회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유식(唯識)이라 합니다. 이 개념이 아라야식의 여러 명칭 가운데 장식(藏識) 또는 함장식(含藏識)에 해당 합니다. 보고 듣고 느낀 경험에 의해 얻어지는 정보들을 보관하고 기억하는 인식주체인 것이지요.

제8아라야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6식과 7식을 알아야 하고 6식 7식 8식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6식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즉 눈 · 귀 · 코 · 혀 · 신체 · 생각의 여섯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느낌으로서 바깥 사물이나 대상물에 대한 인식수단을 말합니다. 오감(五感)을 총괄하는 것이 제6의식(意識)이라 보고, 앞의 오식을 전오식(前五識)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제7식 말라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제6식까지의 감각기관은 좋다, 나쁘다, 선, 악의 판단 기능이 없고 순수한 느낌만을 받아들이는데 제7식으로 넘어 가면서 시비분별과 선 악 판단이 발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를 빌리면 무의식에 가깝다고 하겠는데 과거의 경험에 의해 좋아하고 꺼려하는 마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일하고자 하는 열정 하나면 오케이

자비법당 탐방
안영시니어클럽


바리스타 전문교육을 이수한 어르신이 아이스커피를 만들고 있다.


'노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수요를 해야 사업장이 확장되고 더 많은 어르신이 일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잔치하는 날'의 어르신들.

국수전문점 · 커피전문점 · 택배 · 파워맨 파견 · 희망작업장 운영
나이 많다는 이유로 직업 소외 안 돼… 노후 심신 건강에도 도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유년인구 100명 당 노인 인구가 처음으로 60명을 넘어섰다.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총 인구 4874만 7000명 중 65세 이상(519만 3000명) 비율은 10.7%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인인구 비율이 7%이상 14% 미만일 경우 '고령화사회'로 분류되는데 최근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매년 수십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게 됨에 따라 노년층의 일자리 확대는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과 노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사회적 시스템은 부족함이 많다. 노령화는 급속화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노령화의 속도를 따라잡기는커녕 노인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노인복지센터(관장 박양숙) 산하 안양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안양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이 노동 시장에서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거나 업체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노인일자리창출 전담기관이다.

2008년 4월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안양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양시니어클럽은 현재 국수전문점(1 · 2호점), 커피전문점(1 · 2호점) 등 4개의 사업장과 5가지 사업 분야에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잔치하는 날'은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운영하는 국수전문점이다. 15명의 어르신들은 26.44㎡ 매장에서 3인 1조로 일주일에 두 세번 나와 4~6시간씩 교대로 일하며, 직접 국수를 뽑고 신선한 국산 재료와 천연조미료만을 사용해 국수를 만든다. 할머니의 손맛이 입소문을 탔는지 '잔치하는 날' 1 · 2호점의 월 매출액은 800만원에 달한다.

'커플데이'는 와플과 커피를 파는 커피전문점으로 바리스타 전문교육을 이수한 어르신 18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은 시급 4410원으로 계산해 평균 20~30만원씩의 월급을 받고 있다. 급여가 적을 수도 있지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수집이 개업한 때부터 일하고 있다는 민경순(70) 어르신은 "밖에 나와 일도 하고 용돈도 버니까 좋다.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도 좋고 동년배 친구들도 사귀니 즐겁고 행복하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문 바리스타답게 커피를 만들던 이미재(65) 어르신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와서 일을 하게 돼 기분이 좋다. 일도 재미있고 삶의 활력이 된다. 일주일에 2번 나와 일하고, 내 시간 가지면서 급여를 받으니 좋다"고 말했다.

이렇듯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문제와 정신 · 신체적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밖에 안양시니어클럽은 △한마을택배-대중교통 및 아파트 거점을 이용해 각종 소화물을 배송 △파워맨파견-카드 배송원, 도서관 사서 도우미, 학교 야간 경비원 등 노동시장에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틈새 직종을 개발해 파견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희망작업장-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을 작업장으로 활용해 소일거리 제공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손호영 사회복지사는 "어르신들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이 충분한데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어르신들은 실제 일을 하기 전 사전교육을 받는데 매우 적극적인 열의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확대되려면 많은 수요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에 앞서 노인이 만든 것, 노인이 생산한 것을 불신하는 소비자들의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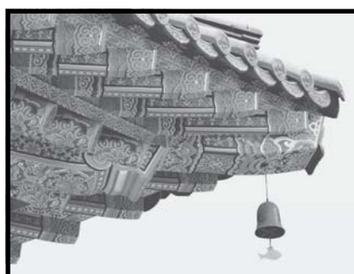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안양시가 설립하고 불교안양원이 수탁해 운영해 온 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지역 내 무의탁 노인, 영세노인, 재가 노인들의 심신건강 유지와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센터는 개관 당시부터 독거어르신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시작, 요보호 어르신을 발굴해 일상생활부터 보건의료, 경제, 정서적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주력해왔다.

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연간 1만 명에 달하는 이용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신관을 증축했다.

센터는 신관 개관을 앞두고 9월 9일 개관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031) 455-0551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봉 축

국태민안 및 국운융창 기원 **영산대재**
소년소녀 가장돕기 **산사음악회**

대한불교선각종 모후산 **도원사 4주년 기념법회**

■ 주 관 :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광주 • 전남 불교사암연합회
■ 주 최 : 모후산 도원사 봉행위원회 • 신도회
■ 후 원 : 화순군사암연합회,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선각종전국교구본사, 선각종중앙포교원(완도수양사), 불교TV, 현대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화순군계사회, 한국디자인(기획사), BBS광주불교방송, 광주일보, 호남일보
■ 초청가수 : 일운스님(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50호 영산 보존회장), 법능스님, 김상배, 현진우, 우연히, 정현, 7080뮤지컬(경규와 뮤직), 통기타(주권기), 신명화, 혜랑
■ 일 시 : 2010년 9월 11일(토) 오전 9시 영산대재 / 오후 4시 산사음악회 및 신도노래자랑
■ 장 소 : 전남 화순 모후산 도원사
■ 문의전화 : 061)372-1047. 061)433-2233 총무원 / 신도회장 011-636-4110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부산교육원 051-441-0111 울산교육원 052-260-1037
호남교육원 063-254-5529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제주교육원 064-755-7588
대구교육원 053-566-1116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충청북부교육원 043-263-9966
광주교육원 062-672-543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참가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겁게 옛길을 걷고 있다.


참가학생들이 상원사로 향하는 옛길을 이어주는 섶다리를 건너고 있다. 2007년 옛길을 복원하며 작은 나무들을 엮어 만든 다리다.

"텅 빈 오대산 사고 보니 안타까워"

불교계와 교육계의 고민이 해결되는 자리

강원교육청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으로 지정

"혹시 '혼났다'를 아는 사람? 어떤 경우 '혼났다'는 용어를 쓰나?"

"무엇을 잘못했을 때요."

"혼났다는 혼을 정상적으로 쓰지 않았을 때 혼이 제자리에 잡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의 혼일까? 우리의 혼은 바로 우리의 삶,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만들어서 계승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

"사고요."

"사고가 뭐지?"

"도서관이요~, 책방이요~."

"사고는 우리 선조들의 삶이 기록된 역사책을 보관하는 곳이야~. 여기는 조선 왕실 족보와 기록 등을 보관하던 곳이야."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일제 하에 일본 놈들이 그것을 가져갔기 때문이야. 여기 오니 휑하고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지? 너희들이 커서 아들 · 딸 등 후세들과 함께 여기에 왔을 때 이곳이 우리 혼을 보관하는 곳이 다시 되도록 노력하자."

오대산 사고(史庫) 관리인을 맡고 있는 설봉 장영철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아이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바로 월정사 여름 산사학교에 참가한 삼척중학교 아이들이다.

8월 16~18일 월정사를 비롯한 상원사, 영감사 등 오대산 일대에서 열린 이번 산사학교는 여름을 맞아 여러 사찰 등에서 열고 있는 산사학교과는 달랐다.

바로 교육청과 불교계 간 여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의 첫 사례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청소년수련 시범학교로 지정해 마련했기 때문이다. '명상 · 문화 · 환경이 함께하는 산사학교'로 붙여진 이번 산사학교에는 삼척중학교 학생과 선생님 40여 명이 참석했다.

산사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은 문화재 이해, 오대산 사고 탐방, 오대산 옛길 탐방 등 우리의 문화와 환경을 체험하고 발우공양, 108배, 부모은중경 사경 등 불교예절과 효사상 등을 배웠다.

특히 2011년부터 국사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학생들은 한일강제병합 100년과 광복 65주년을 맞아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을 보관했던 오대산 사고를 둘러보고 역사의 소중함을 느꼈다. 오대산 사고는 월정사가 맡아 관군와 승군이 함께 번을 서는 등 호국불교의 얼이 서려있는 곳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일까. 참가 학생들은 불교문화와 역사 해설에 큰 호응을 보였다.

김형태 학생은 "부모님을 따라 절에 자주 갔지만 산사체험은 처음이다. 사고가 텅 비어 있어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연충만 학생은 "선조들이 산 속에 사고를 만든 것이 외적들이 많이 침입해서 그런 것 같다. 잃어버린 우리의 것을 어서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동식 삼척중학교 교장은 "학교에 '창의적 재량학습'이 일주일에 1시간씩 진행되는데 명상 등이 진행돼 아이들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금년 산사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문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장은 "선생님들도 연찬회 형식으로 이번 산사체험에 동참했는데 사제 간의 신뢰 형성 등 유대관계가 더욱 깊어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다. 참다운 사람을 만드는 교육과 종교가 추구하는 맥락은 같다"며 불교의 가르침과 교육이 어우러지는 장이 더욱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월정사 측은 문수청소년회가 중심이 되어 성보박물관, 국립공원 해설에 나섰다. 문수청소년회는 현재 강원도 32개 학교 257개 학급의 창의적 재량학습에 인성교육 등 다양한 학습을 지도하고 강사 양성 등에도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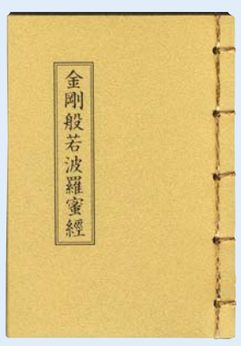
사찰예절교육과 명상 등을 지도한 포교국장 청운 스님은 "각각의 꽃이 멀리서 하나의 장엄을 이루는 화엄세계처럼 이번 산사학교는 불교계와 교육계의 고민이 하나로 모여 해결돼 가는 과정"이라며 "첫 출발로 부족한 점이 많겠으나 서로 보완해 간다면 교육적으로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일정은 다소 빠듯했다. 학생들은 첫째날 입재 이후 이어진 교육과 새벽 3시에 기상해 적멸보궁을 참배하고 옛길 등을 탐방했다. 또 저녁에는 저녁예불과 도전 골든벨과 사경 등이 진행돼 지칠 만도 했지만 아이들은 한데 어우러져 이를 즐겼다.

한혜원 문수청소년회 사무처장은 "많은 일정을 즐겁게 소화하는 학생들에게서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했다. 불교는 한국역사 · 문화와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심리 상담, 심성 계발 등 종교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궁무진한 만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불교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애환을 어루만져야 발전한다"

익산 숭림사 지광 스님, 이리불교대 설립 · 청소년포교

익산 숭림사는 올해 초 불교문화사업단에서 지정하는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됐다. 이후 익산 숭림사 지광 스님은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광 스님이 부임하던 1987년 무렵 숭림사는 거의 폐찰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우화루는 지붕에 풀이 무성하고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각 전각마다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지광 스님은 10년 단위의 중창불사 원력을 세우고 일주문과 안심당, 종각, 산신각, 해우소를 신축하고 사찰 주변에 예쁜 와담을 쌓아 도량을 정비했다.

올해는 템플스테이 수련관인 적묵당을 완공해 비로소 정돈된 사찰의 면모를 갖추고 20년에 걸친 중창불사를 마무리했다.

조계종 제9 · 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며 종단의 발전에 기여해 온 지광 스님은 1990년경 지역스님, 불자들과 함께 익산지역 불자들의 교육과 포교를 위해 이리불교대학의 설립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 1992~2008년 익산 사암연합회회장을 맡아 익산 지역에서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를 원만하게 이끌어 왔다. 여산 육군 부사관학교 법당신축과정에서도 지역스님들과 불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스님은 청년불자 양성에도 앞장서 왔다. 스님은 청년들을 키워야 한다는 원력으로 10년 동안 원광대학교 대불련 지도법사를 맡아 청년들을 지역의 튼실한 불자로 키워내기도 했다. 지도 법사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불자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숙식을 제공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중 사법고시에 합격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는 학생이 2명이나 된다.

또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늘어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고 하니 스님을 포교제일 부루나 존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화합과 종교간의 갈등 대립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익산 숭림사 지광 스님은 숭림사를 익산지역의 대표적인 포교도량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는 스님은 올 여름에는 인근 함열성당의 초 · 중등 청소년 학생 50여 명이 숭림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종교간의 화합과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스님은 군산 익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된 만큼 숭림사를 군산과 익산지역을 아우르는 전통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수행과 교화, 교육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 평소 지역 사찰은 지역민들의 애환을 어루만지며 주변 마을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스님은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템플스테이를 계획하고 있다.

올 한 해를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수정 보완하는 기간으로 삼아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조성된 함라산 둘레길과 함께 국화축제, 서동축제, 웅포 곰개나루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해넘이 해맞이 축제 등을 연계한 템플스테이를 계획하고 있다. 스님은 숭림사를 수행과 교화, 교육과 산사체험이 함께하는 익산지역의 대표적인 포교도량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기록적인 폭우 '아찔했던 순간'

남원 승련사, 집중호우로 큰 피해… 인명피해는 없어

비구니 선방인 남원 승련사가 8월 13일 남원시 산동면 등 4개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커다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남원지역에는 13일 저녁 6시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시간당 최고 78mm가 쏟아졌다. 4시간 동안 178mm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승련사 뒷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흙더미가 요사채를 덮쳐 스님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스님들은 저녁 공양 후 선방에서 정진 중이어서 요사채가 빈 까닭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요사채 외에 대웅전을 비롯한 선원, 삼성각 등의 전각은 무사했지만 이번 산사태로 조립식 건물로 건축된 임시 창고 2동이 완전 붕괴되고 승용차 3대가 물살에 떠내려갔다. 또 요사채의 후원물품, 책, 이불 등 스님들의 개인 용품이 모두 매몰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승련사 주지 경원 스님은 "저녁 공양 후 선원에서 정진 중이었다. 8시경 갑자기 큰 진동과 함께 몸이 붕 뜨는 듯 하더니 갑자기 물살과 함께 토사가 밀려들어 요사채를 덮쳤다"며 "대중스님들은 남원시내의 선원사로 긴급 대피해 모두 안전하다"고 말했다.



8월 13일 남원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남원 승련사 뒷산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발생했다. 흙더미가 승련사 요사채를 덮쳐 관계자들이 긴급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 다음날인 14일부터 선원사 운천 스님 등 스님들과 승련사 신도, 남원불교신행단체 연합회 불자, 긴급 동원령이 내려진 남원시청 직원, 인근 군부대 장병 250여 명이 굴삭기 5대, 트럭 3대 등 중장비를 동원해 긴급 복구작업에 나서 뿌리째 뽑힌 나무들과 함께 약 1.8m정도 쌓인 토사를 제거하는 한편 2차 피해에 대한 긴급 대비에 나섰다.

승련사 뒷편 만행산은 최근 수 년 동안 큰 산불과 석산개발로 몸살을 앓아왔으며, 최근 조성된 대형 묘지 공사로 인한 인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승련사는 전북지역에서 완주 위봉사와 함께 2곳 뿐인 비구니 스님 선방으로 이번 피해에 대한 빠른 대책이 요구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철도기관사들의 아름다운 이웃돕기

광주철도공사 연등회, 장애어린이들과 야유회

불자철도기관사들이 바쁜 업무와 무더위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불자 철도기관사들의 모임인 광주철도공사 광주본부 연등회(회장 임천택)는 8월 10일 광주 치평동 현비동산 장애어린이들과 선생님 36명과 함께 화순 백아산 물썰매장으로 물놀이를 떠났다.

바깥나들이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아들은 이날 연등회원들과 함께 물썰매타기, 풀장에서 물놀이, 썰매타기 등 다양한 물놀이를 만끽했다. 물놀이 중간중간에는 통닭, 김밥, 라면 등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날 봉사활동을 펼친 기관사 회원 15명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열차 운행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해 야외 나들이에 동참했다.



광주철도공사 광주본부 불자 철도기관사들의 모임인 연등회는 8월 10일 장애인어린이들과 함께 야외 나들이를 다녀왔다.

임천택 회장은 "불교신행단체가 자원봉사에 모범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소외되거나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이웃에게는 더욱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연등회는 평소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있다. 대해노인복지센터(센터장 무진) 향림사에서 운영하는 우산복지관에서 노인나들이 행사, 목욕봉사, 노인위안잔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비동산에는 정기적인 재정후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다양해지는 청소년 프로그램

순천 파라미타, 순천시 문화존 개최

최근 청소년을 위한 불교계의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고 있어, 청소년 포교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름철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 파라미타(회장 김재기)는 순천시와 함께 8월 14일 호수공원에서 '2010 순천시 문화존(ZONE) <문화야, 문화야 놀자!>'를 개최했다.

이날 청소년 문화존 행사에는 화엄석경 탁본체험, 전통부채 만들기, 탈 만들기 등 부수체험과 함께 댄스공연, 치어리더, 랩 공연,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문화체험을 선사했다.

특히 1부 공연행사에는 순천 동산여중 댄스팀과 치어리더, 순천 연합동아리의 랩 공연이 이어져 행사장을 열광의 광장으로 만들었다.

김재기 회장은 "청소년 문화존은 문화를 보고, 느끼고, 배우는 청소년문화 네트워크로 순천지역의 전통 불교문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창의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문화존 활동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파라미타가 주관한 이번 '청소년문화존'은 순천시가 청소년들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문화존을 설치하고 청소년 문화, 예술, 놀이체험의 장을 상설로 운영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전에서 찾는 삶의 방향

'어린이 인문학 서당' 무각사서 열려



광주지역 어린이 · 청소년들이 8월 9일~14일 광주 무각사 문화관에서 '인문학 서당' 강의를 듣고있다.

무각사 LOTUS문화관(주지 청학)은 8월 9일~14일까지 무각사 문화관에서 어린이 · 청소년들을 위한 '수유+너머와 함께하는 인문학서당'을 개최했다. 인문학 서당에는 대학교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지식공동체 '수유+너머' 연구원의 지도로 1교시 몸으로 하는 공부 '요가' 2교시 고전강독 '공자와 배움' 3교시 독서토론이 진행됐다.

고전강독에는 '공자는 누구인가' '공자와 공부' '공자는 어떤 책을 읽었을까' '공자의 성격은 어땠을까' 등 다양 주제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3교시 독서토론에는 옛날시,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 개업 선물로도 품격!
■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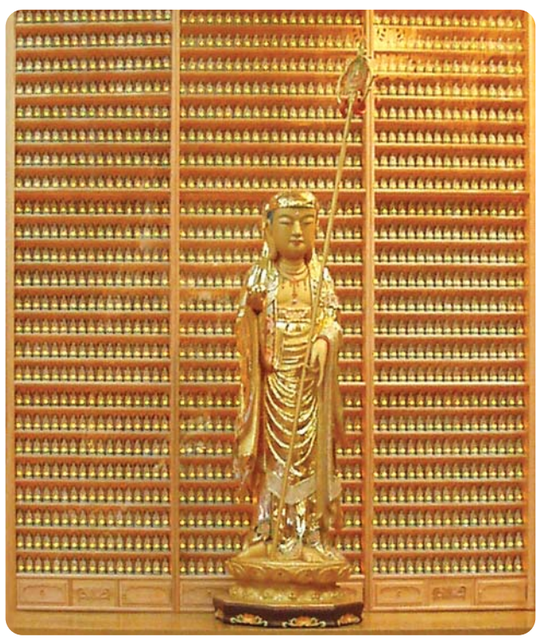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 공급 가격 별도 상담요)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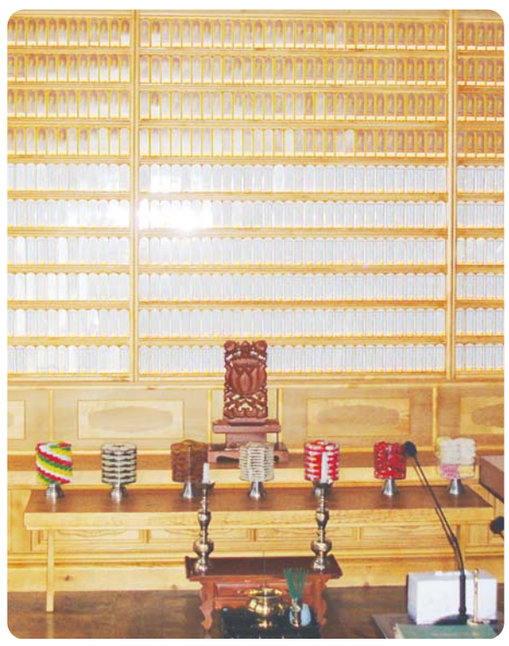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大)

(小)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가등



왕생극락접등

불교(佛敎)에서의 백중일 유래(由來)는 효성이 지극한 목련비구(目蓮比丘)가 지옥에 떨어진 모친(母親)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오미(五味)를 가진 음식과 온갖 과실(果實)을 갖추어 부처님께 공양(供養)을 했다는 〈우란분경(盂蘭盆經)〉이라는 불경(佛經)의 이야기에서 연유(緣由)합니다.

※ 백중을 맞이하여 영가등 · 왕생극락접등 주문 받습니다.



오색공단등

팔각 봉축접등





종 등





칼라(보카시)연등

주름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불교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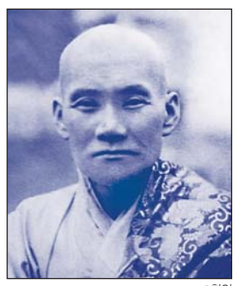
용성



학명



만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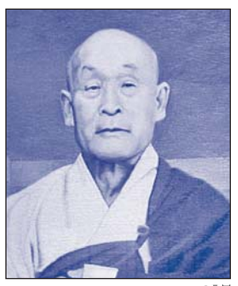
한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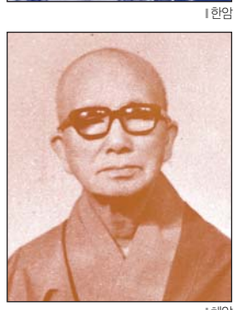
만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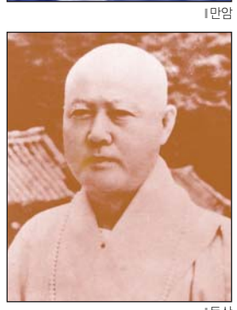
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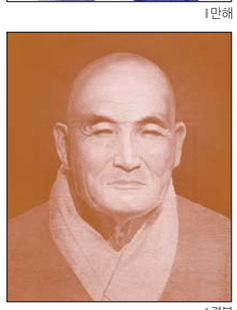
효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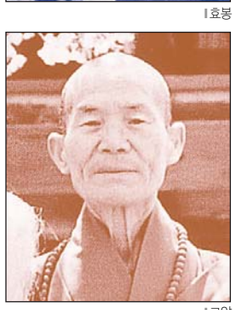
혜암



동산



경봉



고암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근본 버리고 지말을 따르는가? 새로운 결사로 쇄신하라

40 조계산에 핀 꽃 송광사(상)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거의 모든 스님들이 이 책을 공부했습니다. 그것도 정식 승려가 되기 전, 행자시절에 공부했을 겁니다. 노스님들 가운데 "부엌에서 군불을 넣으며 달달 외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출가하여 몸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고 수행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기본 서적이기 때문입니다.

<초발심자경문>의 첫 글은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입니다. 글자그대로 처음 발심한 학인이 경계해야할 가르침들입니다. 글의 제목 아래에는 '해동사문(海東沙門 목우자(牧牛子) 술(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목우자. 보조(普照)국사 지눌(知訥 1158~1210) 스님의 자호입니다. 수행의 길에 갓 들어선 행자가 처음 접하는 글의 저자라면, 그 저자는 책으로 만나는 첫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지눌 스님은 모든 스님들에게 책으로 만나는 첫 스승이 되는 분인 셈입니다. <초발심자경문>이 초심자의 필독서가 된 것이 1397년 조선 태조 6년부터라고 합니다. 지난 600년 간 지눌 스님은 한국의 '초심자'들에게 첫 스승으로 자리를 해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사찰들 가운데 특별히 3곳을 보배로 분류하여 '삼보(三寶)사찰'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을 의미하는 불보종찰(佛寶宗刹)은 양산 통도사, 부처님 가르침을 뜻하는 법보(法寶)종찰은 합천 해인사, 거룩한 승가를 뜻하는 승보(僧寶)종찰은 순천 송광사입니다. 송광사가 승보종찰인 이유는 지눌 스님 이후 15명의 국사가 배출된 도량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16명의 국사가 배출된 도량,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필연의 길을 튼 분이 지눌 스님입니다.

고려 말기의 부패한 불교계에 혁신의 당간을 올리고 오직 수행에 의한 승단의 개혁을 주창했던 분이 지눌 스님이고 그 방법이 결사(結社)운동이었습니다. 지눌스님으로 인해 송광사의 솔향기가 널리 퍼져 나갔고 조계산의 법이 높고 우렁찬 산맥을 이루었습니다.

보조 지눌 스님을 만나러 송광사로 갑니다. 지눌 스님의 부도는 송광사 대웅전 왼쪽 관음전 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친견할 수 있습니다. 경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높다란 언덕에 불일보조국사감로탑(佛日普照國師甘露塔, 전남도유형문화재 제256호)이 서 있습니다.

솔바람 가득한 곳에 우뚝 서 있는 감로탑은 여느 부도와는 다른 독특한 형상입니다. 4각의 지대석과 기단석이 설치되고 다시 4각의 받침돌이 놓였습니다. 별다른 조각 없이 포개어진 중대석과 상대석은 그 매무새를 급격하게 좁혀 올라가는데 둥근 몸돌의 크기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몸돌이 크지 않으므로 옥개석도 하늘로 바짝 추녀를 치켜 올렸습니다. 기왓골도 귀꽃도 없이 매끈한 옥개석은 푸른 이끼가 반쯤 덮고 있어 세월의 무상을 보여줍니다.


보조국사비(왼쪽)가 서있는 부도밭과 송광사 율원.


송광사 경내를 굽어보는 보조국사 감로탑.

언덕에서 굽어보는 감로탑 보조국사의 '성성한 눈길'
'소 걸음 범의 눈'으로 일으킨 정혜쌍수 가풍 이어져

웅장하거나 화려한 맛보다는 소박하고 단순한 맛이 강조된 이 부도가 한국불교의 중흥조 지눌 스님의 것이라는 것은 필연입니다. 부패한 불교계의 혁신을 위해 평생 철저한 수행의 모범을 보였고 수많은 대중들을 바른길로 이끌었던 스승의 영골을 모신 부도 역시 소박한 수행자의 표상이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감로탑의 위치도 각별한 감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송광사 부도밭은 입구에서 왼쪽 계곡을 건너 한참 산길을 올라간 곳, 율원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로탑만은 경내의 뒤쪽에서 절의 전체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탑 앞에서는 절 마당을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니 송광사에 사는 스님들은 매일 지눌 스님의 눈매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스승이 저기서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행주좌와와 어묵동정에 '계초심학인문'의 송곳 같은 가르침이 스며들 것입니다. 부도밭은 경내와 별도의 구역에 조성되지만, 이렇게 큰 스승의 부도가 경내를 굽어보는 곳에 있음으로 절은 더 절답고 법은 더욱 고매한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감로탑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좀 서운합니다. 유형의 문화재는 형상의 미적 가치와 양식적인 가치가 우선되겠지만, 그 조형물의 정신적 가치도 반영되었다면 감로탑은 당연히 국보로 지정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감로탑의 푸른 이끼를 매만지다가 탑비를 친견하기 위해 부도밭으로 향합니다. 송광사를 모르는 불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한번쯤 가보지 않은 불자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송광사를 다녀왔다는 불자들에게 부도밭에도 가 보았느냐고 물으면 "그게 어디 있는데요?"하고 반문하기 일쑤입니다.

부도밭의 위치가 좀 외지기도 하고 출입이 허용되지도 않기 때문일 겁니다. 게다가 송광사 부도밭은 율원 옆에도 있고 탑전에도 있어서 제대로 안내받지 않으면 경내의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들과 성보박물관을 참배하고 돌러보는 것으로 송광사를 다 보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율원 옆 송광사 부도밭은 비스듬한 비탈에 층층의 단을 다지고 빼곡하게 부도를 모셔서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매우 웅혼한 기상을 느끼게 합니다. 석종과 원당형의 부도가 즐비하고 군데군데 탑비가 솟아 있어 전각이 빼곡한 송광사의 옛 사진을 보는 듯 한 느낌도 갖게 됩니다.

부도밭으로 들어가는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옆에 '송광사보조국사비'를 알리는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율원으로 들어가니 마침 마루에서 한담을 나누는 젊은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들은 완강하게 출입금지를 주장합니다. 얼굴이 훤한 스님이 부도밭까지 따라와서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지눌 스님의 탑비는 어느 것인가요?"

"저기,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합장을 하고 돌아서는 스님의 눈매가 시원한데 얼굴에 약간의 웃음기가 묻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돌담을 따라 부도밭의 맨 위쪽으로 올라가서 알게 됐습니다. 보조국사비가 우뚝하게 서 있는 부도밭의 위쪽은 담장이 무너져 들어가고 나오고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정문을 통해 들어가려던 순례자들의 정직한(?) 태도가 율원의 젊은 스님에게는 좀 바보스럽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아, 보조국사의 비. 감로탑이 그랬듯 비도 지눌 스님의 가풍에 맞게 웅장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지대석이 묻혀 버렸는지 맨땅에 그대로 몸을 올려놓은 귀부는 머리를 정면으로 내밀어 앞산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빗돌은 온전하게 보존되어 전액 글씨가 매우 선명합니다. 용과 구름이 뒤엉킨 이수의 조각은 매우 선명하고 힘찹니다.

얼른 들어가 사진을 찍고 무너진 담장 밖으로 나와서 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눌 스님의 생애를 생각해 봅니다. 김부식(金富軾)의 손자뻘 되는 김군수(金君綏 ?~?)가 지은 '불일보조국사비문'의 앞부분에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이 묘사돼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지 더욱 오래되어 불법도 따라서 해이하여져서 학자들이 진언(陳言, 오래된 낡은 말)만을 고수하여 밀지(密旨)를 망각할 뿐만 아니라, 근본은 버리고 지말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관찰하여 오입(悟入)하는 길이 막히고 문자로 희롱하는 폐단이 봉기함으로써 정법안장은 거의 땅에 떨어졌다.

자. 800년 전에 지어진 글의 이 대목을 읽으며 지금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대의 사부대중은 근본을 버리고 지말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근본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지말은 세속의 욕망에 이끌려 정법을 왜곡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시대의 사부대중은 정법과 비법을 가리는 지혜조차 흐리지 않은가 반성해야 합니다.

혹, 지금의 불교계가 고려 말의 '근본을 버린 상황'과 닮아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지눌 스님의 결사운동이 필요한 때일 것입니다. 지눌 스님으로부터 21세기의 한국불교로 건너온 시간에는 우여곡절이 첩첩산중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억불과 폐불, 근현대사에서의 질곡과 탄압이 적지 않은 흉터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불일(佛日)이 뜨지 않은 날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위의가 엄숙하여 소의 걸음에 범의 눈길 이었다'는 지눌 스님의 가풍은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전통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정과 지혜의 해가 뜨고 지기를 반복하는 동안 조계의 맑은 물은 속세의 그늘진 곳을 덮을 수 있도록 오늘의 불자들은 각고의 정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상에 걸터앉아 임종을 맞은 지눌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주장자를 쿵쿵 내리치고 "천 가지 만 가지가 모두 이 속에 있느니라"하던 그 선승의 호랑이 눈을 생각해 보다가 문득, 불일암(佛日菴)으로 달려가고 싶어집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29>

조물주는 신이 아닌 법

〈神〉 〈法〉

학승이 물었다.
"실제리지(實際理地)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가 한 번 더 청(請)해보아라."

問 若是實際理地什麽處得來
更請 開黎宣一遍

만물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 생성되고 파괴된다. 인간사 모든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법칙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라만상의 근원을 법칙(法)이라고 본다. 우주는 법칙에 의해 생성되고 파괴된다. 조물주는 신(神)이 아니고 법(法)이다. 그 법의 속성을 법성(法性)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렇게 만물을 지켜보고 법에 의해 생성되고 파괴된다는 것을 아는 자도 또한 자성(自性)이요, 법성(法性)이다. 법성에서 만 가지 이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니 사람의 자성이 우주의 이치를 토해내는 것이다. 법성을 또 다른 말로 실제리지(법이 나오는 근원)라고 부른다.

실제리지를 얻는다는 것은 자기의 근본으로 돌아간 사람을 말한다. 깨달음을 얻는 것, 자신의 본질로 되돌아간 것, 부처를 회복한 것 등을 실제리지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리지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독자들은 지금 당장 "실제리지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하고 큰 소리로 물어보아라. 이 말을 할 때 깨달으라. 이 소리를 내는 자가 바로 실제리지임을.

학승이 물었다.
"만 가지 경계가 일시에 일어나 닥쳐와도 유혹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있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유혹되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는 불법이 있음을 믿고 있는가?"
학승이 말했다.
"불법이 있음을 믿는 일은 옛사람이 이미 말해 마쳤습니다. 무엇이 유혹되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는가?"
학승이 말했다.
"이미 물었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유혹된 것이니라."

問 萬境俱起還有惑不得者也無
師云 有
學云 如何是惑不得者
師云 你還信有佛法否
學云 信有佛法古人道了 如何是惑不得者
師云 爲什麽不問老僧
學云 問了也
師云 或也

만 가지 경계에 유혹되지 않는다면 이미 성인의 경지를 얻은 것이다. 갖가지 사상, 이념, 감정, 가치 등은 진실의 세계에서는 다 허망한 정의일 뿐이다. 따라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경계에도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학승은 조주 스님에게 '유혹되지 않는 것'을 직접 물어보았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분명 물음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학승의 물음을 못들은 듯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는가?"하고 재촉했다. 학승의 질문에조차도 유혹되지 않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학승은 "이미 물었지 않습니까?"하고 조주 스님의 질문에 유혹당해 마치 항변이라도 하듯 반문한 것이다. 조주 스님의 질문에 따라가 이러니저러니 마음에서 분별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당한 것이다. 선사의 대답은 즉석에서 순식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승이 물었다.
"옛사람과 지금 사람이 가까운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가깝기는 가깝지만 일체(一切)는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어찌하여 같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법신은 설법하지 않기 때문이야."
학승이 말했다.
"법신은 설법하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지금 화상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혜(惠)속에서 대답하고 말하는 거야."
학승이 말했다.
"그러시면서 어찌 법신은 설법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혜(惠)속에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구해주지만 그는 얼굴을 내밀지 않기 때문이야."

問 未審古人與今人 還有近也無
師云 相近卽相近 不同一切
學云 爲什麽不同
師云 法身不說法
學云 法身不說法 和尙爲人也無
師云 我向惠裡答話
學云 爭道法身不說法
師云 我向惠裡救你阿爺 他終不出頭

여기서 옛사람(古人)은 역대 선지식을 말한다. 법신은 법을 설하는 몸을 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법을 설하면 법신이다. 여기서 법신은 살아있는 오늘날 사람이다. 역대 선지식들은 많은 설법을 남기고 죽었다. 오늘날 후학들은 그 설법을 듣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있다.

조주 스님은 옛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설법을 남기고 갔지만 오늘날 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설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과 오늘날 사람들은 가깝기는 하지만 같지는 않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학승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재차 물은 것이다. 노스님께서 지금 그렇게 설법하고 계시면서 어찌 설법하지 못한다고 하느냐는 반문인 것이다.

조주 스님은 분명히 말했다. 다만 나는 저 옛사람들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설법하고 있지만,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은 자는 없기 때문에 설법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금강경>의 사상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선사는 이렇게 평생 중생을 구원하지만 구원받는 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상의 겸손이다. 이런 선사들이 지상 위에 가득해야 이 세계가 좀 살아 볼만한 곳이 된다.

그대들의 아버지는 사람들의 본질을 말한다. 자성(自性), 불성(佛性)이다. 자성은 형체가 없어서 이름도 없고 성도 없다. 찾으려하면 숨어버려서 더욱 찾지 못한다. 영원히 얼굴을 내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자성을 깨달아 알 수는 있다. 그것이 견성(見性)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만물은 법칙에 의해 생성되고 파괴된다
경계에 유혹되지 않아야 성인의 경지 얻어
마음의 분별이 일어난다면 유혹당한 것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⑩ 신회어록

보조지눌 선사상에 큰 영향줘

하택신회(荷澤神會: 668~760또는 670~762)의 속성은 고(高)씨이고, 양양 출신이다. 어려서 돈명(惇明) 스님에게서 오경(五經)을 받고 노장(老莊)의 사상을 배웠으며, <후한서>를 읽고 불교를 알아서 마침내 호원(顥元)에게 출가했다. 조계로 가서 혜능에게 4년 동안 참문한 후에 수도에 나아갔다가 709년 무렵 다시 조계로 돌아와 혜능이 시적할 때까지 모시다가 밀인(密印)을 받았다. 개원 8년(720) 53세로 남양 용흥사에 칙주했고, 후에 낙양 하택사에 주석하면서 서천동토(西天東土)의 조사를 정하고 육조의 진당을 만들어 남종의 정통 확립에 힘썼다. 마침내 개원 22년(734) 정월 15일 활대 대운사에서 무차대회(無遮大會)를 열고 남북 양종의 정통과 방계를 정하고 북종을 배격했다. 그 때 신회가 북종에 대해 북종은 그 법계가 방계라는 사승시방(師承是傍) 및 그 법문이 점법이라는 법문시점(法門是漸)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신회는 혜능의 선법을 중국의 선종사에서 정통으로 확립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돈황본 <남양화상돈교해탈선문직료성단어>

신회의 어록으로는 1930년에 호적이 출간한 <호적교돈황당사본신회화상유집(胡適校敦煌唐寫本神會和尙遺集)> 1권이 있다. 호적은 런던 및 파리의 돈황본을 조사해 페리오본 및 새롭게 발견한 신회화상 관련자료 3종을 교정하고 아울러 종래에 알려져 있던 자료를 합쳐서 1권으로 만들었다. 호적이 수집한 자료는 대부분이 잔권(殘卷) 및 수미(首尾)가 탈락된 것이었지만 호적은 거기에 발문을 붙였다.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페리오 3047(神會語錄第一殘卷本)>은 50개의 문답으로 구성돼 있다. 개원(713~741) 초기에 신회가 칙주에 의해 남양 개원사에 주석하면서부터 732년에 활대에서 북종을 비판하기까지 출가자 및 재가자들과 교류하면서 주고받은 문답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왕조공(王趙公), 소진(蘇晉), 장연공(張燕公), 왕유(王維) 등의 이름이 보인다. 2)<페리오 3047(神會語錄第二殘卷本)> 후반부. 3)독고패(獨孤沛)가 찬술한 <보리달마남종정시비론병서(菩提達摩南宗定是非論幷序)>는 신회가 730~732년에 걸쳐 북종의 숭원법사와 대결한 종론의 기록이다. 4)스타인 468에 해당하는 <돈오무생반야송(頓悟無生般若頌> 잔권(殘卷)은 <전등록> 권30에 수록된 <하택대사현종기(荷澤大師顯宗記)>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단편이다. 5)부록으로 수록된 <하택대사어(荷澤神會大師語)>는 <전등록> 권28의 <낙경하택대사시중(洛京荷澤神會大師示衆)>에 해당한다. 기타 <남양화상남종전시비오경전(南陽和尙南宗定是非五更轉)>은 <남종오경전(南宗五更轉)>이라고도 하는데 페리오 2045.에 해당한다. 이것은 <보리달마남종정시비론>의 요지를 가곡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소실일서(少室逸書)>에 수록된 <남양화상돈교해탈선문직료성단어(南陽和尙頓教解脫禪門直了性壇語)> 1권은 신회가 718년 이후에 남양의 용흥사에서 수계법회에서 설법한 것의 기록이다. 단어(壇語)는 <육조단경>의 경우처럼 계단(戒壇)에서 설법한 것을 가리킨다.

신회는 육조가 입적한 후에 낙경(京洛) 곧 낙양에 입성해 조계의 돈교(頓教)를 널리 펼쳤다. 신회의 <돈오무생반야송>(현종기)에서 "무념(無念)을 종(宗)으로 삼고 무작(無作)을 본(本)으로 삼으며 진공(眞空)을 체(體)로 삼고 묘용(妙用)을 용(用)으로 삼는다. 대저 진여(眞如)는 무념(無念)으로서 상념(想念)으로는 알 수 있는 바가 아니고, 실상(實相)은 무생(無生)인데 어찌 색심(色心)으로 볼 수 있겠는가." 라는 말처럼 적지(寂知)를 체(體)로 삼고 무념(無念)을 종(宗)으로 삼았다. 이것은 혜능선법을 충실하게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남종의 종지가 정통임을 드러내려고 의도적으로 지은 것이다. 이것은 신회가 평생의 숙원으로 간주했던 남종의 정통성확립에 있어서 법맥상으로 혜능을 내세웠다면 교의상에서 남종이 정통임을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교의상에서 신회가 주장한 입장은 네 가지이다. 첫째는 북종의 선법을 응심입정(凝心入定)이라 하여 마음을 의도적이고 조작적으로 내세워 선정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좌선을 중시하는 북종의 입장에 대한 차이이다. 셋째는 돈점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신회는 북종의 입장을 점수라 하고 남종의 입장을 돈오라 했다. 돈오의 입장을 경전의 인용을 통해 '중생견성성불도(衆生見性成佛道)', '용녀정각(龍女正覺)', '영중생입불지견(令衆生入佛知見)'의 세 가지를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는 선법으로서의 원간근간(遠看近看)이다. 신회는 북종의 원간근간도 응심(凝心) 내지 주심(住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하여 입정과 출정의 입장까지도 좌선의 형식에 얽매이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기타 적지(寂知)는 공적영지(空寂靈知)로서 선종사에서 지(知)의 개념을 크게 확장해 이후에 규봉종밀(圭峯宗密: 780~841) 및 우리나라의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의 선사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신회의 어록을 통해서 중국 초기선종에서 하택의 위상이 확고하게 드러났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이 재 진	051)632-4440 / 011-488-7745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간화 禪 세계를 비추다

❷고우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참선 수행의 목적

법은 중도연기 달리 표현할 뿐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로버트 버스웰)이 8월 12~13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금봉암)은 '참선 수행의 목적'을 주제로 회향법문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화두참선이란 생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세상 아니야
정견이 바로 서 대신심 · 대의심 · 대분심 일어나야 해

"부처님께서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 태어나셨고 마야 부인 태속에 들기 전에 중생을 제도해 마쳤다."

젊은 시절 이 법문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고도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양의 세계' 즉 '말의 세계'에 너무나 익어진 삶을 살아 왔기 때문에 말 이전의 세계는 상상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법문이 간화선을 바로 알려준 법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한다는 조사스님의 낙처를 바로 보는 안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눈으로 보면 간화선은 이 모임이 시작되거나 시작되지 않거나 간에 이미 완벽하게 보여 지고 있다. 간화선에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많은 수의 대나무 그릇을 바다에 담갔을 때 그릇마다 바닷물이 가득 차 들어오지만 바닷물 자체는 온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는 이치와 같다. 다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 자기 그릇 속에 들어있는 물만 따로 존재하는 걸로 착각하고, 내 영혼 네 영혼이 따로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다.

제법무아(諸法無我)의 도리 즉 연기법을 모르고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독립된 실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생들의 생각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간화선의 특성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요 심행처멸(心行處滅)이다. 교외별전(敎外別傳)이요 불립문자(不立文字)이다. 내가 부처임을 바로 보는 세계이다.

기록의 역사가 아닌 존재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이자 가섭 스님이 파안미소했다. 이것이 천지미분전(天地未分前) 소식이다. 바로 마음과 마음을 전한 소식이다.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의 소식이다. 이러한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도리를 세 곳에서 보이셨다고 해 삼처전심(三處傳心)이라 한다. 고불미생전 면목(古佛未生前 面目)을 역력하게 보여준 소식이다. 이 삼처전심이 바로 간화선 역사의 시작이다.

혹자는 삼처전심의 기록이 있고 없고를 갖고 진위를 따지려고 한다. 이는 인간의 기록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생각이다. 기록할 줄 아는 주인공을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한다. 기록만 갖고 진리를 보려면 그런 생각은 실상을 부정하고 그림자를 쫓는 격이다. 기록이란 이미 상법(相法)일 수밖에 없다. 존재자체인 무성연기(無性緣起) 즉 실상의 세계는 기록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가(禪家)에서는 인간의 기록을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을 깨달은 선지식들의 점검을 믿는다. 역대 33조사와 제대 선지식들이 한결 같이 삼처전심을 찬탄하고 거량해온 터에 그 보다 더한 참 기록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기에 동토 초조 달마 대사는 확연무성이라 하셨다. 확연해 말길이 끊어진 자리요, 마음길이 멸한 자리라는 것이다. 2조 혜가 스님을 거쳐 3조 승찬 스님은 <신심명>에서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는 것인데, 오직 고르고 분별함을 꺼린다. (고르고 분별하기 때문에 지극한 도에 이르지 못한다) 단지 미워하고 사랑함이 없다면, 텅 비어 명백하리라(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라고 말한 것이다. 양변을 여읜 중도를 깨달아야 이심전심이라는 가르침이다.

4조 도신 스님의 안심법문에 이어 5조 홍인 스님에 이르면 이심전심의 세계를 선문답 형식으로 쓰기 시작했다. 홍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한 채의 집이 있다. 그 속에 온갖 오물이 가득하다. 이 어떠한 물건인가?" 거듭 말씀하시기를, "모든 오물을 깨끗이 씻어내어 한 물건도 없을 때 이 무슨 물건인가?" 여기서 몰록 깨달으면 조사선(祖師禪)이요 깨닫지 못하고 참구해야 한다면 간화선(看話禪)이다. 이와 같이 조사선과 간화선은 이름만 다를 뿐이다. 선 그 자체에는 그 이름도 없다. 5조를 이은 6조 혜능 스님은 이러한 사상을 무념위종(無念爲宗)이요 무상위체(無相爲體)요 무주위본(無住爲本)이라는 사상으로 본래성불(本來成佛)의 도리를 깨달으라고 했다. 바로 돈오사상이다.

이렇게 생각 끊어진 자리인 참선법이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면서 6조 문하에서 강호제현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강서의 마조 스님, 호남의 석두 스님으로 이어졌다. 그 가운데 마조 스님(709~788)의 중도(中道)와 평상심(平常心)을 살펴보자. 마조 스님은 중도를 자성청정(自性淸淨)이라고 가르쳤다. 그 중에서도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많이 강조하셨다.

"무엇이 평상심이냐? 조작이 없고 시비가 끊어졌으며 취하고 버림이 없으며 단상(斷常)이 없고 범성(凡聖)이 없는 것이다"라고 평상심을 정리해 스승인 6조의 무념위종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기 까닭에 간화선(看話禪)에서는 화두일념(話頭一念)이 되어 화두를 타파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평상심이요 중도라고 한다.

북종선 신수 대사 계열에서는 자성청정 가운데 청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닦는 법을 강조하여 점수돈오(漸修頓悟)라고 했고 남종선 6조 혜능 계열에서는 자성청정 가운데 청정을 본각(本覺)으로 보고 본각에 중점을 둔 까닭에 돈오돈수(頓悟頓修)라고 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법 그 자체에는 돈이니 점이니 본래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서 백장을 거쳐 황벽의 전심법요, 임제의 무위진인, 조주(778~897) 스님에 와서 무자(無字)화두,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 뜰 앞에 잣나무), 판치생모(板齒生毛, 앞니에 털이남) 등 많은 화두가 제시됐다. 특히나 조주 스님은 3조 승찬 스님의 <신심명>에서 5칙이나 되는 공안을 들어 보였다. 이는 간화선이 이미 3조 때부터 이야기됐다는 말이다. 그러니 대혜 스님(1089~1163) 대에 와서 간화선이 새로 생긴 걸로 본다면 그것은 문자로 정형화된 간화선만 보는 것이 된다.

조주 스님을 거쳐 벽암록의 저자 원오극근 선사는 제자인 대혜에게 임제 정종기를 내렸다. 그 일부를 옮겨보면 "삼현(三玄) 삼요(三要)와 사료간(四料簡) 사빈주(四賓主)와 금강왕의 보검과 땅에 웅크린 사자(踞地獅子)와 한 할이 한 할의 작용을 하지 못함(一喝不作一喝用)과 고기 찾는 장대 그림자 풀(探竿影草; '고기 찾는 장대[探竿]'는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에는, 먼저 물의 깊고 얕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림자 풀[影草]'은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려 할 때에 먼저 불 켜진 방안에 주인이 잠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풀 묶음을 달빛에 흔들어서 그 창문에 비추어 보는 것)과 한 할에 손과 주인의 나뉨(一喝分賓主)과 비침과 작용이 동시에 행하여짐(照用一時行) 등의 허다하게 얽힌 실오라기들을 많은 학자들이 알음알이를 따라 주해를 내리는데 나의 왕궁창고 속에는 이러한 칼이 없다함을 결코 몰랐다 하리라. 막상 염롱해 드러내 보이면 보는 자들은 그저 눈만 껌뻑 거릴 뿐이다. 모름지기 저 으뜸가는 근기라면 계합증득하고 시험 인정함에 있어서 정면으로 또는 측면으로 제접해 본분수단을 쓰거늘 어찌 방편과 지위점차를 빌리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철 스님은 <한국불교의 법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원오가 대혜에게 수시한 유명한 임제 정종기의 한구절로서 종문만세의 궤범이다. 삼

초기불교 VS 선불교



한국불교의 미래는 선불교인가 초기불교인가?
불교 전반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흥미진진하게 써내려간 한 편의 소설 같은 책. 현대 한국 불교를 관통하는 두 개의 흐름, 전통적인 선불교와 새롭게 유행하는 남방불교의 한판 대결! 한국사회에서 선불교는 한계에 봉착한 것인가? 남방불교의 득세는 일시적 유행인가, 아니면 한국불교의 미래인가? 보다 본질적으로, 한국 초기불교주의자들의 주장은 교리적으로 올바른가?
방경일 저 | 신국판변형 | 296쪽 | 값 13,000원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티벳 사자의 서』에 의한 중음에서의 해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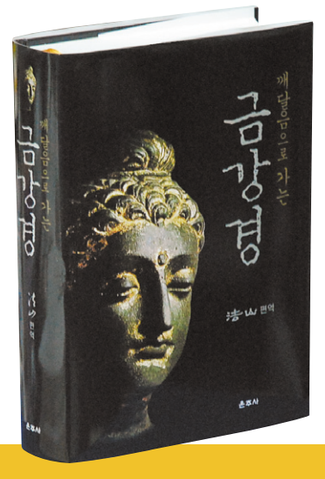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의 중음 기간 중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천도를 하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망자를 어떻게 경책해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석법성 편역 | 신국판변형 | 144쪽 | 값 8,000원

금강경 해설의 새로운 지평!!!
풍부한 일화와 사진,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넘나드는 깊고 폭넓은 해설!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경





초기불교를 자양분 삼아 더욱 풍부해진 금강경 해설!
이 책은 계율과 선정을 중시하는 초기불교와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대승불교, 번뜩이는 지혜를 강조하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수행자의 안목에서 한 맛으로 회통하고 있다.

사진과 일화로 읽는 금강경!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듯한 생생한 해설과 다양한 사진자료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불법의 정수까지도 오롯이 드러내 보인다.

한 편의 소설을 읽듯 흥미진진한 금강경!
마치 한 편의 상황극을 보는 듯 재미있고 친절한 풀이를 한 장 한 장 읽다보면, 지혜의 완성, 번뇌의 타파에 한 발 다가가 어느덧 참나를 찾는 길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법산 편역 | 신국판양장 | 올컬러 | 764쪽 | 값 38,000원



*저자 법산 스님은 국내 제방과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수행했으며, 현재 대구 대각사(053-6565-108)에서 불교명상대학 지도와 금강경 강좌를 통해 법연을 나누고 있다.

●붓다북 www.buddhabook.co.kr ●주문 (02) 3672-7181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간화선은 말길이 끊어진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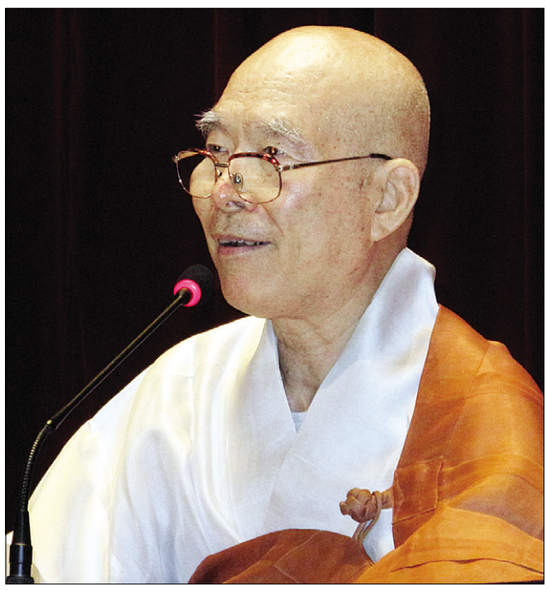
현삼요와 조용일시 등의 전기대용(全機大用)도 눈 속에 모래를 뿌림이요. 평지낙절(平地落節)이거늘 이것을 교가에서 주석을 붙이듯 알음알이 따라 해석하면 가소로울 뿐만 아니라 본분종사들이 금기하는 것이다"라고 절절이 밝혀 놓으셨다. 그뿐 아니라 근세의 서산 대사 역시 <선 교결>에서 간화선의 수승함을 간절하게 밝혔다. 또, 성철 스님은 <백일법문>에서 "자성이 공했기에 삼계가 유심(唯心)이다. 삼계유심이란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을 말함인데 일체만법(一切萬法)이 모두 공하여 쌍차쌍조(雙遮雙照)하며 진공묘유(眞空妙有)라, 이를 일러 마음이라 중도(中道)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선도 취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더러움도 취하지 않으며 양변을 초월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다. 그래서 삼라만상이 일법지소인(一法之所印)으로 자성청정을 빼고서는 하나도 성립될게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중봉(中峰) 선사의 가르침을 들어보자. 중봉 스님은 스승을 생각하며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보이고 있다.

내 스승 고봉 화상은 항상 학인에게 이르기를 "오직 본참 공안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행주좌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간절히 참구하라. 궁구하고 궁구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고 생각이 머무를 수 없는 곳에 이르러 문득 화두를 타파하면 바야흐로 성불한지 이미 오래임을 스스로 알 것이다. 이 도리는 기왕의 모든 부처님과 조사스님이 생을 요달하고 죽음에서 벗어나는데 모두가 시험하신 묘방이다. 오직 귀한 것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뿐이니 오래오래 물러나지만 않으면 누구나 상응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화두를 들고 공부를 지어감에 "첫째 입각처가 온당해야만 깨달음도 친절하니라. 설사 금생에 깨치지 못하더라도 다만 철저한 신심만 퇴전치 않으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라고 간절하게 가르쳐 보이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이 교(敎)이다. 그 가르침의 근본 뜻을 선(禪)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근본 뜻인 선에 들어가자면 직접 체험을 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교를 객체화시켜서 지식화가 되어선 안 된다. 이러한 사상을 교외별전 불립문자(敎外別傳 不立文字)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삶과 수행이 하나가 되어 정견이 확실하게 서야한다는 말이다. 영상으로 비쳐진 대상화된 사물이라면 중도연기(中道緣起)와는 거리가 멀다.

정견(正見)이란 중도연기에서 본 세계관이요 인생관이다. 정견이 바로 서야 연기법(緣起法)과 무아(無我)사상 그리고 공(空)의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견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참선을 시작해보니 주로 번뇌 망상과 싸우느라 공부가 순일하지를 못했다. 화두가 무엇인지 깊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다. 선원에서는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자리를 화두(話頭)라고 한다. 그런데 그 화두가 반야공성(般若空性)을 일러준 일구라는 걸 모르고 잘못 생각해 소소 영령한 주인공이 각자 따로 있는 걸로 잘못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하겠다는 구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고 깨달아야 할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푹 쉬지를 못하고 빨리 깨닫겠다는 속효심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른다.



바닷물이 마음이라면 파도는 번뇌
바람만 잠재우면 파도는 곧 바닷물

참선이란 쉬고 쉬어서 의정이 독로하게 되면 비우고 또 비워 철저한 무(無)에 도달하게 된다. 그 순간 우주전체가 내가 되고 내가 곧 우주 전체가 된다. 즉 체로금풍(體露金風)이 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애를 먹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여러 해를 방황하다가 성철 스님 문하에 살 때 서서히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다. 언어도단 심행처멸(言語道斷 心行處滅)의 세계는 곧 바로 참구해 들어가야지 생각으로 따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화두참선이란 생각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세계임을 알게 되었다.

영원한 행복 참다운 평화는 부족함을 채워서 얻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덜어내고 덜어내서 구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그때에야 영원한 평화 참다운 행복이 온다. 간화선은 구하는 세계가 아니고 덜어내는 길이다. 돈오의 길이다. 돈오란 더 이상 덜어낼게 없는 상태다. 그런데 덜어낸다고 해서 덜어낼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것이다. 처음 참선한다고 앉았으면 주로 번뇌 망상과 싸우게 마련이다 참선하는 이가 처음 화두 탈 때로 돌아가 보자. 제자가 스승에게 묻기를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입니까(如何是祖師西來意)" 하고 물으니 "뜰 앞의 잣나무(庭前栢樹子)니라"라고 답했다. 우주의 대 진리를 묻는데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이것이 화두다.

화두를 참구하다 보면 참선하는 내가 있고 깨달아야할 뜻이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깨달아야할 참 나라는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된다. 그 원인은 화두가 반야공성을 바로 일러준 일구라는 걸 모르고 화두를 통해서 소소영령한 주인공을 깨달아야 하는 실체가 있는 걸로 잘못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면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제법무아도 아니요. 중도 연기법도 아니다.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말길이 끊어진 자리가 화두이기에 다만 모를 뿐이라야 한다. 여기서 선지식의 지도가 필요하다. 다만 모르는 놈을 참구하고 참구하되 목마른 이가 물 찾듯이 배고픈 이가 밥 생각하듯 간절 간절하게 참구해야 한다. 참선할 때 일어나는 모든 번뇌 망상은 바닷물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다. 바닷물이 마음이라면 파도는 망상번뇌다. 파도가 바닷물이다. 바람만 잠재우면 파도는 그대로 바닷물이다.

파도를 없애려고 싸우지 말라. 파도란 없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옴에 따라 일어나는 바닷물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바람을 잠재우라 그릇을 비우라 가득 찼던 그릇을 비우면 그릇은 그대로 허공이 가득하다. 그 허공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본래 허공이었다. 고로 본래 부처다. 허공을 만들 수 없듯이 부처도 닦아서 새로 만드는 세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견이 바로 서야 되고 정견에서 대신심(大信心) 대의심(大疑心) 대분심(大憤心)이 일어나야 한다.

간화선은 말길이 끊어진 자리다. 간화선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모든 말과 글로 부득이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중언부언 허물을 쌓는 일이다. 섶을 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부처님대로부터 근래까지 간화선의 흐름을 대강 짚어 보았다. 결국 법이란 중도연기를 달리 표현할 뿐 그 근본 뜻은 달라진 게 전혀 없다는 결론이다. 이것은 본분사이기에 각자 본인이 해결해야할 당사자의 몫일뿐이다. 노력하고 노력할 일이다.

정리=조동섭 기자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목숨 내놓고 일본행… "전법에 아까운 것 없어"

일본 율종의 개조 감진 화상(鑑眞和上)

753년 65세의 중국 승려 감진(鑑眞, 688~763)은 제자들과 더불어 비밀리에 일본의 대중국 외교사절인 견당사가 귀국하는 배에 올랐다. 그러나 대사는 중국관헌의 엄중한 경계를 두려워 하선시키고 말았다. 이때 부사가 재빨리 자신의 배에 일행을 태웠다. 11월의 추운 겨울, 배는 동지나해를 지나는 중 광풍을 만나 남양으로 떠내려갔다. 한 달여의 표류 끝에 마침내 큐슈 남서부에 위치한 사츠마(薩摩)의 땅을 밟았다. 대사 일행이 탄 배는 말레이반도에 표착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200명 거의가 몰살당했다.



감진 화상의 좌상. 현재 국보로 일본 최고(最古)의 초상조각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왕의 칙명으로 요에이(榮叡)와 후쇼(普照)가 전계사를 초청하기 위해 20년 동안 당에 체재하면서 이루고자 한 꿈은 성취됐다. 당시 양주 대명사(大明寺)에 주석하고 있던 감진이 이들의 간절한 요청에 감동, 일본에 계율을 전파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후 11년간 6번의 시도 중 5번째 도항에는 태풍을 만나 남부 해남도에 표착, 돌아오는 길에 병을 얻어 실명마저 하고 말았다. 당나라는 백성의 밀입출국을 금지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 처음에 감진이 지원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제자들은 한결 같이 험난함을 예견, 모두가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감진은 "법을 위해서라면 목숨이 아까울 것이 있겠는가. 내가 가겠다"하고 스스로 앞장섰다. 감진의 전법에 대한 열정은 국법마저 초월한 것은 물론 수송수단이 불편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목숨을 잃는 것마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일본에 도착한 감진은 불교계 최고지도자인 대승정에 임명되고, 일본 최초로 율종을 열게 되었다. 수도 나라(奈良)의 토다이지(東大寺) 대불전 앞에 계단(戒壇)을 세우고 승려를 비롯해 상왕과 왕 및 귀족들 440명에게 보살계를 수여했다. 이 계단원의 지하에는 감진이 가져온 불사리를 묻어 그 상징성을 더했다. 이렇게 일본에 불교가 유입된 지 200여 년이 지나 정식 수계의식을 정비하는 한편, 이제까지 국가로부터 도첩(度牒) 대신 계첩(戒牒)을 주는 제도가 확립됐다. 감진의 전법의지에 감복한 제자들은 같은 배를 탔으며, 그들과 더불어 이렇게 본격적인 수계의식을 일본의 승려들에게 처음으로 베풀었던 것이다.

그 동안 일본은 국가의 관장 하에 관승을 위한 득도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민간에서도 스스로 수계를 행하는 자서수계(自誓授戒)도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라시대에는 국내에 파계승이 증가해 그 통제가 어려워졌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승려들이 사미취급을 받았으므로 불교 고유의 전통적인 수계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감진의 활동이 넓어지면서 동서의 후쿠오카와 토치기 지방에 각각 칸제온지(觀世音寺)와 야쿠시지(藥師寺)에도 계단이 세워져 토다이지를 합쳐 세 곳의 국립계단이 세워졌다. 이를 천하의 3계단이라고 불렀다. 토다이지에서는 3사7증에 의해 <사분율>의 250계를 수여하는 수계식이 이뤄졌다. 나머지 두 사찰에서는 3사2증의 방식을 도입해 수계를 행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당시 계사가 적었던 것에도 이유가 있었지만, 지방과의 차별을 통해 국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감진은 이미 중국에서도 고승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 14세에 출가해 율종과 천태종을 배웠다. 그는 종남산에서 활동한 도선(道宣)을 조사로 하는 남산율종을 승계했다. 도선은 <사분율>을 중시하면서 보살계의 영향을 받았다. 감진은 도선의 제자인 항경(恒景)으로부터 율종을 배운 후, 40세 무렵에는 이미 굴지의 전계사로서 명성을 날리며, 무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수계를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일본 율종의 초조로서 법을 심은 것 외에도, 승의(僧醫)로서도 명성을 날렸다. 감진은 약초 감별에 뛰어났으며, 조야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을 치료했다. 5차 도항 중 표류한 해남도에 1년간 체류할 때는 그 지역에 의학지식을 보급하기도 했는데 그 유적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는 비전원(悲田院)을 세워 노인과 고아를 비롯한 빈민구제에도 심혈을 쏟았다. 말년에는 계율의 근본도량으로 삼은 나라의 토쇼다이지(唐招提寺)에 주석하며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마침내 전법의 사명을 다하고 이곳에 76세를 일기로 뼈를 묻었다. 토쇼다이지는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율정신이 흐트러질 때마다 석가의 가르침에 귀의하자는 조사들의 외침 아래 계율부흥의 중심지가 되었다. 감진이 주지로 있던 대명사는 문화대혁명 당시 파괴됐지만, 일본불교계의 복구지원에 의해 새롭게 재건됐다. 동아시아의 세계는 시공을 넘어 이렇게 불연으로 서로를 이어주고 있다.

■ 원영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이재복 지음(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 살림
정正골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부모자녀는 사랑 · 공감으로 이어진 독립적 인격”

강 사 : 백경임 (동국대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일 시 : 2010년 8월 19일
주 제 :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장 소 : 천안 각원사
주 최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에 싯타르타는 아들의 이름을 ‘라훌라(Rahula: 장애)’라고 했다. 가족은 무엇일까? 정각을 이루기 전 왕족인 싯다르타는 가족을 떠나 수행하며 살았다. 부처님은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을까? 부처님은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자녀에 집착하지 않고 자녀를 주체적 인격으로 대할 수 있도록 자녀를 공(空)으로 관조하는 자녀관을 가지라고했다.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한 경제적 · 교육적 · 도덕적 의무를 행하여야 하며, 보살사상의 근원이 되는 사섭법을 자녀교육방법으로 권장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8월 19일 천안 각원사에서 백경임 동국대 가정교육과 교수를 초청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주제로 강의했다. 백 교수는 가족 구성원 각자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서의 ‘도반’이 되며 가족은 ‘수행공동체’라고 설명했다. 백경임 교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수행을 하기 위한 과제이며, 가족원들은 스스로의 수행을 잘하면서 가족원들이 깨달음을 향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고 격려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백경임 교수

#임신을 위한 마음가짐

불교에서는 윤회과정에서 존재가 거치는 형태의 변화를 사유설(四有說)로 설명합니다. 모든 중생이 모태에 수태되는 순간을 생유(生有)라 하며, 태아를 주체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사론>에서는 임신을 위해서는 어머니 몸의 시기가 맞아야 하고, 부모가 화합해 사랑을 나누고, 건달바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건달바는 전생에 지은 업의 힘으로 생겨난 눈을 통해 비록 멀리 있으면서도 그가 앞으로 태어날 곳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결합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조 사주당 이씨가 세계 최초로 태교에 관한 내용만 집대성한 <태교신기>에는 “스승이 10년 가르쳐도 어미가 열 달 뱃속에서 잘 가르침만 못하고, 어미가 뱃속에서 열 달을 가르침이 부부가 교합을 하룻밤 할 때 바른 마음가짐만 못하다”고 합니다. 정자와 난자 DNA의 우수성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지만 하룻밤 마음에 따라 자녀 또한 다르게 태어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줘야 하지만 사랑을 넘은 집착은 반드시 경계해야

때때로 자녀가 “정말 나를 수행을 시킨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장애아를 낳거나 할 때 “나는 어째서 이런 과보를 받는가”라고 생각하지요. 원생(願生)과 업생(業生)이 있습니다. 업생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업에 의해 인연 따라 물결에 휩쓸려 살다가는 삶을 말합니다. 원생은 스스로 삶을 갈무리해 도도한 업의 물결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태어나겠다는 것을 내가 자유자재로 하는 삶입니다. 중생은 업생을 살고 보살은 원생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나를 교화시키기 위해 나에게 태어난 원생의 보살이라면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자녀는 원생의 보살이 태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

“어리석은 사람은 단장한 처와 자녀에 탐착하는 애욕이 튼튼하다 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애욕은 깊고 튼튼한 감옥이니 벗어나기 어렵다고 한다.” <법구경>

현대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녀는 자신의 발달을 위한 특별한 특권 즉 열등상황을 극복하고 발달할 수 있는 특권(기회)을 부모에게 박탈 당하면서 나약해 집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이 골수에 스며들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육방예경>의 가르침 등을 보면 부처님의 자녀관은 “자녀는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자녀에 대한 집착은 반드시 경계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내 아들이다, 재물이다 하여 그들은 괴로이 허덕이지만 이 ‘나’ 또한 ‘나’가 아니거니 무엇을 자식이라 재물이라 근심하리.” <법구경>

부처님은 자녀 또한 ‘공(空)’으로 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아사상에 입각한 부모의 자녀관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 무아사상을 체득하면 자녀도 조건에 의해 구성된 개체일 뿐 그 본바탕에 있어 내 자식이라는 특별한 애착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뿌리가 같음을 체득하면서 애착이 끊어지고, ‘너’와 ‘나’의 구별이 없어지며, 남도 나와 똑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윤회사상에 따라서 자녀를 바라본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넘어선 ‘모든 중생과 동일체로서의 자녀관’으로 파악됩니다. 현실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하고 보호받아야 할지라도 그 자녀는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고 주체적이고 독립된 존재로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가르침입니다.

“부모도 5가지로 자녀에게 경친(敬親)해야 한다. 첫째, 자녀를 제어해 악을 행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가르치고 일러주어 그 착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자애함이 뼛속 깊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넷째 자녀를 위한 선한 짝을 구하는 것이다. 다섯째 때에 따라 그 쓰임을 대어주는 것이다.” <장아함경>

사랑을 넘어 ‘경친’이라는 용어까지 나오며 자녀가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자녀관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자녀가 깊이 느껴 안정된 신뢰관계가 형성돼야합니다. 현대 부모들은 위의 의무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물질적인 충족에 그치고 마는 등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가지 섭사가 있다(四攝法). 첫째 은혜를 베풂이요(報施攝), 둘째 정다운 말이다(愛語攝). 셋째 이로운 행동(利行攝)이요, 넷째 이로움을 같이하는 것이다(同事攝). 만약 세상에 섭수가 없으면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서 공양과 공경을 받을 수 없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또한 마찬가지다.” <중아함경>

사섭법 중에서도 ‘애어’는 자녀를 칭찬하는 긍정적인 양육법이며, ‘동사’는 자녀를 중심으로 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자녀양육법입니다. 애어와 동사는 돈이 들지도 않으면서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애어는 칭찬요법입니다. 잘 한 일이 있을 때는 바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경찰관처럼 지시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하지만 칭찬을 하다보면 상대의 반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 수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십시오. 효과는 생각 이상으로 좋습니다.

동사섭은 정서적으로 그 사람을 따라가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이입, 공감이라고도 하는데요, 애착을 띄고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1~3세까지는 아이를 깊이 사랑해 정서적 공감이 이뤄져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할 때 “안가면 너만 손해지, 너 뭐가 되려고 하니, 학교도 안가고 어떻게 살라고 하니, 때려 쳐라”는 반응은 아이가 갈 곳을 없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너 정말 속상하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라며 그 아이의 정서에 공감을 하면 알아서 학교를 다닙니다.

#자녀를 진리의 길로 이끄는 훌륭한 부모, 스스로 자아완성에 주력하는 부모

“그 아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면서 ‘내 아들아!’라고 그대는 울부 짖는다. 그러나 그 아이가 오고 간 길을 알게 된다면, 그대는 아이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리.” <장노니게>

자녀에 대한 애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감으로써의 애착은 극복해야할 정서입니다. 경전에는 부처님이 자녀를 잃고 괴로워하는 부모들에게 윤회전생의 인생관으로 생사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또한 수행자의 삶을 사는 부모는 자녀를 불법으로 이끌게 됩니다. 부모의 필요에 의한 자식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식의 행복을 위하는 부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잘 가르친다는 것은 세속적인 출세지향적 가치관에 의한 자녀 성숙이 아니라 불자들의 경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적 가치관에 의한 도반으로서의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수행을 위해 정진하게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자아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발달 과제가 됩니다. 수행을 통해 부모가 성숙한 통찰력을 갖게 되면 가족에 대한 깊은 이해로 부모자녀 관계는 원만해지고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세속적인 시각에서는 부처님도 불효자입니다. 싯다르타는 아버지 정반왕이 출가를 말렸지만 출가를 했고, 궁에 와서 살라고 해도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양모는 불교교단 최초의 비구니가 되는데 후일 “나고 죽는 모든 것들의 최상자이시여, 영웅호걸이시여, 모든 사람들을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당신께 예배 드립니다”라고 자신의 아들인 붓다에게 극한의 예의를 표합니다. 불교의 효 개념은 독특합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불법에 가까울 때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스님이 좋아 출가를 원할 때, 나보다 불법에 수승할 때 최고의 효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리=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천안 각원사 불교대학 학생을 비롯한 지역 시민 150여 명이 8월 19일 각원사에서 열린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강의를 듣고 있다.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39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0년 9월 6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CD 우송)
○ 강의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①송 주 편(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헌 공 편(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④재의식편(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⑤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범음, 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한 국 불 교 법 사 대 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33-1959, 720-1836

적중도최고효과성 최대효사활인천역 집2010완결보정판 구입교환및육임활 용서학습서구입안내

1. CD프로그램

교환대상	효사활인천역집 Ⅰ,Ⅱ,Ⅲ, 완결판 소지자	
교환가격	효사활인천역집 Ⅰ 교환	15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Ⅱ 교환	12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Ⅲ 교환	8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완결판 교환	50만원
신규구입	효사활인천역집 2010완결 보정판	500만원
기 능	원터치 · 매일 매시간별 자동화면 · 동일 시간내 다수방문자 구분식별 · 상담 메모리 · 자료출력 등등	
장착목록	(아래 제 3항참조)	

2. 미리보고 먼저 알게되는 자동화면의 우선항목들

- **시보**(時報 : 왜 왔는가?)
- **내정**(來情 : 어떤 정황인가?)
- **득지**(得知 : 무슨 비밀사정이 있는가?)
- **아타**(我他 : 저지른 일인가, 일어날 것인가?)
- **미기**(未旣 : 이미 일어났는가, 일어날 것인가?)
- **귀신**(鬼神 : 어떻게 죽은 · 누구의 귀신이 침범했는가?)
- **병귀**(病鬼 : 무슨 귀신침범으로 병이 났는가?)
- **사숭**(邪崇 : 신변 · 가택 어디에 무슨 부정이 들었는가?)
- **산소**(山所 : 누구 묘지, 무슨 좌향 · 물형, 어떤 경관인가?)

◆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해소 시킬수 있는가?**
◆ **비방 · 부적 · 굿 · 천도재 · 불제 등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며칠 후 언제 해야만 좋은가?**

- 이외 **24개항목**의 길흉성부를 결정지어 놓았고, **50여 인사(人事)문제**도 **미리보고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화면 배치 했습니다.

3. 육임활용서(위 1항 CD프로그램에 장착 됨)

① **효사육임산책**	2010최신판(휴대용)	1 · 6 · 60권	250만원
② **효사육임복변집**	2010 보정판(좌정용)	1 · 6 · 60권	250만원
③ **육임대계전서**	2010개편본(휴대용)	1 · 6 · 60권	250만원
④ **육임풍수**	2010개편본(휴대용)	1 · 6 · 60권	70만원
⑤ **육임1년신수비결**	2010개편본(좌정용)	1 · 6 · 60권	35만원
⑥ **육임래정비법**	2010개편본(휴대용 · 좌정용)	1 · 6 · 60권	50만원
⑦ **도사에게 물어봐**	2010증보판 **육임길흉성부상담지침록**(휴대용)		10만원
⑧ **육임사주감정법**	2010개편본(좌정용)		20만원
⑨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좌정용)			12만원

⑩ **효사숙 사주**(CD전용) ⑪ **성명학**(CD전용) ⑫ **매화역수**(CD전용)
⑬ **월영도**(CD전용) ⑭ **부적보감**(CD전용) ⑮ **동의보감**(CD전용)

4. 육임학습서

① **효사육임강론** 2010개편 증보 제 8판본 **上권 종합학습편** 1800쪽
② **下권 활용편** 1800쪽 사과 삼전표 · 천지반표 · 과 · 격 체출법 및 각 상의 · 국수 해설 · 24개 항목별 단정 및 대별 교체 적시함

구입 승인 교환 안내 011-9795-1773 담당 양광표 / 계좌번호 : 농협 356-0340-6628-13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

요절복통 여래네 집

#23.옥상 텃밭 이야기2



스튜디오 돌

언젠가부터 아빠의 하루는 옥상에 올라가 텃밭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4월에 씨를 뿌린 상추는 한달 반 정도 지나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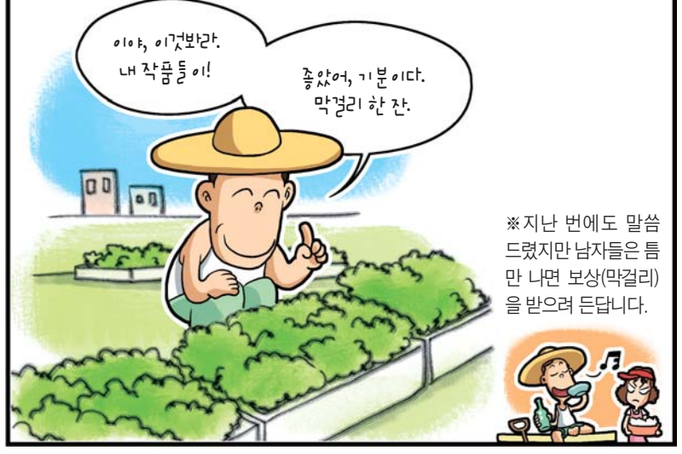
솎아낼 때 보면 신기하게도 엄마보다 아빠가 더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상추는 반 평 정도만 해도 4인 가족이 매일 상추쌈을 싸 먹어야 할 만큼 많이 나온답니다.



어느 작물이 됐건 싹이 트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트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란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은 틈만 나면 보상(막걸리)을 받으려 든답니다.

매일 매일 상추가 자라는 만큼씩 아빠의 어깨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어느 날 아침 드디어 아빠가 첫 상추를 뜯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암튼 그날 아침 여래네 네 식구는 상추쌈을 아주 아주 맛있게 잘 싸 먹었답니다.

그런데 한 번 자라기 시작한 상추는 정신 없이 커간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예, 상추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도 아빠는 빼놓고 먹자니 좀 미안해지네요,

남자들의 유전자 속에는 사냥에 대한 기억만 있지, 살림에 대한 기억은 없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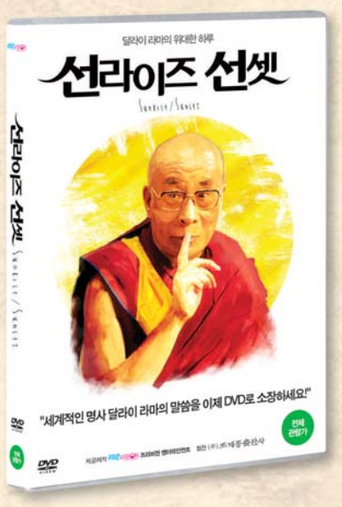
이주일의 화두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벽암록



세계적인 명사 달라이 라마의 말씀을
이제 DVD로 오래오래 간직하세요!





달라이 라마의 위대한 하루
선라이즈 선셋 DVD
Sunrise/Sunset
25,000원 (택배비 별도)

달라이 라마가 일상의 대화에서 직접 전하는
따뜻한 삶의 교훈과 위대한 메시지가 담긴 유일한 영상!!
〈선라이즈 선셋〉 DVD는 뜻깊은 선물과 가치있는 소장품이 될 것입니다!

구입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제공|제작 PREVISION 프리비전 엔터테인먼트

(주)현대에너텍 2010년 최신형

농협융자지정업체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부정 한 번=긍정 다섯 번

불교명상하면 뇌 주도력 생겨… 뇌과학의 집결체 '붓다 브레인'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빨리 감지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건은 긍정적인 사건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 소수의 실패로 무력함을 느끼기는 쉽지만, 성공으로 이 무력함을 메우는 일은 어렵다. 부정적인 사건 하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특히 이런 부정적인 경험은 뇌에 지워지지 않는 자국으로 남는다.

뇌에 각인된 부정적인 정보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신 신경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불교의 명상수련을 연구해 과학과 종교의 합일점을 만들어낸 책이 출간됐다.

신경심리학자이며 명상 지도자인 릭 핸슨(Rick Hanson, Ph. D.)과 신경학자인 리처드 멘디우스(Richard Mendius. MD)는 뇌 과학의 연구 성과에 불교 명상 수련에 근거한 통찰을 더해 지혜로 한걸음씩 다가가게 하는 실천적 지침서를 탄생시켰다.

최근 과학계는 뇌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사실은 마음을 학습하고 조절 · 훈련하면 뇌를 바꿀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저자들은 마음의 조그만 변화가 뇌와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히며, 자신이 주체적으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 가운데 불교의 명상 수련을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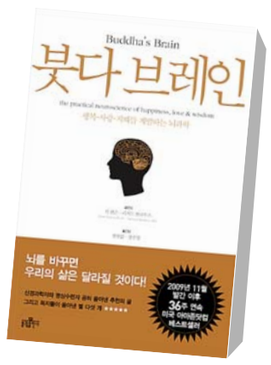
이들은 "불교가 심리학과 신경학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상세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책은 일찍이 탐구해보지 못했던 심리학 · 신경학 그리고 명상수련 전통의 교집합을 통해 해답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행복, 사랑, 지혜라는 마음 상태는 뇌의 어떠한 상태가 기초가 되는가? 두 번째는 이 같은 긍정적인 뇌의 상태를 활성화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겠는가?를 주제로 저자들은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뇌가 어떻게 작용하고 변화하는지 이해하면 사람들이 왜 혼란에 빠지는지, 평온한 계(界)에 어떻게 안착할 수 있는지, 산만함은 왜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뇌를 잘 통제해 마음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경향'이 원초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피 태세가 돼 있다. 이러한 회피는 또 다시 다양한 괴로움을 야기 시켜 불쾌한 긴장 상태를 일으킨다. 긴장상태에서는 보통 자기 성찰이나 명상 수련 등 내적 주의집중은 어렵다. 이는 뇌가 항상 주변을 살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더욱 행복하고 현명하며, 사랑에 넘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연민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기 연민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한다. 스스로의 괴로움에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괴로움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기 연민은 자긍심보다 더 정서적이므로 어려운 상황의 영향력을 줄이고, 자기평가를 유지하며, 괴로움에서 회복하는데 큰 힘을 발휘한다.



이런 자기 연민을 기르고 자기 연민의 신경망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순간을 돌이켜 본다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레 연민을 느끼게 하는 대상을 떠올린다 △이런 연민의 감정을 스스로에게 확장시킨다 △뇌 속 깊이 연민이 흘러드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방법 등이 있다.

200여 편의 저서들을 인용해 뇌과학 연구 성과를 집대성해 보여주는 이 책은 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뇌 활용 사용설명서이다.

책은 단지 우리에게 완벽한 뇌에 다다르기 위해 '수행자'가 되라고 강조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랑에 넘치고, 통찰력을 지니며, 더욱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붓다브레인|릭 핸슨 · 리처드 멘디우스 지음, 장현갑 · 장주영 옮김|불광출판사|1만8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청빈 실천하는 가르침을 주셨다"

시인 소설가 등 16명의 회고 담은 '맑고 아름다운 향기'

사람들은 법정 스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법정 스님은 입적 후에도 <시사저널>에서 조사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 10위 안에 들만큼 종교인, 문학인, 다(茶)인 등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이런 법정 스님이 남긴 발자취와 그 향기를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법정 스님을 추모하는 책이 출간됐다. 시인, 소설가, 문학평론가, 언론인, 종교인 등 우리 사회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6명의 저자들은 법정 스님에 대한 각자의 에피소드들을 다루며 스님을 회고했다.

문학평론가 임헌영씨는 법정 스님을 자연주의인 생태 사상가로 바라보며 스님의 사상과 정신에 대해 이야기 했다. 임헌영씨는 "꽃이 철따라 피고 지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기온과 햇볕과 토양과 분의 영향이라 하겠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생명의 신비요, 자연형상'인 우주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그 해명이 불가능 하다"며 "자연의 생명력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스님의 사상은 <텅 빈 충만>의 '수류화개신 여담'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생태 철학적 상상력의 외연은 사회학적인 쟁점과도 그 맥이 닿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임헌영씨는 "법정 스님은 차분하게 선(禪)의 자세를 취한 채 정치와 과학이 못하는 일을 종교가 담당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은 선승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수필가 권대근씨는 "법정 스님은 종교인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수필가였다"라며 "스님의 수필은 '우회성'적인 기법에서 그 가치의 빛을 발한다. 그 '우회성'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문학적 상상력의 고지에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 수필가들은 앞으로 법정 스님의 수필의 가치 체계를 정립해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희경 수녀는 "<무소유>를 읽고 법정 스님을 수행자로서 마음의 도반으로 삼았다"고 소개했다. "가톨릭의 수도자는 수련기를 거친 후에 청빈, 청결, 순천명의 세 가지 서원을 한다. 이들 서원 가운데 청빈이 무엇인지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무소유>였다"고 덧붙였다.

법정 스님은 불교의 선승이었지만 종교의 계파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 대중의 스승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스님은 '무소유'란 단어 하나로 삶의 위로와 충만함을 느끼게 했다. 세속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초월적 가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짊어진 물질과 욕망의 짐을 잠시라도 내려놓게 했다.



불자이든 아니든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은 스님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했다. 그런 의미에서 책은 스님이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으며,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계신지 되짚어 보게 한다.

맑고 아름다운 향기 | 임헌영 · 박석무 외 14인 지음 | 스테디북 |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종교건축은 진리와 조우하는 공간

전국 38곳 답사… '여기서는 그대 신을 벗어라'

"아빠 저거 비행접시 같애!"

열한 살 난 저자의 딸이 둥그런 외형에 돔(doem) 형식을 한 부산 안국선원을 두고 한 말이다. 산속의 전통 한옥 형식이 아닌 도심 주택가에 자리 잡은 안국선원은 색다른 형태의 도심사찰의 모습이다.

오랫동안 부산일보 문화부 종교담당 현직기자로 몸담고 있는 저자는 전국의 38곳의 종교건축물을 답사하며 나름대로의 감성을 통해 종교건축을 이야기 한다.

저자는 "교회나 사찰 등 종교건축은 본질적으로 다른 건축과는 다르다"라고 소개하며 "종교건축은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 영원함과 무상함이 서로 만나며, 신 혹은 절대자를 향한 예배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기쁨이나 슬픔, 공통과 환희 등 모든 인간적 관심사를 해소하는 안식의 공간"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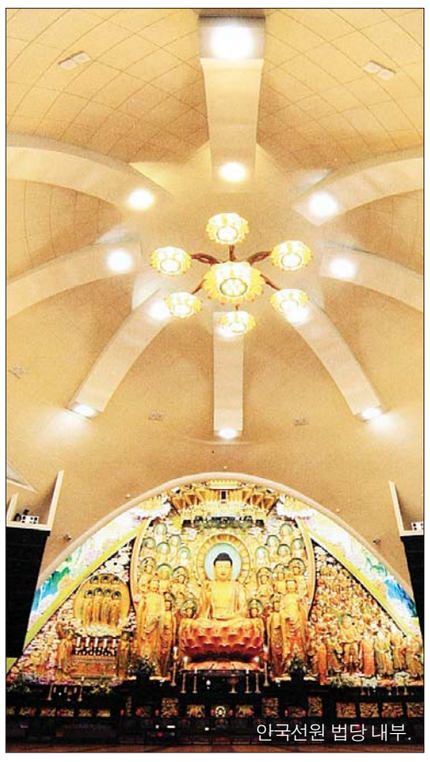
종교인도 아니고, 건축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저자는 건축물에 대한 비평이나 감식 따위를 논하는 행위는 일찌감치 버렸다. 다만 종교건축물의 역사와 특징, 그 건축물만이 갖고 있는 느낌 등을 저자 특유의 필체로 이야기 한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이슬람교 등 각 종교의 건축물들을 찾아 다니며 저자는 '사람들은 저런 건물을 올리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던 걸까?' '하나하나의 문양과 조각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던 걸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답을 찾아 헤맸다고 한다.

종교건축은 영성이나 깨침과 같은 종교적 이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며 당대 최고의 지성과 고도의 기술이 갈무리돼 있는 곳이다. 책장을 넘기면 다양한 건축물들의 사진과 글을 통해 종교의 가르침을 건축물을 통해 느껴볼 수 있다.

여기서는 그대 신을 벗어라 | 임광명 지음 | 클리어마인드 | 1만4800원

이은정 기자


안국선원 법당 내부.

감로탱 화집 15년 만에 재탄생 300부 한정판매

1995년 한정판 1000부 발행과 동시에 완판됐던 국내 최초의 감로탱 화집이 15만에 다시 재탄생했다. 이번 화보집은 16~20세기까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감로탱도 실려, 현존하는 감로탱들을 총망라 했다.

세이쿄지 소장 감로탱(16세기), 코묘지 소장 감로탱(16세기 말), 경북대 박물관 감로탱(17세기), 우학문화재단 감로탱(17세기), 영취산 흥국사 감로탱(18세기), 안국안 감로탱(18세기), 성주사 감로탱(18세기), 표충사 감로탱(18세기), 동화사 감로탱(19세기) 등 기존의 <감로탱> 화보집에 9점의 감로탱이 더 추가돼, 총 53점의 감로탱을 실었다. 특히 복원된 20세기 흥천사 감로탱도 싣고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감로탱은 한 화폭에 많은 인물이 복잡하게 엉켜 있어 이번 화집에는 되도록 많은 세부사진을 실었으며, 초본들도 함께 실어 도상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민중들의 삶속에 스며든 토착 불교미술의 질박한 매력과 시대상에 따른 변천을 한 권의 화집을 통해 훑어볼 수 있다. 300부 한정판매이다. (02)396-3040

감로탱 | 강우방 · 김승희 해설 | 예경 | 35만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이야기 숲을 거닐다	보경	민족사
3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4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5	마중물의 힘	허달	여시아문
6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법성	운주사
7	인과경	현담	선
8	대의단의 타파, 무방법의 방법	성엄	탐구사
9	날마다 웃는 집	법륜	김영사
10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일아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쉬운 염불선이 해탈에의 지름길

덕산 스님 '달마는 서쪽에서 오지 않았다'



양산 통도사 웅진전 외벽에 그려진 달마도(19세기 후반).



#덕산 스님은?

1982년 출가한 덕산(德山) 스님은 참선 정진 중에 만성 신부전증으로 거동조차 어려워진 후 염불수행을 시작했다. 1992년 염불선을 수행하던 청화(1924~2003) 스님을 뵙고 본격적인 염불선을 정진했다. 1992년 8월부터 3000일 용맹정진에 들어간 스님은 1999년 10월 드디어 자나 깨나 한결같은 오매일여(寤寐一如)를 이룬 후 본래의 자성미타(自性彌陀)를 확인한다. 현재 충북 청원 혜은사에서 수행자들을 위한 염불선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수행과 포교,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며, 불자들에게 <금강경> <직지심경> 등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저서에는 <염불선> <직지심경 강의> 등이 있다.

화두(話頭)를 근거로 수행하는 참선법인 간화선은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불성(佛性)을 밝히기 위한 수행방법은 다양하다. 최근 이런 간화선 외에도 염불선을 통해 간화선 못지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달마 대사의 가르침을 통해 염불선을 밝히는 책이 출간됐다.

저자인 덕산 스님은 "기존의 정토 염불과 간화선으로는 자성을 깨닫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에 이제 염불선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일체가 일심(一心)의 바다인 진여자성(眞如自性)에 마음을 두고 염불하고 주력하고 절하면 참선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스님은 "염불선은 염불과 참선의 장점을 결합한 수행방법으로, 한 마디로 일심(一心)을 하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덕산 스님은 1992년 청화 스님과 인연을 맺은 후, 염불선을 정진해 현재 전국의 출 · 재가자들에게 염불선을 지도하고 있다.

스님은 "4조 도신 대사 때에는 염불선이 활성화 됐다. 하지만 6조 혜능 대사 이후 <금강경>을 중심으로 한 수행방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청화 스님은 이미 1990년대에 염불선을 통해 수행을 하셨지만, 당시에 염불선은 한국불교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당시 염불선을 정진하는 청화 스님의 곧은 모습에 반해 스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우리는 단지 도반일 뿐이다'라고 말해 더 존경하게 됐다"며 당시 청화 스님과의 추억을 회고하기도 했다.

덕산 스님은 이러한 염불선을 달마 대사의 마음을 관하는 이치와 방법을 설한 <관심록>, 참선공부를 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지침서인 <혈맥론>, 이치와 행으로 도에 들어가는 요점을 설한 <이입사행론>을 중심으로 선(禪)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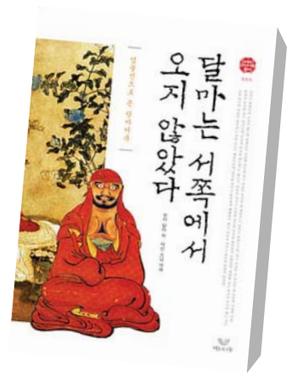
스님은 달마 대사의 어록을 번역해 강의식으로 쉽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역대 많은 성인들이 지혜가 어두운 사람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남겼듯이, 약 160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달마 대사의 가르침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사람들에게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모든 불교 경전이 그렇듯, 한자가 많고 내용이 어려워 <달마록> 역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달마 대사의 가르침을 엮은 책을 쉽게 발견하기 힘들다. 책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에게 책은 그런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기회다. 책은 염불, 절하기, 사경과 같은 다양한 수행법이 모두 달마 스님의 안심(安心) 법문을 체득케 하는 방편임을 말한다. 책에는 30여 컷의 한 · 중 · 일 달마도도 수록돼 있다.

스님은 "중생과 성인이 둘이 아니라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와 생각이 마음 작용 아닌 것이 없으니, 그 마음자리를 알아차리면 생활 속에 도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 우리의 성품이 본래 마음이자 부처요, 선(禪)이라는 것이 달마 어록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덕산 화상은 달마어록을 한데 모아 참선학인들이 지남(指南, 남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강설한다"며 "특히 실참을 통해 도달한 안목으로 언구에 구애받지 않고, 종횡자재로 펼치는 자비법문은 천하 사람의 코를 꿰는 솜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고 말했다.

"도(道)가 무엇입니까?"라는 제자의 질문에 달마 대사는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니라"라고 답했다. 훗날 또 한 제자가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조주 스님은 "뜰 앞의 잣나무니라"라고 말했다. 또 어떤 스님은 운문 스님에게 "불교의 대의(大義)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마른 똥 막대기다"라고 대답했다.

덕산 스님은 "달마 스님이 말씀한 '마음'이나 조주 스님이 답한 '뜰 앞의 잣나무', 운문 스님의 '마른 똥 막대기'라는 대답 모두 마찬가지"라며 "'똥 막대기'나 '부처님의 마음자리'나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질문에 있는 그대로 답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스승과 제자의 마음이 서로 이심전심으로 통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쓰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깨닫지 못해서 실감으로 하지 못할 뿐,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 존재 가운데 마음 아닌 게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스님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일체의 존재가 하나의 마음이며, 일심(一心)을 확실하게 믿고 살면 참선 아닌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달마는 서쪽에서 오지 않았다 | 보리 달마 지음 · 덕산 스님 역해 | 비움과소통 | 1만3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세계적 석학이자 경영 구루(Guru) 짐 콜린스(Jim Collins)가 유수기업의 흥망사를 연구했다.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는 IBM과 제니스 등 60개 기업을 선정하고, 5년간의 조사연구를 거쳐 몰락과 회생의 원인을 분석했다. 짐 콜린스는 1958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태어났다. 스탠퍼드대학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HP와 매킨지 등에서 근무했다. 지금은 실천적 경영원리를 개발하면서 <포천>과 <이코노미스트> <하버드비즈니스리뷰> 등에 글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모토로라의 경우다. 1973년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라는 개념을 만들었던 모토로라는 1990년 중반 매출 급성장에 따른 자만심 때문에 몰락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1990년 중반, 단 10년 만에 연매출을 50억 달러에서 270억 달러로 올렸다. 이어, 1995년 조개껍질 모양을 본떠 만든, 세련된 디자인의 초소형 스타텍(starTAC) 휴대전화 단말기 출시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무선통신 시장은 이미 디지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모토로라는

전술 변경해도 핵심목표는 포기 말라

아날로그 스타텍을 고집했다. 4300만 아날로그 고객이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냐는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감에 가득했으나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 모토로라의 판단 착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996년 이리듐(iriduim) 프로젝트를 단행했다. 세계 어디서나 전화 연결이 가능한 위성 시스템이다. 1996년 전체 수익을 넘어서는 액수를 투자했다. 그러나 결과는 스타텍과 마찬가가지로 실패로 이어졌다.

할인소매업체의 대명사 월마트는 1958년 당시 업계의 대표주자였던 에임스를 벤치마킹해 창업한 회사다. 그런데 월마트의 성공신화는 에임스의 실패 과정의 반면교사(反面敎師)다. 월마트와 에임스는 1973~1986년 주식수익률도 비슷했고, 두 회사 모두 시장 평균보다 9배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그런데 에임스는 망했고, 월마트는 연매출 37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포천> 500대 기업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는 창업자 샘 월튼의 겸양과 배움의 자세에서 찾고 있다. 서민도 부자가 구입하는 것과 같은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핵심가치와 존재이유를 종교와 같은 열의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다. 반면 에임스는 급속한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려고 시도함으로써 원칙 없는 성장이라는 몰락의 단계를 밟아야만 했다.

지난해 LG전자가 인수해 화제가 되었던 제니스(Zenith)는 1950년대 흑백 TV 1등 제조업체로 등장하면서 한 때 누적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0배가 넘을 만큼 엄청난 성장을 거듭했다. 일본 제품이 미국 시장을 잠식할 때도 '제니스, 그 이름에 품질이 담겨 있다'고 할 정도로 제니스의 성공신화는 영원한 듯 했다. 그러나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원칙 없는 성장을 추구하면서, 부채비율이 2배 증가했다. 게다가 승계문제로 내부 진통까지 겪었다. 그런데도 원인 분석을 외부에만 돌렸다. 미국의 불경기와 일본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그리고 노사불안정, 오일쇼크 등이 회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들어와 위기 탈출을 모색했지만, 결국 TV산업에 발목이 잡히면서 보유현금이 총부채의 5% 미만으로 떨어지는 몰락에 처했다.

짐 콜린스는 이어 제록스와 디즈니, 보잉, HP 등 크게 몰락했다가 회복한 기업사례를 제시하면서, 경영 구루다운 충언을 아끼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전술을 변경할지언정 핵심목표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 실패한 사업은 죽이고 심지어 오래 지속했던 사업도 문을 닫아야 하지만 위대한 기업을 만들겠다는 생각만큼은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 짐 콜린스 지음– 김명철 옮김 | 김영사 | 1만3000원

진정화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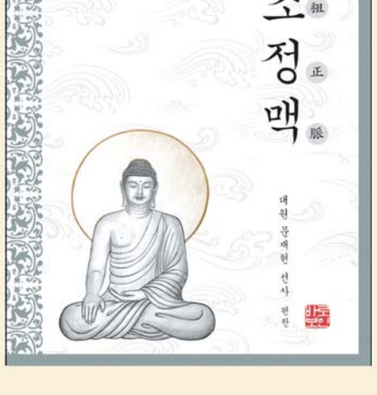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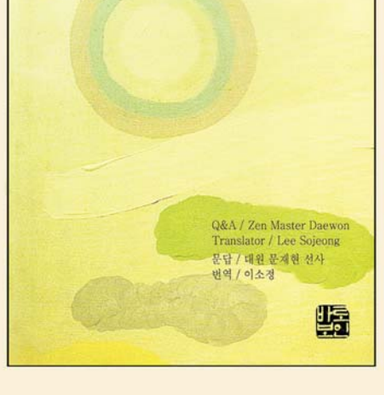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불조정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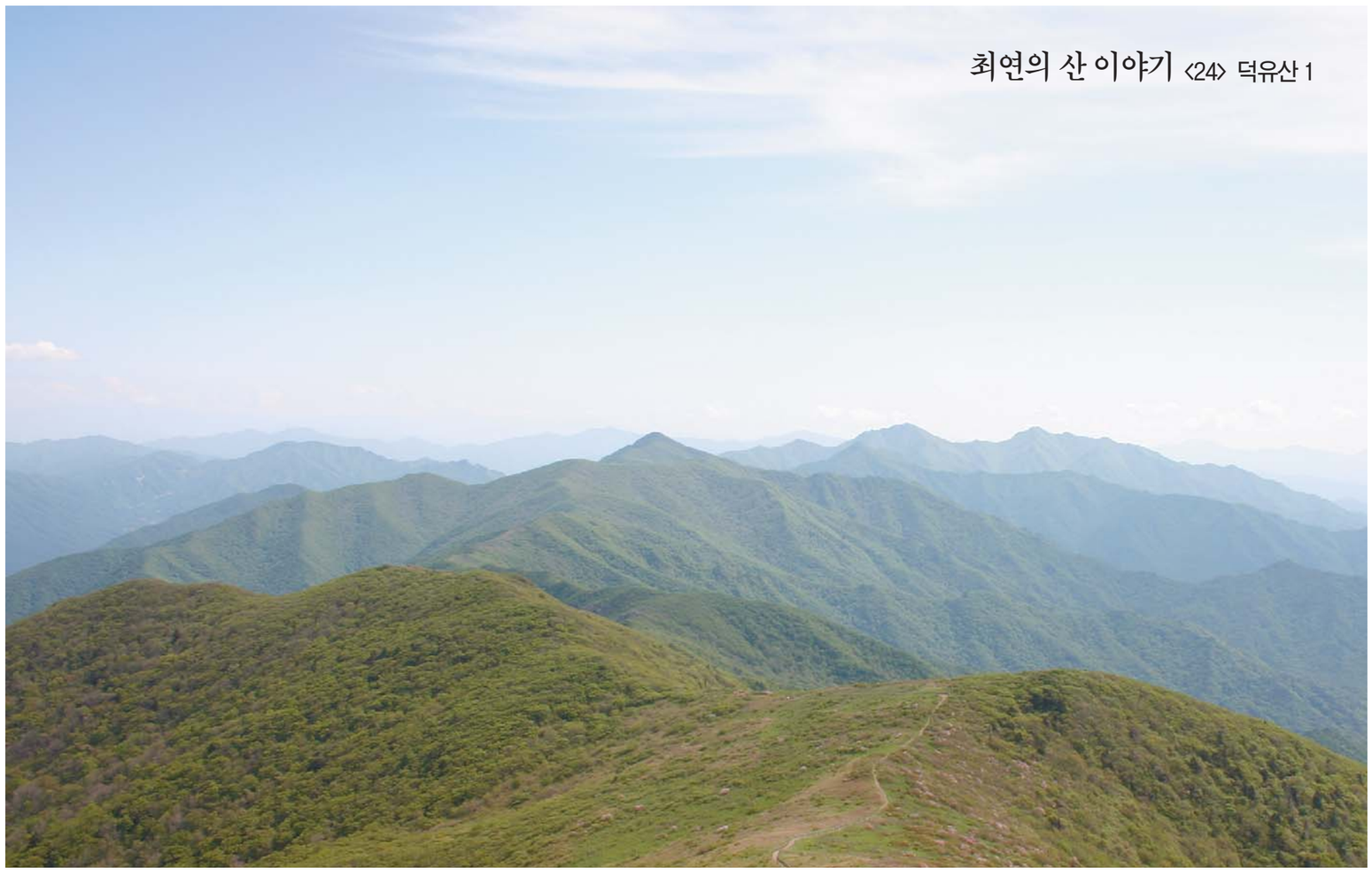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影)과 정맥전법게(正脈傳法偈)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년간 수집, 정리하여 기도와 관조 끝에 완성하였다.

신간! 화두/Hwa-du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평생 동안 제자와 도반들, 선사님들과 나누었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영역하여 우리말과 함께 실어서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소개하고 있다.

도서출판 바로보인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최연의 산 이야기 〈24〉 덕유산 1



중봉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덕유능선.

덕이 풍부하여 복지를 많이 부려놓았구나

〈德〉 〈福地〉

산(山)을 풍수의 관점에서 볼 때 기(氣)를 모아서 돋우는 산과 기를 발산(發散)해서 소진(消盡)하는 산으로 나누는데, 백두대간 상에서 기를 모으고 돋우는 산은 태백산(太白山)과 소백산(小白山) 그리고 덕유산(德裕山)이다.

태백산과 소백산은 백두대간의 중간쯤에 위치하여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 소진된 산줄기의 기운을 크게 모아서 북돋우어 북쪽으로는 오대산, 설악산, 금강산을 지원하고, 서쪽으로는 속리산을 일구고, 남쪽으로는 주왕산을 일으키고 운문산을 거쳐 동래 금정산에 이르는 산줄기를 이룬다.

덕유산은 북쪽으로는 속리산, 남쪽으로는 지리산, 동쪽으로는 가야산, 서쪽으로는 계룡산 등의 명산들을 일어서게 하고 있다. 기를 크게 모으는 데는 태백산과 소백산이 으뜸이지만 기를 거두어 간직하는 데는 덕유산이 으뜸이다. 그래서 양기(養氣), 수단(修丹)하는 사람들은 덕유산을 더 선호했다.

덕유산(1614m)은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에 이어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이다. 백두대간이 속리산을 지나면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가르며 남쪽으로 향하는데 1천m가 넘는 산이 하나도 없이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새가 몸을 잔뜩 움츠린 듯 기운을 안으로 끌어 모으며 몸을 한껏 낮추었다가 황악산을 지나면서 다시 헌걸찬 기상을 내뿜으며 민주지산, 삼도봉, 대덕산을 빚어 올리고 덕유산에 이르러 크게 기세를 떨치고 남은 기운을 한껏 토하여 지리산을 솟구쳐 올린다.

덕유산은 높고 크기만 한 산이 아니다. 덕유(德裕)라는 이름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덕기(德氣)가 풍부한 육산(肉山)이다. 덕유산의 모습은 동쪽과 서쪽이 사뭇 다르다. 동쪽 사면은 계곡이 짧고 바위가 많이 드러나 있어 억센 느낌을 주는데, 서쪽 사면은 계곡이 길고 바위가 없어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덕유산의 정상은 향적봉(香積峰)인데 너부죽하고 두루뭉실한 모양이 향을 쌓아 놓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모양이다. 향적봉을 비롯하여 중봉 등 덕유산의 봉우리들은 참 후덕(厚德)하고 너그럽다.

후덕하게 생긴 산은 화평(和平)한 기운을 내뿜는데 그러한 화평한 기운이 감도는 곳은 사람살기가 좋은 곳이다. 그래서인지 덕유산 주변에는 살기 좋은 복지(福地)가 많다. 덕유산의 동쪽은 김천 땅 지례, 대덕 고을이 서쪽에는 용담(龍潭)과 장계(長溪) 고을이 북쪽으로는 무풍(茂?) 마을이 기대고 있다. 이곳은 높은 산줄기인 백두대간에 기대고 있는 고을들이지만 땅이 기름지고 넓으며 농사지을 물이 풍부하다. 특히 무풍은 덕유산과 대덕산(大德山) 사이에 있는 고을로 십승지(十勝地) 중의 하나이다. 남사고(南師古) 선생은 십승지 중에서도 풍기(?基), 무풍(茂?), 연풍(延?)을 제일 뛰어난 복지로 꼽았다.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남사고는 무풍을 복지라 했다. 동네 바깥 산은 기름진 밭이라 부촌(富村)이 많다. 이 점은 속리산 북쪽의 마을들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백두대간 상에서 삼도봉에서 덕유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는 반원(半圓)을 그리면서 휘어졌는데 무풍은 그 반원의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다. '구천동 삼십삼경(三十三景)'이라는 명소들을 간직한 뛰어난 경관의 구천동 계곡을 품고 있다.

대덕산과 삼봉산에서 발원한 물줄기들은 모두 무주읍에서 합쳐져 금강 상류의 꽤 큰 남대천(南大川)이 되어 서쪽 설천(雪川) 방면으로 굽이쳐 흐르면서 그 유역(流域)에 비교적 넓은 고원분지를 부려놓았는데 그곳에 무풍이 자리잡고 있다. 무풍은 동남쪽이 백두대간으로 막혔고 서쪽과 북쪽도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지맥으로 둘러싸여 완전히 산속에 갇힌 형세이며 외부와 왕래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설천에 바위산을 뚫은 나제통문(羅濟通門) 뿐이다. 터널의 안쪽은 신라 땅 무풍이고 바깥쪽은 백제 땅 주계였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 때문에 삼국시대의 무풍 땅은 백두대간의 서쪽에 있으면서도 백제의 예봉을 막고 신라 땅으로 남아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심산유곡(深山幽谷)의 대명사가 이북의 삼수(三水), 갑산(甲山) 그리고 남한의 무주구천동(茂朱九川洞)을 일컫는 모양이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바보들도 살 수 있는 곳

두 사람이 찾아왔다. 한 사람은 여기서 차를 타고 30여 분 거리에 있는 골짜기 깊은 곳을 찾아들어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산에 거처를 마련했다가 서울로 다시 나간 사람이다. 둘은 친구사이였다.

"얘가 산에서 살 때 내가 부탁을 했었지요. 차 소리 나지 않는 곳이면 되니까 알아보라고요."

교사 출신의 남자는 환갑을 넘어섰으나 늙어보이진 않았다. 그곳도 그가 원했던 만큼 조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가 살던 곳보다는 조용하리라 믿는다. 그쯤에서 만족한다면 계속 살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이나 신문 · 잡지 · 책 등을 통해서 자연은 환상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많다. 그러나 도시의 삶과 마찬가지로 산속의 삶도 그리 만만치 않다. 사람을 멀리하고 인간 이외의 생물 혹은 무생물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을 지향한다고 해도, 사이좋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은 환상에 가깝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다 자기를 보호하며 삶의 즐거움과 번식을 위해 싸우면서 살아간다. 가만히 보면 자연 생태계와 인간사회는 다를 것이 없다. 인간도 타고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뭐가 어떻다는 것인지, 자신들이 사는 세계가 유달리 잔인하고 경쟁적이어서 슬프다고 사람들은 떠든다. 그 반대로, 인간은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스스로 잘났다고 하며 스스로 못났다고 한다.

생각하니 벌써 십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여름 어느 날, 한국방송공사의 '인간극장' 제작진이 찾아왔다. 카메라를 든 사람은 집에 들어서자 곧 촬영을 시작했다. 출판사 편집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방송사 작가와의 통화에서 촬영을 허가한다는 말을 한 뒤였다.

피디는 예상 외로 젊은 여자였다. 생김새도 도시에서 깍쟁이로 자란 티가 역력했다. 시골이나 자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출판사를 다니다 일을 접고 들어왔다면서요?"

"그거 뭐 몇 개월 다녔었죠. 그걸 다녔다고 하기도 뭐하네요."

"그럼 들어오기 전에 뭐하셨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지요."

말을 나눌수록 뭔가 서로 아귀가 맞지 않았다. 괜찮은 출판사에 다니다 그걸 박차고 나와 가족을 이끌고 산속에 들어간 것으로 얘기를 듣거나 발간 예정인 내 산문집을 미리 보고 자기 나름대로 추측을 한 상태에서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멋있는 각본을 머릿속에 구성하고 들어왔는데 서두부터 맞지 않았던 것이다. 피디는 아내에게서라도 자신이 그려놓은 이야기를 찾아보겠다는 듯 질문을 던졌다.

"교사직을 그만 두고 남편을 따라 들어왔다고 하던데, 들어올 때 심정이 어땠어요?"

"그거 잘못 알려졌어요. 학원강사를 했었는데…. 들어온 것도, 그냥 산골 생활도 할 수 있다는 정도였지요. 적극적이지는 않았죠."

"대학이나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저 보통 정도였죠."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아내에게서조차 얻어내지 못하자 피디는 얼굴에서 웃음기를 거두었다. 홀로 사는 할머니 집에서 지내며 촬영하길 원했으나 그 집은 방이 하나밖에 없었다. 대신 우리 집의 허름한 방 하나를 보여주었건만 좋다 싫다 말을 하지 않았다.

"식당에 내려가서 밥 먹고 올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차에 올라탄 사람들이 우우 산 아래로 사라졌다. 외양간을 고쳐 마루를 놓은 곳에 고정시킨 채 녹화 중이었던 카메라 한 대만 남았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촬영기사가 홀로 올라와 카메라를 가지고 내려갔다.

책이 좀 팔려서, 인세를 받아 신세 진 사람한테 갚기도 하고 돈 걱정 접어두고 글 좀 써보자는 얄팍한 계산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 못난 놈이 되게끔 만들었다. 타협이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

최고의 학벌을 갖추고 최고의 직장을 다니며 최고의 삶을 살던 사람이 뜻한 바가 있어 그 성공적인 삶을 내던지고 자연에 귀의해서 뜻깊은 삶을 산다는 얘긴 이제 틀에 박힌 이야기 중에 하나다.

성공한 인간의 얼굴과 돈의 위력은 이미 자연의 품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바보들도 살아갈 만한 공간은 대체 어디 가서 찾으라고.

■ 유승도 (시인)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 02.732.2403~4 F. 02.739.7565
minjoksa@chol.com www.minjoksa.org

보경 스님의 희로애락 세상보기
이야기 숲을 거닐다

동서고금의 이야기 숲에서 건져낸, 보경 스님이 들려주는
삶의 기쁨 · 분노 · 슬픔 · 즐거움의 지혜 !



이야기는 반복에 묘미가 있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삶이 부족한 사람은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다면 깨우칠 때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
특히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영혼을
꿈꾸게 하는 마법과 같다.
상상의 안개가 가득 가득 피어야
정신이 건강해진다.

난 이야기가 좋다!

보경 스님 지음 | 도서출판 민족사
국판 (140×210mm) 280쪽 | 본문 2도 | 값 12,000원

▷ 문의 : TEL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퇴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금광 자미두수 철학원

신통방통 자미두수
자미두수 별점궁합
궁합, 사주, 택일, 작명, 개명,
진로, 사업 (책 판매함)

(김정희 원장 직접 상담)

02)921-1954

018-276-1954

지하철 신설동역 2번출구

역학(명리학).작명학

수강생모집

기초 3개월, 응용(실무) 3개월
개인 및 단체강의
저렴한 비용

문의 전화 : 011-711-5072

범음 범패 염불 교육도량

학인모집 개인지도

천수바라, 오공양작법, 사물,
범음범패(영남소리)
사찰 각종 행사대행

011-243-3587

055)744-5300

타로 수강생 모집

수강료 - 카드결제 가능
한달 배우면 손님 상담 가능.
멀리 계신 분, 전화수강 가능.

010-9068-9123

055)533-9967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파동성명학과 오운육기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세계불교법왕청

봉안(납골당) 안내

- 평생 관리비 무료 -

010-4724-1723

화성, 괴산, 청원 (3곳 중 선택)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사찰 사무장,
공양주 구함

▷전남 화순 소재 사찰

061)373-9041

경관좋은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무실 보살님도 모십니다

▷부산근교 양산

010-3647-0018

미국에서
부전 수행하실
스님모십니다

공양주보살, 사무장 모십니다
(대전 신광사)

010-5792-3000

절에 계실 처사님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

011-9707-3490

가족같이 함께 생활
하시면서 기도하실
비구니스님과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가야산자락 성주

010-3558-9711

기공, 침술, 불무도,
척추교정

불교의식 일체 무료강습

종교법인 비룡정사

031)964-5867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혜봉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비구, 비구니, 법사, 포교사님을 모십니다.
좋은 인연 되시길 바랍니다.**

■ 입종서류 : 본종단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사진 4장, 법당 내외사진 각1장,
주민등록 앞 뒤 복사본.
(무속인 입종은 사양합니다)

■ 입종하시는 즉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하여 드립니다.

■ 각 지역별 종무원장 또는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정릉 보림사

02-919-04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거제도

010-8559-48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괴산

010-6414-56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상운사, 55-65세

033)482-3382

011-764-3661

50대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천년고찰 도성암 .선원

053)614-9167 현풍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어떠한 소망도 이루어지는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 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알 림

조계종 64개 종단통합준비위에서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전화가
통화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종단이 함께 보도되어 사과드립니다.
각 종단의 총무원장스님께서는 큰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위 종단은 통합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8월 18일

조계종 64개 종단 통합준비
대한국불교조계종 사무총장 덕산 02-379-5502

산중에서 같이
수행하면서
오래 같이 함께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10-6852-7688

부전스님 또는
절 운영 잘 하실
스님 모십니다

▷전남 순천시

061)722-9114

011-611-5839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찾아오실 분은 이포나루터 남한강 뚝방 2층 베란다와 정자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미사리에서 40분 소요)

031)774-5067 /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추석, 기일, 영가 천도일에 천도축원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포교당

011-229-6061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사 과 문

귀의 삼보 하옵고

2010년 8월 16일 사단법인 부산한국불교총
연합회에 사퇴하였고 이시간 이후로 자화(한
영수 총무원장)은 문공부 등록 141호 및 모
든 행정 서류를 쓰지 못한다.

본인은 큰 스님으로써 잘 모르고 행한 모든일
을 한국불교조계종에 계시는 큰스님 및 종단
사부대중께 누를 끼쳐 유감을 표합니다.

(사)한국불교조계종 울산 천수사

월정 (한훈석) 합장

울산시 북구 대안동 439번지 / 전화 010-2334-4019

성명 통변을 위주로 공부한다!!
11기생 모집을 위한

무료 공개강의

9월 3일 (금) 오전 11시
구궁성명학 • 사주명리

이름에 관한 모든 것

■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 분 :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학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 분 :
사주보다 쉽고 확실한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 분
· 출가를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
· 역학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안되는 분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기문둔갑에 정통하신 **이광재교수님**이
사주명리, 기문둔갑 강의를 하십니다.

좋은이름연구원 원장 송학 남상규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0-7701-2248

NAVER 은평구 작명 www.goodname114.com

수강생 모집

사주 명리학에 입문후 열심히 하셨으나
공부에 큰 진전이 없어 고민 하시는 분이라면
꼭 참석하셔서 좋은 공부와
인연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개강의

■ 일시 : 2010년 9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 13시

■ 과목 : 명리학, 기문둔갑, 육효, 육임, 기타

■ 강사 : · 전, 호서대 기문 관상학 주임교수
· 전, 동아 · 불교 문화센타 명리학,
기문학 강사
· 전, 사단법인 동양사상연구회 부회장 직강!

■ 장소 : 신림사거리 다비취안경점 홍삼대리점 안골목
정운철학원

■ 전화 : 010-7154-8835
011-241-9681

정 운 철 학 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부지 : 110평
- 가액 : 8억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5외 35평
- 요사 : 25외 1동
- 부지 : 210평
- 가액 : 5억 5천

- 위치 : 경남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4억 5천
  동해바다가 보는
  해맞이자리 경관특급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금정산 자락 사찰

- 총 대지 : 약 230평
- 법당 30평, 주지실 15평(1동)
- 요사채 50평(2층 건물)
- 부산 온천장(금정산) 부근
- 남향, 텃밭 50평, 주차장 확보
- 총금액 : 5억 8천

낙동강 전망 아름다운 대사찰

- 총 대지 : 약 1500평
- 전통법당 : 35평
- 요사채 100평, 대종각, 기타 전각
- 부산근교 신도시, 산세수려
- 계곡물 철철, 주차장 300평(버스진입가)
- 총금액 : 13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대지 : 약 300평
- 법당 : 23평 (90%완성)
- 요사채 : 31평(완공)
- 산신각, 창고
- 가액: 8천만원(절충불가)
- (종공사비는 1억 5천만원소요)
  50년이상된 사찰임

010-9215-4769

불교용품점 양도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010-7631-563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 4층 건물 중 2층
- 법당, 요사채 포함 72평
- 주차장 완비
- 도심속 포교당 최적지임
- 가액: 2천만원 월 70만원
- 인연있는 분 전화바람

011-537-0138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 40평
- 요사채(1,2층) :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4억 3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흥동,
- 2층 55평
- 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
  지장보살신중,
  산신, 영가단 각단후불탱화
- 법당, 스님방, 상담실, 공양간
-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2천만원,시설완벽

010-6278-1488

암자 ·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남 함천
- 부지 710평, 대지 300평
- 신축건물 30평, 창고. 요사채 20평
- 아미타 삼존불, 약사여래불,
  용왕단, 신중단
- 계곡물 흐르고 연못도 있음
- 큰 미륵바위 有
- 가액: 1억 7천만원
  (융자 5천만원) 가격절충
- 전원생활 하실분도 됨

010-8794-12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시 호명면
- 평수: 약 2700중 구교지 약 700평
- 건물: 법당 30평(임) 요사채 30평 2동
- 황토방 3태 산신각
- 탱화: 후불 약 100평, 칠성 약90평
- 신중 104위 88평, 점안식 하지 않았음
- 풍수지리(최적지) 항아리터,사계절 생수
- 가액: 4억 5천
- 꼭 필요하신 분은 토요일. 일요일
  오셔서 상담 바랍니다.

011-526-706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만수산 자락
  (보령 20분, 청양 20분, 부여 30분
  서해고속도로 20분거리
- 부지: 약 1.200평
- (사찰 뒤 도유림. 주차장 완비)
- 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신축건물, 방 4, 주방, 거실)
  산신각 3평, 창고 20평
- 사찰주변 경관및전망이 수려한 기도사찰
- 가액: 2억 8천만원(시설집기포함)
- 거래하실분만 연락바람(부동산사절)

010-3857-3366

한 국 불 사

- 서울근교(APT밀집지역,
  재래시장근접, 교통주차 편하고
  산세수려함
- 대지 약 160평, 2층 목조법당
- 가액: 10억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시내사찰안내

- 위치:인천 동구 박문사거리 근방
- 전철 제물포역 도보 10분거리
- 대지 약 45평
- 1층 단독건물, 법당, 삼존불,
  요사채, 방2, 부엌
- 화장실, 도시가스, 거실, 상담실
- 투자가치성 있음● 융자 6450만원
- 가액: 1억 9천만원

010-4517-377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허심청후문
  온천시장
- 평수 50평, 방2, 주방1, 화장실
- 최고시설, 최고위치, 위치 좋음
- 가액: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247-018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1-297-914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달동
- 평수 약 70평, 3층
- 옥상같이 사용
- 시설완비 주차장 有
- 보증금 전세 2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방문 후 결정

010-2972-9194

사 찰 안 내

- 위치: 제천에서 20분거리
  서울에서 2시간
- 부지: 1650평중 ,
  종교용지 300평,건평 100평
- ,법당,산신각,용신,연못공사중
- 요사채2동 중 1동은 선방및 요양
  시설용도,산세수려하고 명당터
- 가액: 3억 5천만원

010-5114-017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안산시내 상업지역
- 상가 5층 건물의 2층
- (옥상 텃밭 30평 단독사용)
- 평수 50평
- 기본 법당시설 A급 완비
- 소임관계로 급하게안내
  하오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4180-38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이동저수지
- 대지 300평, 건평 60평
- 삼성각 7평, 호신불 108불
- 주차 30대 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215-9749
011-508-146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 5천만원

011-452-837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감만1동
- 4층 상가건물
  재래시장 앞 포교원
- 동불 삼불
- 4층 요사, 3층 법당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천2백만원(주인인정)

010-8108-010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남대로, 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유동인구 많음
- 위치 : A급 ● 법당시설완비
- 상담실1개, 방 1개
- 보증금 1천 5백만원
  합 3600만원 (조절가능)

010-4031-6643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20평, 산신각5평,
  요사채 10평,공양실15평
- 연못, 식물, 5층탑, 해태(2마리)
- 가액 : 9,500만원

011-9004-149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평해읍(해변가)
- 법당1칸, 방2개, 주방1,
  욕실, 산신각
- 대지 58평, 임야 220평
- 가액 : 8천 4백만원(절충가능)

054)787-4228
011-9114-812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신리면 마소리
- 평수 : 법당50평,
  산신각 약15평, 대지 224평
- 법당 마당앞 연못 있고,
  산밑에 위치
- 도로포장완료. 주차장有
- 가액 : 4억

043)852-0533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바로 뒤 산
- 1급 주거지역
- 가액: 평당 90만원 (절충가능)
  사찰터, 전원주택지도 좋음

017-855-6717
017-856-2344
052)247-7344

도 심 포 교 원

- 위치 : 서울 강동구 5호선 도보
  2분거리, 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4층건물중 2층, 45평
- 삼존불, 고급무늬목 상단
- 접견실 1, 방3, 실내화장실1
  (대형)복도화장실 1
- 보증금 1천만원 ,월1백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집기일체, 도시가스
- 도심속 최고자리

011-716-3811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오창면에서 천안시 사이
- 부지 2,000여평
- 법당, 관음전 2동 55평 목조, 단청
- 요사채: 3동 2층건물 1동
- (방 많음).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3억

011-412-246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1-877-7677
010-4876-55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 140평
- 전세 1억 ,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남양주시 별내면 수락산 아래
- 평수 : 67평(7층중 3층 전체)
- 법당 : 34평
  (방4개, 종무소1, 시설 A급)
- 보증금3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몸만 오시면 됨 ● 즉시 법회

011-329-6606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만종리
- 대지 200평 전 합 1,300평
- 신축황토목주택 약 20평 구조
  방 2개 찜질방포함
- 실개울 접, 2차선에서
  800미터 끝지점
- 스님모시고 조용히 계실분
- 가액: 9,500만원

010-6460-131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버스정류장 앞 사거리
- 평수 : 200평
- 법당 : 40평
  (삼존불: 아미타,지장, 관음)
- 공양간 60평
- 가액 7억

010-3012-4404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 대구 부산 IC에서 2분거리
  밀양시내 10분거리
- 전답, 임야 388평, 텃밭 200평
- 법당: 30평(원불: 200불, 부처님 11불)
- 요사채 30평, 산신각 용왕당 10평
- 가액: 2억 2천 5백만원

011-824-5939
010-9418-59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남양주 진접 장현리
- 법당 30평
- 요사 30평(심야보일러)
- 방3, 주방거실, 화장실3
- 공양실(콘테이너)3m×9m
- 대지 264평(시유지: 50평)
- 가액: 5억(융자 2억포함)
- 전세 1억 5천만원(부동산 사절)

010-8710-789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중구 남성로
  약정골목 38번지
- 2층, 3층 합 60평
- 3층 법당, 2층 요사, 방 3
  식당거실
- 인테리어 –황토방 시설A급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461-162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합포구 중성동
- 1층 26평
- 2층 법당 16평
- 공양간 6평
- 가액 : 1억 7천만원.절충가능

011-9542-3579

전통사찰안내

- 위치 : 계룡산 끝자락(동막골)
- 총 2,365
- 대웅전:24평, 삼성각 15평
- 요사채 45평
- 가액: 11억

010-5149-5589

사 찰 안 내

- 위치 : 홍천군 모곡리
- 평수 3000평
- 법당 3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60평, 조립식 40평
- 연못 있음
- 가액: 15억 (답사 후 절충)

011-737-9626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평수 : 약 2만평
- 현재 조립식 2채
- 전기시설 완비, 단독 진입로
- 평수에 관계 없이 허가가능
- 진주 진양호가 보이는 운치 있는 위치
- 가액: 4억(절충가능)

017-547-112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목4동 곰달래길
  목동역 3번 출구, 목동사거리 인접
- 3층 건물중 3층, 옥상(창고) 전체사용
- 방2(침방,친견방),법당,공양간,해우소
- 살림가능한 최신인테리어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비구,비구니스님 포교수행에 최적

010-7283-979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내동
  3층건물중 2층 60평
- 법당: 삼존불, 지장보살, 후불,
  신중, 지장탱화, 인등400,소불 108
- 시설: 방3, 종무소, 산신각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만원 절충가능
- 소임관계로 급하게 안내하오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7450-7712

사 찰 안 내

- 위치: 영천시 고경면
- 한옥기와 1동 外 토담집 1동
- 대지 外 텃밭 450평
- 교통 편리하며 조용하고 수행하기 좋음.
- 가액: 7500만원 . 도인 은신처

010-5039-650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강동구
- 평수: 약 25평(마당 있음)
- 법당 및 거실, 삼존불, 호신불 45불
- 방4, 해우소 2, 주차장완비
- 가액: 전세 300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6310-333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조양동
- 총평수: 880평, 대지 380평,●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40평,(콘크리트건물), 종각1개 약 1평
- 심야전기보일러. CCTV
- 가액: 4억(은행융자 8천만원)

010-3112-351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 요사채 2동중 황토방 1개
-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3억 8천만원

011-816-9104
011-815-910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태안군 태안읍사무실 부근
- 단독주택 조용함(방4, 거실, 욕실)
- 전세 2천으로 시설비 없음
- 스님 영구 해외 이주 관계로
  고가구 및 불교 공예품을 문화원 및
  민속박물관 하시는 스님께 저가로 인수원함
  (팔만대장경외 200권 보시)

010-4285-5914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보은IC 10분 거리
- 대지 200평, 조립식 법당 25평,
  전답 1,6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평당 1만 4천원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현대식 사찰(급)안내

- 1층 사찰음식점,찻집 가능함.시설완벽,
- 건평 180평, 대지 500평, 각종 정원수로 둘러싸여 있음
- 1층 방5개,휴게실,공양간,화장실,원목을 꾸며진 회의실
- 2층 대법당, 제사전용소법당, 방3개, 화장실 2곳, 종무실1곳
- 3층 삼성각, 방1개, 지하 50평
- 파격임대가 2000만원, 월90만
- 시설비 방문 후 결정, 양도 가능

043)853-9798

전원주택 인법당 안내

- 충남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530-1
- 면적 380평, 주거용 주택 38평
  (방 3, 거실1, 주방1, 다용도실1, 화장실 2)
- 컨테이너1, 전 60평, ● 업무용 주택(법당용)
  22평(탕비실1, 화장실2, 주차장완비)
- 인근 대한민국 최대의 예당호와 임존성
- 가액: 3억 8천만원, 전화상담후 가격절충 가능

011-425-6054
041)333-605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85-25
- 양옥주택 건평 30평, 법당, 방2
- 주방, 욕실, 화장실, 응접실
- 몸이 불편한 관계로 부득이 양도 하고자 함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6520-1800
033)531-8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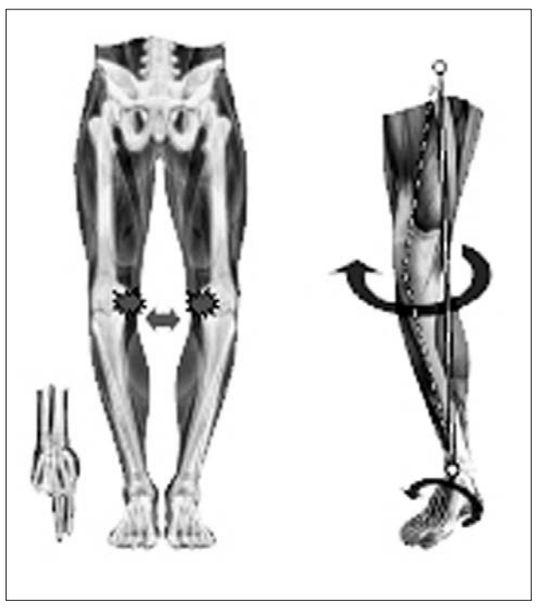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31 무릎 통증

가급적 쪼그려 앉기는 피해야

무릎 통증은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 체형불균형으로 인한 통증이 대표적입니다.

무릎이란 해부학구조로, 슬개골(무릎 덮개뼈)과 대퇴골(넓적다리뼈) 및 경골이 결합된 관절로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약간의 회전 운동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굽이고 펴는 운동으로 제한돼 있으며, 연골로 덮여 있어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반월 모양의 연골 조직이 있어 충격 흡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외에 각종 인대와 슬건근(Hamstring)등의 근육이, 무릎 관절의 안정성과 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무릎은 부드럽게 움직이며 무릎뼈가 앞으로 향하고 정상적인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체형 불균형으로 인한 무릎 통증.

이제 체형불균형으로 인한 무릎통증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체형이 불균형해지면 전신의 연별부분이 비뚤어집니다. 때문에 종아리와 허벅지의 연결부분인 무릎도 비뚤어질 수 있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골반과 척추가 잘못된 생활습관과 자연노화로 인해 휘어지거나 비틀어지게 된다면 자연히 연결부분인 무릎에도 불균형한 비틀림과 휘어짐이 생깁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장시간의 좌상생활과 양반다리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골반의 불균형과 비틀림으로 다리의 휘어짐 및 걸음걸이 이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척추의 휘어짐과 비틀림으로 이어져 좌우의 어깨 비대칭, 일자 목 증상 등 상체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체형불균형이 생기면 인체의 체형 구조상 좌우의 무릎은 상체와 하체의 체중의 비대칭적인 쏠림으로 인해 한쪽 방향의 무릎이 더욱 비틀어지면서 어긋나게 됩니다.

특히 O다리의 경우는 무릎이 안쪽으로 향하고 체중쏠림으로 아픔이 더 큽니다. X다리의 경우는 다리 교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O다리에 비해 비교적 통증은 덜 한편입니다. 일단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 그 증상이 과연 어떠한 원인으로 생겼는지 확실한 원인 파악이 필요 합니다.

체형불균형으로 무릎이 아픈 것은 장기간 지속된 잘못된 생활 자세습관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갑자기 아프기 보다는 가볍게 시작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조금 시큰시큰할 정도로 아프기 시작한 무릎이 병원을 다녔음에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면 무릎의 불균형 또는 다른 부분의 체형 불균형으로 비틀림과 틀어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골반과 척추의 불균형 상태의 유무를 파악해 그에 맞는 체형교정 관리와 맞춤운동을 통한 근력강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좌식생활을 해온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무릎 건강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양인들에 비해 보편적으로 무릎이 많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거나 쪼그리고 앉아 빨래나 청소를 하며 매번 앉고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습관들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예를 들어 쪼그려 앉아 집안일을 하는 경우, 자기 체중의 8배가량의 압력이 무릎에 작용합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이 얼마나 무릎 건강을 위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할 때는 평상시 바르고 균형 잡힌 생활자세 습관과 부단한 체력 운동으로 극복해야합니다. 평상시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튼튼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19 수험생 건강관리

집중된 3시간 공부가 10시간 공부보다 낫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그러나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공부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집중된 3시간의 공부가 10시간의 공부보다 낫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집중해 마무리하는 시간, 모자람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도 충분하다.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산만한 환경이나 정신력 갈등, 체력 저하, 잘못된 식생활 등이 있으나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수험 스트레스는 외부보다는 스스로에서 더 많이 생긴다. 목표치에 미달한 현재의 상황이 스트레스를 주어 오히려 목표에 도달하려는 과정을 망치게 한다.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틈틈이 취하는 휴식, 머리 마사지, 두피(頭皮)자극이 도움이 된다.

신체 앞뒤면의 정중선과 양쪽 귀 끝에서 위로 올린 선과의 만나는 점이 백회혈이다. 백가지의 기운이 모두 모이는 곳이라 해 백회(百會)혈이라 부른다. 백회혈은 두통, 어지러움, 고혈압, 반신불수, 탈항 등 여러 질환에 두루 쓰이는 혈로, 만일 침을 놓아야할 자리가 한 곳 뿐이라면 백회혈을 자극하라는 말도 전해진다. 백회혈 사방에 있는 경혈이 신총(神總)이다. 모여 있는 모든 정신작용을 다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 담겼다. 주먹을 쥐면 손가락 끝에서 둘째 마디가 튀어 나온다. 그 튀어나온 마디로 백회와 신총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압박해 나간다. 같은 힘으로 손끝으로 하는 지압의 효과보다도 훨씬 더 강한 자극을 할 수 있다. 머리가 아프거나 신경계에 이상이 있을 때 백회를 누르면 처음에는 피부 표면이 매우 아프며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몇 차례 자극을 계속하면 예민한 통증이 점점 줄어들면서 오히려 시원해지는 느낌을 얻을 수 있다.



머리 마사지는 수험생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현대불교자료)

백회혈을 중심으로 머리 피부 전체를 두 주먹을 쥐고 누르면서 돌리며 자극해 나간다. 화가 잘 치솟거나, 두통이 자주 오거나, 혈압이 높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권하고 싶은 방법이다.

그 외 눈 꼬리와 귀의 중간에 움푹 파 들어간 곳에 위치한 태양(太陽), 양쪽 눈썹 사이 미간에 위치한 인당(印堂) 또한 뇌압을 떨어뜨리는데 좋은 혈들이다. 머리가 멍하고 지끈지끈한 두통이 있을 때 태양혈을 5초 정도 강하게 눌렀다 떼는 것을 반복하면 좋다. 눈이 피로할 때 인당을 강하게 누르면서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5번 이상 돌리며 마사지를 해주면 안압이 낮아져 눈이 시원해진다.

백회, 신총, 태양, 인당 등의 경혈을 자극함과 아울러 이완요법들이 필요하다. 편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른 다음, 머리에서 발까지 마음속으로 그 부위를 생각하면서 힘을 뺀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의 환해진 모습을 그리며 그 완성된 모습과 분위기에 몰입한다. 편안해질 때까지 몰입한 다음 반대의 순서로 기운을 넣고 호흡을 고른 다음 다시 공부를 계속하는 방법이다.

사람의 뇌는 기상 후 2시간 정도 지나야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수업시간 2시간 전에 기상을 맞추고, 보통 수능이 8시에 시작하므로 생활리듬을 6시에 기상하는 것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 10분 내외의 순간수면은 피로회복과 집중력에 좋다. 꼭 잠을 자지 않더라도 수시로 평안한 자세로 눈을 감는 것도 좋다. 20분 이상의 낮잠은 오히려 피로감을 더할 수 있으므로 순간수면은 20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충분한 숙면, 거르지 않는 아침식사가 필요하다. 뇌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보충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포만감을 느끼면 뇌의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므로 약간 부족한듯 한 식사로 위에 부담을 줄여주고 두뇌활동을 도와야 한다.

뇌에 활력을 주는 식품으로는 참깨 · 호두 · 잣 · 콩 · 다시마 · 호박 등이 예전부터 추천돼 왔다. <신농본초경>에는 "참깨를 과로가 심한 경우에 사용하면, 오장을 보충하고 기력을 돕고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수뇌(髓腦)를 충실히 한다"고 했다.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매우 좋다. 좌우대칭으로 쪼글쪼글하고 주름진 호도는 그 생김새가 뇌와 비슷해 예로부터 뇌를 건강 하게하는 작용이 있다고 했다. 불포화지방산으로 영양이 높아 수험생 피로에 좋고 안정작용도 있어 스트레스, 불면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하루 2~3개 정도가 적당하다. 잣 · 콩 · 다시마 · 호박 모두 수험생의 간식으로 적극 추천되는 식품들이다.

마지막으로 집중력을 흩뜨리는 몸의 요인들, 허약해진 체력을 보강해줘야 한다. 수험생의 대표약인 총명탕은 백복신 · 석창포 · 원지 3가지 약재로 구성된 처방이다. 백복신은 소나무 뿌리에서 기생하는 균류에 의해 생긴 하얀 덩어리, 즉 백복령 중 소나무 뿌리가 관통한 부분을 말하는데, 신(神)이란 이름처럼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강하다. 또한 비장 기능을 도와 소화를 촉진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 원지(遠志)란 '뜻을 원대하게 한다'는 의미로, 그만큼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혈액 속의 노폐물(痰)을 제거해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 결과로 지혜를 돕고 귀와 눈을 밝게 하며, 건망증을 없애고 의지를 강하게 해준다. 석창포는 막혀있는 몸의 기운을 뚫어 귀와 눈을 밝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해 건망증을 치료하고 지혜를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

이 약재들이 두뇌활동과 연관되는 장기인 심장(心臟)과 비장(脾臟)으로 들어가 그 기능을 강화시켜 기억력이 증진되고 머리도 좋아지게 한다. 그 결과 '하루에 1000 마디의 글을 외울 수 있다'고 할만큼 총명을 회복한다.

총명탕의 기본 처방에 각자의 체질에 맞는 여러 약재들이 가미돼야 한다. 청심연자탕 · 청뇌탕 · 귀비탕 계통의 약들은 울화를 해소하고 정신의 안정을 돕는다. 보중익기탕 · 인삼양영탕 등은 허약한 체력을 키우고 지구력을 향상시킨다. 익기총명탕 · 주자독서환 · 장원환 등은 두뇌의 활동을 증진시키는 방향의 처방이며 공진단 · 육공단 등은 화를 내리고 원기를 돋아 저항력과 면역능력을 강화하는 방법들이다. 체질과 증상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약을 쓸 때에는 자신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것을 찾아야 한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집중력 강화 네 가지 포인트

- ▶백회혈 마사지 하고 '꿈은 이루어진다' 자기암시
- ▶10분의 순간수면으로 피로를 푼다.
- ▶참깨 · 호두 · 잣 · 콩 · 다시마 · 호박으로 뇌 활력 충전
- ▶총명탕으로 허약해진 체력보강

'불교와 무술이야기'는 이번 주 쉽니다

佛教儀式(범음, 범패)
學人 모집

효타암에서 불교의식 전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천수경, 행선축원, 상단예불 및 각단예불 등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천수바라, 시식 등

● 모집인원 : 약간 명
● 원서접수 : 2010년 9월 10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9월 1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의식 교육원 효타암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051)524-9406 / 010-6569-1010(법선)

사)대한불교전통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본 불교대학(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작법무)에서는 아래와 같이 범음범패 불교의식반을 모집합니다.

- 아 래 -

1. 과 목 :
▫ 부산영산재 무형문화재 제 9호(나비)작법무
▫ 천수바라 (다게작법, 운심게작법)
▫ 삼신이운, 거불, 복청게 (통영안정사소리)
▫ 사물

2. 교육시간 : 매주 월 · 화요일 (2010년 9월 6일 입교)
오후 1시~3시 : 범음 범패 소리 및 사물 다루는 법
오후 3시~5시 : 제 9호작법무. 천수바라

3. 장 소 : 부산시 북구 만덕1동 447-4 해동사
1) 부산 영산재 무형문화재 보유자 스님 직강
2) 수료기간 1년 (10개월)
3) 성적우수한 학인 무형문화재 작법무 전수장학생 추천
4) 사)대한불교전통예술원 입학식 및 수료식

접수처 : 010-2563-5550 / 051)336-8975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부 해동사
부산영산재 무형문화재 제9호 작법무 연수원

대한불교 만조계종
창종선언문

총무원장 법정(法正)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불국정토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불교 만조계종
창종을 선언합니다.

창종일 불기 2554년 5월 26일(2010년 7월 7일)

비구, 비구니, 법사, 교임,
포교사님을 모십니다

대한불교 만조계종 본부 법계사
구미, 선산 제일 법화경 기도도량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260번지
■전화 054)481-2377 (총무 자비심)

종무법인 (법원등기 제 000006호) 禪農教團
우리불교조계종 입종안내

선농교단 총재 弘山 현불

「 建法幢立宗旨
明明佛勅曹溪是
第一迦葉首傳燈
二十八代西天紀
今朝禪農立家風 」
-永嘉玄覺證道歌中引用-

"法의 깃발 높여 이 道理 세움이여
스승의 밝고 밝은 가르침이라
제일조 가섭의 등불 始發로 하여
스물 여덟 등불이 서천의 불 밝혀
우리 불교 선농의 가풍을 세움이라"

◆ 입 종 비 : 없음
◆ 입종서류 : 이력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 사진 4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법당 안 밖 사진 1매

※각 사찰 인감등록 및 발급 (차량구입 및 부동산 취득시)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 총무원 수월사
■ 주 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번지
■ 사 무 국 : 070)8843-7620
■ 총재직통 : 016-850-1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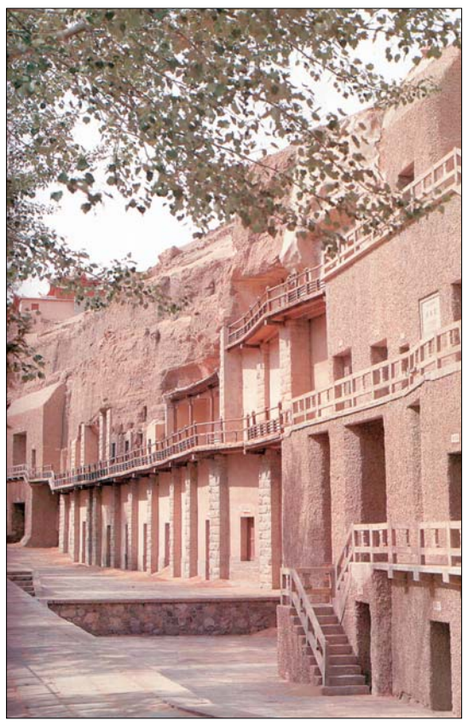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❷ 돈황에서 찾은 불교신앙 1

문화의 교차지서 흐름이 시작되다

불교신앙에 대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머나먼 중국의 서쪽 끝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거치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불교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흔히 중국의 서쪽 끝에 있는 도시를 이야기 하면 돈황(敦煌)이 떠오른다. 외국어 표기대로 하면 둔황이라고 불러야겠지만 돈황이라는 명칭이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름이기에 돈황이라고 표기한다.

돈황하면 돈황석굴이라고 불리는 막고굴(莫高窟)이 떠오른다. 돈황시내로부터 25Km 떨어진 명사산(鳴沙山) 자락 아래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막고굴이 우뚝 서 있다.



막고굴 풍경. 막고굴에 사막의 모래를 막기 위해 쌓아올린 보호벽 덕에 모래바람의 시달림을 피할 수 있었지만 과거에 보여주던 불상의 자태는 철문과 보호벽에 막혀 버렸다. 또 신앙의 대상이었던 막고굴은 이제 관람객들을 위한 장소로 변해버렸다.

돈황은 과거로부터 중국도 서역도 아닌 중간에 걸쳐있는 도시였다. 현재 돈황시는 면적 3.2㎢, 인구 12만 5000명(1998 기준)이다. 중국 감숙성 하서회랑 서쪽 끝 당하(黨河) 유역 사막지대에 있다. 이 도시는 사막의 도시다. 모래바람이 불어대고 한여름에는 그 열기가 사람을 쉬지치게 한다. 돈황에 들어서면 이곳이 중국인지 다른 지역인지 무척이나 혼란스럽다. 사마표가 <송경지(誦經地)> 에 돈황의 뜻을 '화(華)와 융(戎)이 서로 교류하는 곳'이라고 했듯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돈황은 중국과 실크로드의 사이에서 영원히 방황하는 도시가 아닐까.

BC 1세기 초에 한(漢)나라의 무제(武帝)는 이곳을 서역 진출의 전진기지로 삼아 돈황군(敦煌郡)을 설치하고 부근에 옥문관(玉門關) · 양관(陽關)의 두 관문을 설치하는 한편, 둔전병(屯田兵)과 한인(漢人)의 식민을 투입함으로써 돈황은 그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 그 뒤 타림분지의 한 오아시스는 중국에서 가장 서쪽에 자리한 변경도시로 변모하고, 서방과의 접촉지를 차지해 한인 · 페르시아인 · 투르크인 · 인도인 등 여러 종족이 어울려 사는 국제성을 띤 무역도시로 번영했다.

돈황이 발전함에 따라 머나먼 서역으로부터 무수한 물건과 문화가 흘러들어 왔다. 돈황의 개착(開鑿; 석굴을 뚫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사서 상으로 남아있지 않다. 다만 막고굴에 있는 '이회양중수막고굴불감비(李懷讓重修莫高窟佛龕碑)'에 의하면 막고굴은 서기 366년 승려 낙준(樂僔)이 명사산(鳴砂山)과 삼위산(三危山)에 이상한 빛이 있음을 알고 석벽을 파서 굴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14세기까지 약 천년 동안 수많은 굴을 팠으며 그렇게 파게 된 크고 작은 굴의 전체 수가 600개 가량이 된다.

수성암(水成岩)으로 된 석굴이어서 불상은 모두 흙으로 만든 소조상(塑造像)이다. 석굴을 판 사람들은 벽화의 제작에도 힘을 기울였다. 벽화는 표면에 석회를 칠한 벽면 위에 짙은 채색을 했는데, 제작 연대별로는 위(魏)와 수(隋) 당(唐) 송(宋)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작됐다. 그 중에는 청대(淸代)에 들어와서 그린 것들도 있다.

돈황 막고굴이 개굴되기 이전에 돈황지역에 돈황의 이름을 딴 승려가 존재했다. '월지보살(月氏菩薩)'로도 불리웠던 축법호(竺法護)였다. 그는 월지(정확하지는 않지만 쿠샨제국)인의 후예로서 돈황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근본은 실크로드 유목민의 후예였다. 돈황에서 출생한 그는 인도에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장안으로 돌아와 불경 175권을 번역했다.

월지인은 신비의 종족이다. 중국 땅에서 출발해 지금의 간다라지역까지 가서 정착해 쿠샨왕조를 연 그들은 실크로드의 위대한 지배자들 중 하나였다. 이러한 월지인의 후예인 '축법호'를 통해 돈황이 중국도 서역도 아닌 문화의 교차지이자 중국불교를 시작하는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에서 중국에 들어오는 불교신앙의 흐름은 시작되는 것이다. 불교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매우 이질적인 종교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질적인 종교전통이 문화의 교차지에서 섞이면서 보다 동아시아인의 심성에 파고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을 것이다.

문무왕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 47 미황사 코스모스



가을 꽃 코스모스의 이름은 우주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왔다. 우주를 뜻하는 '코스모스(Cosmos)'는 단순히 공간의 의미가 아닌 '질서'와 '조화'의 의미다. 질서와 조화를 이룬 정연하고 완전한 체계를 말한다. 8개의 꽃잎을 반듯하게 피우는 코스모스는 꽃모양에서 그 이름을 얻었다.

몇 해 전 늦은 여름에 미황사를 찾은 적이 있다. 겨울 끝에서 동백을 피우고, 매화를 피우던 마당엔 벌써 코스모스가 하늘거리고 있었다. 아직 한낮의 태양은 뜨거웠지만 여름의 끝에는 어김없이 가을이 오고 있다고 코스모스가 말하고 있었다.

이 우주가 지켜내고 있는 질서를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는 여름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을처럼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9도 종종기묘금가음중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극락세계의 여러 가지의 새와 그들이 내는 아름다운 소리에 대한 설명이다. 주야 6시로 우아한 소리를 내는 백조, 공작 등이 연못가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이 도상은 6쪽 전반부의 1/2에서 6쪽 후반부의 1/2부분까지 이어져 있다.

"사리불아, 극락세계에는 항상 가지가지 기이하고 묘한 여러 빛깔을 가진 백학, 공작, 앵무새, 사리새, 가릉빈가(머리는 사람, 몸은 새의 형상), 공명새 등이 있어서 이 새들이 밤낮 6시로 항상 화평하고 맑은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에서 오근(눈, 귀, 코, 혀, 몸), 오력(불법의 실천에 필요한 다섯 가지의 힘: 신력, 진력, 염력, 정력, 혜력), 칠보리분(칠각분: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닦아야 되는 일곱 가지 방법으로 택법각분, 정진각분, 희각분, 제각분, 사각분, 정각분, 염각분), 팔성도분(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등 법문을 설하는 소리가 흘러나오느니라. 그 나라 중생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며 스님들을 생각하게 되느니라. 사리불아 그대는 저 새들을 죄업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극락세계에는 지옥 ,아귀, 축생 등의 삼악도가 없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아, 불국토에는 삼악도라는 이름조차 없는데 어찌하여 축생인 새가 실제로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여러 새들은 모두가 아미타불께서 법문을 널리 베풀고자 하시는 자비로운 위신력이 변화해서 이루어진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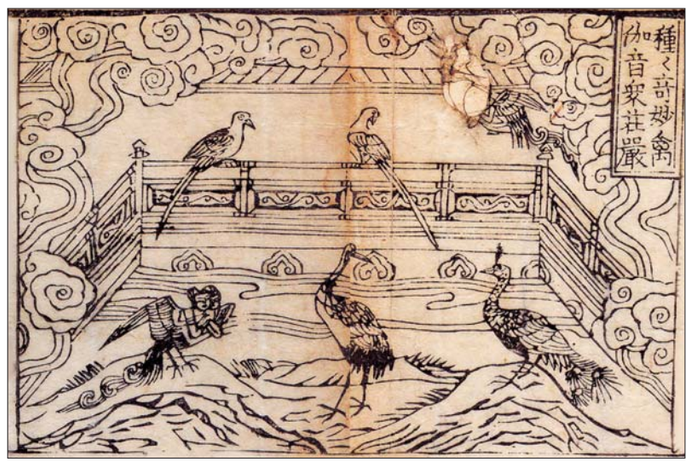
(復次舍利佛 彼國 常有種種奇妙雜色之鳥 舍利迦陵頻伽 共命之鳥 是諸衆鳥 晝夜6時 出和雅音 其音 演暢 五根 五力 七菩提分 八聖道分 如是等法 其土衆生 聞是音已 皆悉念佛 念法 念僧 舍利佛 汝勿謂此鳥 實是罪報所生 所以者何 彼佛國土 無三惡道 舍利佛 其佛國土 尙無惡道之名 何況有實 是諸衆鳥 皆是阿彌陀佛 欲令法音 宣流 變化所作)

극락세계에는 아름다운 새들이 하루에 여섯 번 평화롭고 청아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소리를 듣는 극락세계 중생들은 불법승 삼보를 믿는 마음이 더욱 깊어진다. 이 소리를 전하는 새들은 죄업에 의해 윤회하는 중생들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위신력에 의해 화현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바세계에는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와 듣고 싶지도 않은 소리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듣고 싶은 깨우침의 소리를 평화롭고 청아하게 하루에 여섯 번씩 들을 수 있다는 극락세계에 가고 싶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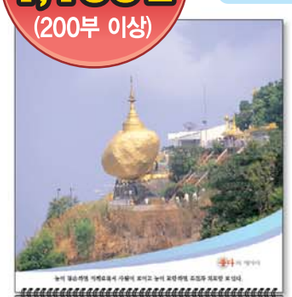
현실세계에서도 이러한 불음이 널리 펴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바로 불국토가 아닌가. 우리 불자 모두는 승속을 막론하고 이 사바세계를 극락정토로 만들고자 서원한 보살이 아닌가. 우리 모두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문이 매일 주야로 여섯 번씩 울릴 수 있도록 보살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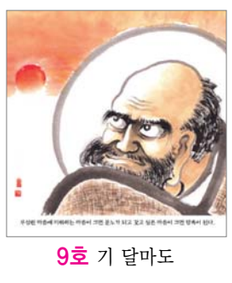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9도 종종기묘금가음중장엄(種種奇妙禽伽音衆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

12절 1,100원 (200부 이상)
정성드려 만든 2011년 불교달력. 주문하시면 최저할인가격으로 보답합니다.
불서보급 37년 전통과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불교달력과 불교용품을 직접 생산, 판매합니다. 달력 1~40호 {국6절 · 12절 · 미니 · 다이어리 · 한지 · 탁상} www.buddhashopping.com


3호 붓다의 메아리


4호 산사로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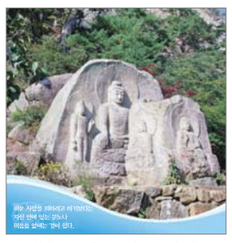

18호 산사에 피는 연화


9호 기 달마도


27호 천진불 (미니)


28호 향기로운 말 (미니)


12호 마음이 머무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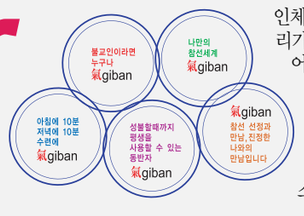

20호 홀로있는 시간


2호 맑은마음


37호 관세음보살 (한지)


32호 아하조타 (다이어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달력규격
국6절(大) 규격:30.5×31.0㎝
12절 규격:25.8×26.5㎝
차걸이 규격: 9.0×15.5㎝
미니 규격: 8.9× 9.5㎝
다이어리 규격: 9.5×13.4㎝
한지 규격:30.0×45.5㎝
탁상 규격:26.2×19.0㎝

달력할인가
국6절 ····· 1,400원(200부이상)
12절 ····· 1,100원(200부이상)
차걸이 ····· 450원(200부이상)
미니 ····· 450원(200부이상)
다이어리 ····· 650원(200부이상)
한지 ····· 1,700원(100부이상)
탁상 ····· 2,200원(100부이상)

◈ 대량주문시 사전 전화 문의 바랍니다~
◈ 달력카다로그, 용품카다로그가 필요하신분은 대표번호로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동진기획 · 붓다쇼핑 검색창에 [붓다쇼핑]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대표번호 : (051)515-8888 H·P : 011-554-2988, 011-879-0889
Tel : (051)515-2988, 555-1087, 508-9377~8, 070-7425-0518
Fax : (051)508-0101 E-mail : dongjin8888@naver.com



대행 스님

모두가 공해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자: 큰스님께서 외국에서 돌아오셔서 아직 여독이 덜 풀리셨습니다만 저희들 법형제를 위해서 피로를 무릅쓰시고 이렇게 법회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문은 생략하고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1(남): 스님께서 법문 중에 마음으로 집에도 가 볼 수 있고, 또 미국에도 가 볼 수 있고, 다른 우주에도 가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집에 가 본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것을 회상해 내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스님께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세히 보고 올 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가 본 미국이나 우주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히 보고 올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큰스님: 그러니까요, 이렇게 마음공부를 하시라고 이끌어 드리는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실천을 하는 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의 선장과 현재 자(子), 내가 통해야 됩니다. 통해야 그거를 잡고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고, 보는 사이 없이 볼 수 있고, 듣는 사이 없이 들을 수 있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상대방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알 수 있고, 각계각층 가지각색의 모든 종류를 같이 이렇게 응(應)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심안으로 봐야 보는 것이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심안으로 봐야 하고, 심안의 귀로 들어야 하고, 심안의 신족통, 즉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는 사이가 없이 알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심안의 내 선장의 주장자를 딱 쥐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기둥을 잡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해서. 내 심안의 기둥은 하늘과 진리가 상통이 돼 있고 세상과 모두가 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잡지 않는다면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깜깜하죠. 깜깜하니까 50% 반쪽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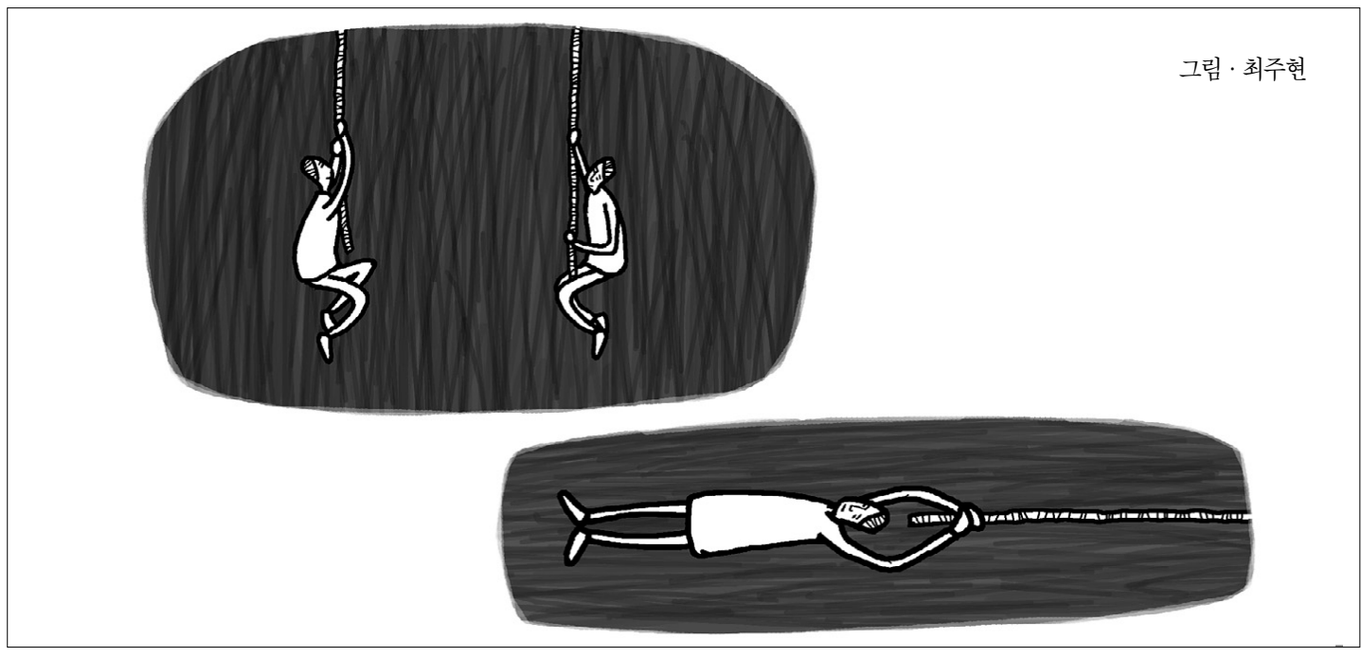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100%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고,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도리를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서 너를 믿고 너를 깨달아라. 네 뿌리를 믿지 않는다면 네 나무에서 꽃이 필 수도 없거니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또한 제 나무에서 무르익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게 이익을 줄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자기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니까 공덕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공생(共生)이면서 공심(共心) · 공용(共用) · 공체(共體) · 공식화(共食化) 하고 돌아가는 이 내면의 세계와 외부의 세계가 다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한 줄 알고, 겸손해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력을 길러라 이거지, 괜히 왔다 갔다 하고 목탁이나 치고 염불이나 하고 경이나 읽고 이론이나 캐고 이러려면 뭣 하러 여기 이렇게 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각양각색의 종교가 전부 타의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외국에 다니면서도 보았는데,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자의에서, 제 뿌리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타의에서, 꼭 이름, 형상 이런 걸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줄, 그 줄을 바로 반야줄이라고 일컬어 말합니다. 이 반야줄을 잡지 못한다면, 깜깜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못 볼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을 갖다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흙탕물이 나와서 이거를 어떡하면 좋은가 하고 내가 아무리 방방방방 뛰어도 그 물을 맑은 물로 대치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안의 그 내면세계를 꼭 믿고, '그 한 구멍밖에는 없다. 나고 드는 생사가 한 구멍밖에 없어서 그 구멍에서 모두가 나오는 거니까 그 구멍에다 다시 입력을 해라.' 고 합니다. 그런다면은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현실에 자꾸 입력이 되면은 그것이 새롭게 모두 정리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질문자1(남): 다음은, 책을 보니까 우주 다른 별에는 현재 지구보다 과학문명이 상당히 발전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우주선을 3일 만에 만들어서 순식간에 타고 와서 없애 버리고, 또 필요하면 다시 만들고 그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을 현재 지구에다가 도입을 할 수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것도 마음의 진화가 돼서 마음의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마음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들 아예 마음의 세계는, 정신세계는 무의미하게 생각해 버리고, 지금 현실의 물질세계로만 올라가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쉽게 살 수도 있는 것이건만 너무 복잡다단하게, 그냥 사람이 방방 뛰고 온통 갈기갈기 찢어지고 이러니까 병이 들어 죽게 되고, 삶의 보람이 없이 이렇게 낙오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도리를 알면 신선하게 살다가 신선하게, 우리가 헌 옷 벗어서 빨듯이 그냥 헌 옷 벗어서 놓고 아주 세련된 새 옷을 입고서 등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알면 여기 앉아서도 그 도리를 다 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문명 시대가, 다른 게 문명 시대가 아니라 정신세계의 문명 시대가 아쉬운 겁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신세계가 좀더 발전이 되지 않는다면 이 지금 과학을 연구하는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연구 재료를 자아낼 수 있는 내 자력이 있어야 연구를 해내지, 천만금을 갖다 준대도 그 연구를 못 해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연구를 해내는 사람은 그래도 심안이 조금 틔어서 이렇게, 자력이 틔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전생에서부터, 이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전생으로부터 배워 온 그 자력의 능력, 앙금이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1(남):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인공에 관(觀)하는 방법으로다가 수행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스님의 전생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 전생에도 주인공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전에는 다른 공부 방법으로 현재를 이루셨는지 저희 공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큰스님: 이거 보세요. 지금 댁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육신과 정신계가, 이 싹과 뿌리가 같이 붙어 있는 가운데서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음파가, 지금 향의 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공부를 하느냐는 소리는 마세요. 왜냐하면 육신과 정신계가 둘이 아니게 맞붙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그런 가운데에 작용이 있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오직 믿고 간다면, 그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가고, 말하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움죽거리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자꾸 변화돼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어머니!" 하면 아들이 되고,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또는 "얘, 아무개야!" 부르면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화(化)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를 터득하게 되는 거죠.

질문자1(남):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는데 스님께서 전에 수행하셨던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스님: 그 방법은 벌써 지나간 방법입니다. 지나갔으니까 없고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바로 여러분 속에 벌써 짊어지고 있어서, 전생으로부터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어진 그 인연

☞26면으로 계속

도서출판 탐구사 전화 02) 702-3557 팩스 02) 702-3558 구입처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 24, 운주사, 주요 불교서점

탐구사



한국불교가 몰랐던
중국(대만) 선불교의 진수!

중국에서는 선종의 맥이 끊어졌고 선종의 정통은 한국에 있다고 믿은 것은 한국 불교도들의 근거 없는 신화였다.



대만을 중심으로 일약 부흥하는 중국선의 중심인물 성엄선사

심안의 내 선장의 주장자를 딱 쥐어야 합니다

☞25면에서 계속

들이 지금 몸속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 난자를 빌리고, 자기 영혼의 뿌리와 인연 된 그 생명들이 지금 혼합이 돼서 같이 작용을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부터 알아야 외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층 3층 집을 지어야 할 텐데, 아래층은 짓지 않고 2층하고 3층을 지으려니 그게 지어집니까? 그러니 나부터 안다는 것은 기초부터 다져서 주춧돌을 놓고 아래층부터 지어야 2층이 올라가고 3층이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모두 나부터 알아야 할 텐데, 나를 내가 모르고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으며, 내가 이 몸뚱이 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이끌어 갑니까? 그 생명들로 해서 모든 것이 진화돼 가지고 털구멍을 들고 나면서, 분자가 됐다가 입자가 됐다가 분열이 됐다가 한데 합쳤다가, 작용을 무수히 하는 묘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질문자1(남): 네, 감사합니다.

큰스님: 예.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질문과 체험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는 만듭시다.

질문자2(남): 네,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나온 것은 스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다가 보니 너무 답답해서…. 스님, 제가 스님 말씀대로 그가 하는 것을 믿고 몽땅 엎애 버리면서까지도 정말 믿는데, 너무 힘듭니다. 또 제 안을 믿어야 되는데 왜 또 스님께 와서 여쭈어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큰스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잡아 놓고 공부하는데 질문, 체험 이런 거를 서로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설법만 하니까 여러분과 내가 너무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보세요. 싹은 무조건 자기 뿌리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싹 한 잎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런다면 그 뿌리는 뭐라고 할까요? 싹은 뿌리로부터만 나올 수 있고, 뿌리가 썩질 않아야만이 싹도 싱싱하게 푸르게 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능력을 가진 뿌리를 놔두고도 그 싹은 이파리 하나하나가 바람에 날리면 괜히 '아이고, 이거 바람에 또 날리는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뿌리가 있는데 뭐가 힘이 듭니까?

나무에 이파리가 많듯이 몸 안에도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몸 안의 생명체들이 제가끔 댁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 그 마음의 선장 뿌리한테다 모든 거를 맡겨 놓아야 자동적으로 거기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지, 댁이 이론으로 말로 아무리 공론을 해도 그것은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의 의식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마음이 다스려야 다스려지는 거지, 내가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육안, 또는 그냥 이론적인 말로는 아무리 발버둥이쳐도 통신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들의 의식이 전자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입력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거를 마음의 선장한테다가 일임하면 마음의 선장만이 그걸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선장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런다면, 나는 위로는 마음의 선장을 모시고 아래로는 모든 생명들의 의식을, 지금 생명들을 다 거느리고 사는 집합소며 심부름꾼이며 관리인이다 이겁니다.

마음의 선장 뿌리한테다 모든 거를 맡겨놓아야
자동적으로 거기서 다스릴 수 있는 거지
이론적인 말로는 통신이 되질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가 공생이지 댁의 몸뚱이에서 생명이 하나라도 튀어나와서 따로 살 수 있습니까? 따로 살지 않죠? 댁의 몸속에서 다 같이 살죠? 그렇다면 공생이죠?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거 먹을 때, 어떤 거 볼 때, 어떤 거 할 때, 어떤 거 들을 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나 혼자만이 산다고 하며, 나 혼자만이 똥을 누었다고 하며, 나 혼자만이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모든 거를 합해서 다스리면서 돌아가는 이 주인공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뿌리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만 믿고 거기다가 맡기면 다 거기서 다스려서 해 줄 텐데, 왜 관리인 심부름꾼이 그렇게 참섭을 합니까? 일종의 종과 같은 건데. 서로가 공생이고 공용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서로가 소임을 맡아서 제가끔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이 말입니다. 나사가 하나만 빠져도 기계가 돌아가지 않듯이, 지금 공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 혼자만 산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 혼자 발버둥이를 치고 애쓸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거기서,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라.' 하고 거기에 일임해 버려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한마음 속에서 안되게 한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되게 해서 네 몸을 건강하게 끌고 가야지 않아?' 하고 맡기는 겁니다. 전부! 나는 없어요. 나 혼자가 없어요. 공했단 말입니다, 모두가. '공(空)이 색(色)이요, 색이 공이니라. 모두가 공해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 답답하다 그런다면 답답한 거는 그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시원한 거는 그 자리에서 안 나옵니까? 그러니 시원한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답답한 거는 그것도 그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답답하지 않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내던지면 될 거를 왜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경향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경을 보지 마라.' 이러는 것은 다 이 자리를 잡고 내가 나를 발견한 뒤에 경을 봐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 이게 흔들리지를 않지, 요게 틀리고 요게 옳고 요게 그르고 이걸 따지다 보면 이 공부는 백 년 천 년이 가도 못합니다. 이건 글을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론으로 말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서 의논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오는 것 막지 말고 가는 거 잡지도 말고 그대로 그대로, 바깥에서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대치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마음의 자리를 완전히 잡고, 내가 심안의 소리를 듣고, 심안의 소리가 뜻으로 나오고 이렇게 모든 게 활용이 됐을 때 그때에 경을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이것은 이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그것도 옳은 것 같고…,' 이렇게 되니 이거는 뭐 천부당만부당해요. 그래서 시장에 가더라도 나한테 없는 것만 사 오랬지, 누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것 보고 탐내랬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질문자2(남): 네,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님이 전번 법회 때 지금 현재 제가 병신이듯이 병신에 대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다 하고 믿고서 그냥 팽개치고 그렇게 매달리고 하면서도 그 나머지 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데, 제가 지금 하는 대로 그냥 나가면 언젠가는 되는 것인지 그런 게 답답해서….

큰스님: 왜 걱정을 합니까? 쇠든지 금이든지 용광로에다 그대로 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에 물질적인 모두가 그거와 똑같습니다. 거기다 맡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바꾸어져서 나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모두가 들고 나면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믿어서 맡기지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뚱이가 배라면 배를 끌고 가는 선장이 있느니라. 그런데 그 배 안에 중생들이 잔뜩 들어 있느니라. 그런데 중생들이 이리 왈 저리 왈, 나도 옳다 너도 옳다 하고 나서게 되면 배가 뒤집히느니라. 그래서 가서 닿을 데를 닿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두 배라면 배 속에 지금 중생들이 잔뜩 타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도 중생들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의 선장이 잘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아니 되죠. 중생들이 이리 왈 저리 왈, 이것도 나서고 저것도 나서고, 팥죽 솥의 팥죽 방울이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바로 거기다.' 하고 맡겨 놔야 이게 잔잔하게 다스려지죠. 그래야 배는 닿아야 할 곳에 가서 닿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습니다. 먼저 기초부터 다지고 또 주춧돌을 놓고, 아래층부터 잘 다스려서 잘 지어 놔야 위층은 저절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나중은 생각 마시고, 우선에 내 선장한테 모든 거를 일임하고 내가 체험하도록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진짜로 믿고 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질문자2(남): 예, 그리고 스님께서 소켓 얘길 하셨는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서 스님과 서로 마음이 맞아서 스파크되는 순간에 한마음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제 주인공과 스님이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꾸 스님을 찾으려고 할 때 '주인공을 찾으면 되는데 왜 스님을 찾느냐.' 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가 조금 혼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큰스님: 하하하…, 그거요. 나무와 나무, 일체 만물만생이 다 때에 따라서 찾는 것이지 아무 때나 찾는 게 아닙니다. 부부지간도 그렇고 자식지간도 그렇고, 가족이 때에 따라서 내가 꼭 만나야겠다 이래야 만나지고, 이 말을 꼭 해야겠다 해야 하는 거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데 그냥 찾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스님이 이거는 꼭 들어야 되겠다 할 때에 자기 마음과…, 이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영(0)에다 영을 넣으면 영 하나로 돼 버리고, 그것도 영이죠. 그러니 이 마음이 있는 사이 없이 있고, 하는 사이 없이 하고 진실로 현재에 나오는 사이 없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니라 급할 때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하혈을 막 하는데 급하니까 "스님, 스님 마음 좀 내 주세요." 하고 전화를 했을 때 그때나 찾는 거지, 예를 들어서 꼭 그거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천차만별에 해당이 되죠. 사람마다 때에 따라서 급한 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자기 마음이 부족한 듯한 생각이 있으면, 무거운 것은 한 손으로 드는 거보다 두 손으로 들어야만이 거뜬히 들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도 다 같이, 상황에 따라서 한 찰나에 일체제불이 들고 나신다 이런 겁니다. 일체 만물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응신(應身)이 돼서 나투어 주시는 겁니다. 그 나툰다는 것이 같이 응해서 하나가 돼 준다 이 소리거든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8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ION
LEADER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



불자 세상보기

김광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경술국치와 한국불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한국은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 식민지로 전락돼 민족의 정체성도 사라지기 일보 직전에 처했다. 이런 비참한 역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 치명적인 상흔을 끼쳤다. 이런 구도는 불교에도 동일하게 미쳤다. 그래서 일제하의 불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될 역사이다.

때문에 일제 강점기의 불교는 '식민지 불교'라고 지칭된다. 식민지 불교는 당시 불교계의 체질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켰고, 그 유산은 지금도 불교의 각 분야에 남아 있다. 식민지 불교는 일제의 통치에 억압, 일본불교의 유입, 일제 불교정책 및 일본불교에 저항, 전통불교의 퇴진 및 수호를 의미한다. 식민지 불교가 끼친 불교 내부의 영향은 다양하였다. 일제 식민지 시기의 불교에서는 일제가 불교를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관리하여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이 변질되었다. 그리고 조선후기 산중불교를 탈피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한국불교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측면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식민지 불교의 내용, 성격, 영향, 문제점 등은 이제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우선 그 영향 및 내용을 제시한다.

그 영향으로 우선적으로 거론할 것은 불교 근대화에 자극을 주었다는 것이다. 즉, 불교 근대적인 제도의 수용을 촉진케 하였다. 조선시대의 산중불교에서 탈피하여 대중불교로 나가려는 의식과 맞물려 종헌, 종법, 재단법인, 본말사 제도 등 근대적인 종단으로 활동케 하는 조직과 행정을 경험했다. 동시에 불교 근대화, 불교 현대화를 위한 불교혁신론을 잉태하게 되었다. 이런 흐름에서 개항기 이후 불교의 배척이 사라지고 승려 인권이 고양되면서 불교는 복권되었다. 이런 변화는 불교가 사회와 대중 속으로 다가가기 위한 기존 불교의 관행 및 의식을 개혁하려는 혁신론을 일어나게 추동했다.

불교근대화는 근대불교학의 수용과 포교 활성화를 가져왔다. 일본불교가 불교 발전의 모델로 인식되면서 승려의 일본유학이 보편화되었다. 일본유학은 근대불교학의 수용과 토착화를 촉진케 했다. 그로 인해 전통적인 강원과 선원의 교육이 후퇴하고, 승려들이 세속화 풍조가 팽배했다. 그리고 학교와 포교당이 세워지고 불교 잡지와 불교 책자가 발간되었다. 이는 불교 포교의 성과물인데, 일본불교의 영향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성장과 포교방법에서 자극받은 것이다.

그러나 전통불교의 퇴진 및 반불교적인 정서를 고착화시켰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불교계에 권력 지향의 속성이 노골화되어 공권력 의존, 주지권력의 집중, 친일승려의 등장, 선거문화 이식, 사찰재산 탕진, 명리추구, 승려간의 갈등, 불교 공동체의 이완 등을 가져왔다. 나아가서는 불교의 세속화가 가속화되었다. 이는 불교도 사회의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불교사회화의 논리에서 나왔다. 승려들의 막행막식이 자행되고 승려결혼이 수용되었음은 대표적인 예증이다. 대처승과 은처승은 그 부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성찰케 하였음은 다행이었다. 일제는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한국불교를 관리하였기에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은 후퇴하였다. 불교인들이 저항하였지만 일제의 강압으로 그는 가시밭길이었다. 일본불교와 차별적인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니 종합불교, 호국불교, 민족불교, 정화불교는 여기에서 나왔다. 동시에 식민지 불교의 체질이 불교의 관행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이처럼 일제 강점은 한국불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제는 식민지불교의 잔재를 극복하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는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불교계 종단 및 구성원들에게서 식민지 불교의 실체와 성격을 올바르게 인식하려는 성찰을 찾을 수 없다. 부끄럽고, 아픈 역사를 정면으로 대하려는 건강한 역사의식이 부재하다. 그 시기의 긍정, 부정을 다 끌어안고 가야한다. 우리의 불교사를 우리가 돌보지 않고, 팽개칠 때에 우리의 불교사는 존재할 수 없다.



사부대중 칼럼-자원봉사

이혜숙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낮아지는 종교인 봉사참여율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현황하면, 대개 자원봉사자의 규모와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분야와 봉사자 관리제도와 같은 것들이 소개될 수 있다. 이는 현황을 파악하는 경로가 다양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불자로서 가장 자극적인 내용은 자원봉사자의 종교별 구성비가 발표될 때 불자의 비중이 작다는 것인데 그 자료가 어떻게 조사된 것인지를 먼저 살펴 볼 필요도 있다.

통상의 사회조사(예: KGSS)와 같은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설문은 자기기입 혹은 면접응답 방식으로 응답자의 봉사활동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사회조사 통계의 경우와 비교해 사회복지기관에서 인증 관리한 자원봉사 통계나 공식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 관리한 자원봉사 통계가 조금은 더 근사치라고 할 수 있다.

1996년부터 정부(지금의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설립하기 시작한 자원봉사센터는 2008년 말 현재 전국에 248개소 가 있다. 최근에는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도 발족됐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수는 439만 7000여 명이다. 여성(57%)이 남성(43%)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10대(25%)와 40대(21%)가 많고, 30대(15%)와 20대 순이다. 직업별로는 중고생(18%)이 가장 많고 주부(16%), 회사원(7%), 대학생(5%), 자영업자(5%) 순이다. 등록된 봉사자의 활동은 연인원 1400만 명에 이르며, 사회복지분야에서 381만 명(27%), 환경분야 141만 명 (10%), 공공기관 84만 명(6%) 등이다. 등록자중 2008년에 1회 이상 활동한 사람은 등록자의 44%에 불과하다(2008년 말 현재, http://www.kfvc.or.kr)

2001년에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제(VMS)는 2010년 현재 전국에 7155개 소의 인증센터와 1만 7794명의 인증요원(자원봉사관리요원), 1108개의 지역사회봉사단을 갖추고 있다. 인증센터란 공식 인증요원을 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서 봉사자의 활동내역을 중앙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누적 관리하는 곳이다. 2010년 인증 봉사자는 약 89만 8240명, 그 중 학생이 절반 이상이며 다음으로 주부가 많다.

봉사활동은 노인복지시설에서 가장 많고 다음이 장애인시설-복지관-아동시설의 순이다(http://www.vms.or.kr).

간략하게 살펴본 우리나라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에서 주목할 점은, 봉사자의 절대다수가 학점의무에 연관된 중고생 및 대학생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봉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성인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또, 이미 등록된 봉사자 가운데서도 연 1회의 봉사도 하지 않는 숫자가 절반을 넘는다. 요컨대, 충분한 자발성과 지속성이 결여되고, 순수민간보다는 정부주도의 관리체계에, 봉사활동은 사회복지분야에 치중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어떤 기관에도 등록하지 않고 인연 따라 무주상의 봉사를 하는 무명의 봉사자들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런 까닭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책임성이나 전문성을 물을 수 있는 자원봉사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봉사자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성인 봉사자 가운데서는 전업주부가 월등히 많다. 성인남성들이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파악해야만 대책이 설 것이다.

외국에 비해서 일반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다는 단순비교 외에, 우리나라 종교인의 봉사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다(http://www.volunteer21.org)는 통계도 깊이 반성돼야 한다.

종교는 무엇보다도 봉사와 나눔을 가르치지 않는가. 불교계는 불자들의 자원봉사 실태를 독자적으로 분석하거나, 그에 따라 각별한 봉사활동 증진대책을 세우는 것 같지 않다. 시절은 이미 지구촌 공동체로 확대되었는데 불교계에서 국제봉사단의 활약 소식이 크게 들리지 않는 점도 아쉬움이 큰 문제다. 한국불교의 대표격인 조계종 직할 자원봉사단은 현재 2000명이고 산하지부 봉사단까지 합하면 2만여 명이라는데(2010년 8월 현재, www.mahayana.or.kr), 그 정도면 대한민국의 불자인구 비율을 생각할 때 적정한 숫자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자원봉사는 부처님이 강조한 이타행 · 자비행 중 하나이다. 해답은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에 있다.

사 설

화쟁, 우리 사회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

화쟁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어가는 유용한 가르침이 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 불교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당위가 곧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강석도 제련을 거쳐야 보화가 되듯 쪼임과 담금질이 없이는 그저 돌멩이일 뿐이다. 화쟁도 우리의 삶 속에 배어들어 생각하고 말하는 중에 발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조한 개념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불교의 가르침이 절 문 안에서 불자들 사이에서만 유통되는 금과옥조이어서는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17일 '화쟁사상과 사회갈등 해소'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화쟁의 문화화'를 위한 발걸음을 뗐다. 불교사에 기록될만한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한국불교사의 주류는 왕실불교와 산중불교라는 두 극단의 자취를 남겼는데, 화쟁위원회를 통해 비로소 우리 사회의 한복판에 스스로를 세운 것이다.

화쟁위원회는 지금 4대강 개발과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을 둘러싼 갈등을 의제로 삼아 당사자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듣고 화쟁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화쟁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가부 또는 찬반을 가르는 기구가 아니다. 갈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라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자임한 기구이다.

어느 사회나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회피한다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 발전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느냐는 것이 그 사회의 숨길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화쟁은 일상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 화쟁의 문화화를 위한 종교인, 연구자, 문화예술인 등의 어울림마당이 더 펼쳐져야 한다.

왕흥사지, 4대강에 휩쓸려선 안된다

4대강 개발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우려는 일찍이 제기된 문제였다. 그러나 정부는 밀어붙이기로 일관했으며, 지금도 속도전의 기조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재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거들떠보지 않으니 '막가파'라는 격앙된 비난의 소리가 쏟아지는 것이다.

지난 20일 부여의 금강변 왕흥사지에서 천도재가 봉행되었다. 4대강 공사로 사라질 유적에 대한 고별 의식이었다.

왕흥사지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금강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공사의 여파로 발굴 조사가 끝나지도 왕흥사지 주변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행사가 열린다는 것이 한탄스럽다.

왕흥사는 백제의 국찰이었다.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신비로움을 밝혀주는 열쇠가 왕흥사지에 있으며, 역사 교과서가 바뀔 정도의 큰 가치를 지닌 백제 유적의 보고라고 이 행사를 주최한 불교환경연대와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원회는 강조하고 있다.

백보를 양보해서, 정부 입장대로 4대강 공사가 중차대한 만큼 문화유적의 보존도 그 중요성에서 결코 적지 않다.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왕흥사지의 사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보존을 위한 대책을 각계의 의견을 들어 수립해야 한다. 4대강 개발 문제를 보는 시각에따라 여럿이겠지만,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 스탠톤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한국최면연구소
제 50 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월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개 강: 2010년 8월 30일 (월)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 200만원
▶특 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현재 접수중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 255-0734~5

Hot 여름을 시원하게~~ 삼베 카페트로 cool 하게~~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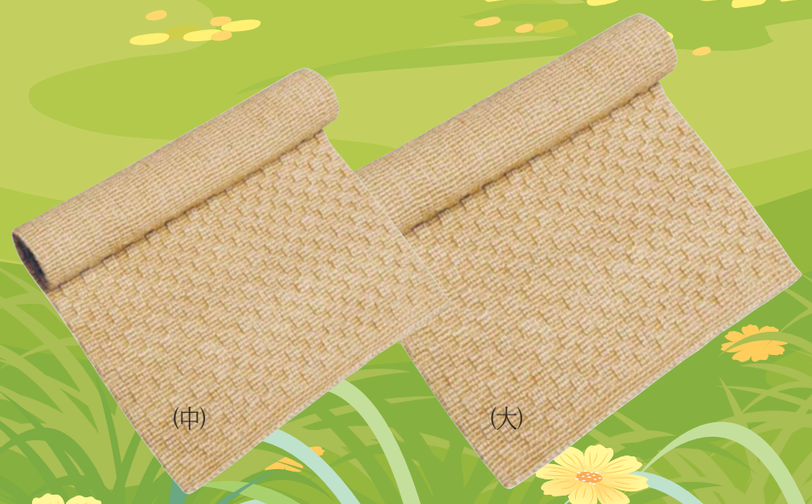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삼베 멍석 카페트
◇ 원산지 : 한국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위생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 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6.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 제조과정
삼베줄기를 수확하여 삶아 건조시킨 후 베틀에 삼베짜기 하여 제작한 친환경 제품 입니다.




(中) (大)



■ 삼베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삶을 코칭하라!



펌프로 물을 퍼올리기 전 물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
펌프에 부어주는 '마중물', 펌프를 작동 시키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다.
땅 밑을 흐르는 양질의 지하수가 아무리 풍부해도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없으면 이를 퍼올릴 수 없듯이
인간 내면의 잠재력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코칭' 이라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마중물의 힘〉은 저자가 자신의 인생역정 중에서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코칭이라는 요즘 알려지기 시작한 특수한 기법에 엮어, 단문의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책은 하나의 지식이 단지 도구적인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지혜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점이 많은 '위기지학' 매뉴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

인생의 모든 답은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그 답을 갖고 있기에 그것을 찾고 그 답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코칭은 좋은 동반자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궁극에는 '코칭' 이라는 말도 버려야 한다고 천명한다. 가장 불교적이면서도 가장 코칭적인 선언이다. 불교도 코칭도 넘어서는 '그 무엇' 을 향해 나아갈 때 인간은 완성의 길로 가는 궤도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보관 스님 (남춘천 자비정사)

코치 허달의 사통팔달

마중물의 힘

여시아문 허달 지음 | 224쪽 | 10,000원 (3만원 이하 택배비 별도)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